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9월 12일(음력 8월 2일) 수요일 (주간) 제645 호

조계종 '참회'…현안해결 대책기구 구성

중앙종회의원 13명·총무원 집행부 2명 참여
교계 안팎서 "특단의 대책 필요" 한 목소리

"종립학교 교수 채용문제가 발단이 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안고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주 마곡사, 제주 관음사, 인제 백담사 등에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일들이 생겨 역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어찌 당사자들만의 책임이고 허물이겠습니까? 종단의 중책을 맡고 있는 소납(小衲)을 비롯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승가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먼저, 종단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최근 종단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9월 4일 개원한 제174차 임시 중앙종회 인사말을 통해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조계종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단 수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다.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도 문제의 원인이 승가 내부에 있다고 고백했다. 현문 스님은 9월 3일 열린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스스로 승려 자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자아비판 했다.

동국대 신정아 前 교수 문제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중앙종회도 '참회'의 뜻을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9월 4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각종 불교계 현안문제로 불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참회 드린다"며 "깊은 자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고, 우리 교계와 종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자정의 결의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 "종단이 거듭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갈등과 분란의 소지를 종식해야 한다"며 "동국대 사건과 관련해는 더 이상 승가공동체이기를 포기한 모습"이라며 △동국대 이사스님들의 공개참회와 이사장 사퇴 △핵심 교직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장윤 스님은 즉각 검찰의 소환에 응해 사실을 밝히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이사회 장악을 위한 종권다툼을 중지하고,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살려 스님 이외의 각 분야 전문가로 개방이사를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종단 사법기관의 엄정한 종법집행과 '교단정정위원회' 등 상설 자정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중앙종회 초선의원 20명도 9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국대 문제와 관련 '갈등의 당사자였던 현직 스님이사 전원의 사퇴'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 "동국대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과 학교 운영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찰에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총무원 집행부와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종회에서는 영담, 광조, 향적, 성직, 장적, 태연, 원담, 덕문, 자승, 상운, 지홍, 운달, 수현 스님이 참여하며, 총무원 집행부 2명도 포함돼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불자와 국민들의 시선은 대책기구로 쏠려있다. 대책기구가 어떤 안건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결의문에서처럼 "참회를 통한 자정의지를 현실에 옮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못할 경우 '면피'용 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대책기구 구성원인 지홍 스님은 "대책기구는 종단 현안 문제를 논의를 통해 수습하자는 차원에서 구성됐다"며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책기구 운영과 관련 덕문 스님은 "현안이 생길 때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문제를 풀어가는 합의체 형식으로 갈 것"이라며 "추석 전에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손옥균 팀장은 "대책기구의 향후 활동을 지켜봐야하겠지만 대책기구 또한 계파간 안배 성격이 짙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며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대책기구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면 인적쇄신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동우 · 여수령 기자



품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 불교의 효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된 불교효실천연합회가 9월 6~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시니어 엑스포에 '불교관'을 마련하고 불교 효 문화 홍보에 나섰다. 불교효실천연합회는 12개 부스에 <부모은중경> 관련 자료전시와 영상물 상영을 비롯해 인경, 사경, 다도 등의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9월 6일 베트남 불자 관광객(오른쪽)이 <부모은중경> 인경 체험을 하고 있다. 일산 킨텍스=글/사진 · 박재완

社告

'현대불교신문' 지사장님 모십니다

불법홍포의 주역으로 포교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십니다.

● 모집 지역(9개 지역)

.강원동부: 강릉 동해 삼척 일원
.강원서부: 춘천 원주 정선 영월 평창 홍천 일원
.경기남부: 안산 화성 용인 안성 일원
.경기북부: 포천 연천 동두천 파주 일원
.충남: 대전을 제외한 충남 전지역
.경남남부: 마산 창원 일원
.광주전남: 광주 및 전남 전지역
.전북: 전북 전지역
.제주도: 제주 전지역

● 사업내용
- 지역 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신분증 복사본.
- 제출기한: 2007년 9월 13일(목)
- 제출방법: 우편(13일 도착분만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처: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2004-8234



한국불교총화종 유지재단 설립

후학양성·포교사업 주력 방침

한국불교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이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종지종풍 함양에 박차를 가한다.

총화종은 8월 27일 '한국불교총화종유지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종단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불법홍포에 앞장설 예정이다. 남정 스님은 "출가자로서 무소유 정신을 실천한다는 뜻에서 유지재단을 설립하게 됐다"며 "앞으로 후학양성을 위한 강원을 설립하고 출판물 간행 등 포교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에는 총화종 총본산 수진사에 교육시설을 겸한 대웅전과 유치원을 설립하는 불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총화종은 사설사암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지재단에 가입하려는 사찰이 늘고 있어 재단 운영에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 총화종 측의 설명이다. 스님은 "재단 설립에 기꺼이 뜻을 함께 해준 종단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출가 후 42년 동안 품고 있던 뜻을 이루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 마음이 편안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 개강

"자비의 마음으로 가정과 사회를 밝히는 자비명상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9월 3일 '자비명상 지도자'가 되기 위해 스님 20명과 일반인 15명이 각각 오후 2 · 7시 서울 법련사 강당에 모였다. 지도법사 마가 스님은 강의에 앞서 법명과 이름이 아닌 가장 좋아하는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교육 기간 동안 그 단어로 이름 대신 상대방을 부르기로 했다.

강의는 자기소개에 이어 마음나누기, 엉킨 손 풀기, 마음의 눈 넓히기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7주간 감사명상, 유서쓰기, 공감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참가자들은 4박 5일간 실습과 심화교육을 받고 자비명상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다. 고영배 기자

"부처님 등불" 수공예전기양초

불자님들의 가정과 스님께 선물 및 보시용으로 최고인 기원전기 촛불 수공예 양초가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수 있으며, 30초 간격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이다. 색상도 흰색, 꽃분홍, 노랑, 청색, 옥색 외 다수가 출시 되었다. 이제품은 전국 불교용품점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 제품문의 02)996-8830



소원성취(노랑) 소원성취(꽃분홍) 소원성취(원통)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 5cm, 5 x 7cm으로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 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Since 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늘 푸른 정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5대 사업 ■「불교대백과사전」편찬사업 ■불교전문교육사업: 불교원전전문학림 "三學園" ■학술연구사업: 상하종서 간행/전국연구자결성 '가산학회'/수행결사 '동행포럼' 운영 ■문화교화사업: 정기 '수행문화포럼' 진행 ■전문출판사업: 4대사업 성과물 및 기획출간사업

"가산불교대사림 제9권을 출간하였습니다. 연구원가족 恒心으로 精進하며 이 모든 功德을 大衆에게 回向합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림 예약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산불교대사림 예약 및 후원회원

• 현재 1·2·3·4·5·6·7·8·9권 출간. 10권 근간, 전18권(보유 세 권 포함) 년차 속간 예정입니다.
• 전권금액 2,180,000원, 예약회원은 20% 할인하여 1,750,000(우편료 포함)원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전권 구입을 희망하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60개월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206-6
TEL.765-9602~3 FAX.765-5673

장경호 거사 32주기 추모법회

대원정사서 봉행…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 등 300여명 참석



대원 장경호 거사 32주기 추모법회에 참석한 불자들.

한국불교대원회(이사장 장세우)는 9월 2일 서울 대원정사에서 대원 장경호 거사 제32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동국제강 창업주인 장경호 거사는 1967년 불서보급사를 설립해 문서포교를 시작했으며, 70년에는 대원정사를 건립해 도심포교의 전형을 선보였다 또 불교계 최초의 교양대학인 대원불교대학과 신행단체인 한국불교대원회, 대한불교진흥원 등을 설립하며 한국불교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다.

추모대법회에는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 권오현 前 불교방송 상무, 최명준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영통사 돌출 발언 물의 김규철 대표 공개 사과

우란분절을 맞아 지난 8월 25일 개성 영통사에서 봉행된 '백중 천도대법회' 당시 축사를 하면서 돌출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가 서면을 통해 공개사과를 했다.

김 대표는 9월 4일 (사)영통포럼으로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예고 없이 남북간 익숙치 못한 예외적인 발언으로 주최측과 북측 참석자들에게 당혹감을 갖게 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공개사과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새바람 부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174차 임시중앙종회 개최

9월 5일 속개된 조계종 제174차 임시중앙종회. 종헌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몇몇 다선의원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했다. 14개 종법 제·개정안이 상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임시회를 조기종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자 장적 스님은 "처리해야 할 종법 제·개정안이 산적해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오, 성효 스님 등 초선의원들도 동참했다. 결국 임시회는 상정된 종법 제·개정안을 모두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승가의 무소유 원칙을 법으로 구체화한 '승려법 개정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전 중앙종회에선 몇몇 다선의원들이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신선한 반란'인 것이다.

△승려법 개정안=승가는 무소유가 원칙이다. 그러나 각종 보시금 등을 통해 사유재산이 발생한다. 스님이 사망할 경우 이 재산을 두고 세속의 가족이나 문도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승려법 개정안은 스님이 환속·제적·사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삼보정재 유실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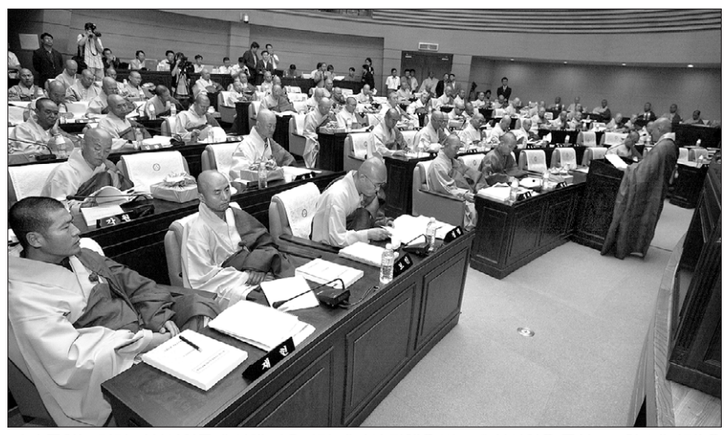
개정안은 30조 2항을 신설해 "스님은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스님이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스님이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종단에 귀속된다. 이 규정의 귀속을 위해 스님은 구족계 수계시와 이후 매 5년마다 당 스님이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을 제출하고, 종단에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단은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승려노후복지와 승려교육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법진 스님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종단이 앞으로 희망 있다는 증거"라며 "세부적인 것들은 종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무원법 개정안=이번 종회에서 '개악'이라고 비난받았던 종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종무원 임용자격을 강화한 것으로 사찰 종무행정 행위, 사찰수행환경 보존 및 개선, 민주화 등이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종회는 몇몇 다선의원들에 의해 좌우되던 예년의 관행을 벗고 초선의원을 중심으로한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초선 의원들, 소수 다선의원의 '좌지우지 분위기'에 제동
승가 무소유 원칙 구체화한 '승려법 개정안' 통과 큰 소득

또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강간·간통)으로 국가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고보조금 횡령 및 전용에 의한 사기죄를 지어도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등 교역직 종무원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해 개정 취지를 퇴색시켰다.

△9개 종헌·종법 제·개정안은 이월=중앙종회의원 선거 시 당해 교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선거권을 줬던 것을 2년 이상으로 늘렸으며, 당해 교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타 교구에서 치러지는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종헌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승려법·총무원법·호계원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분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 교육법 개정안,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안은 차기 종회로 이월돼 아쉬움을 남겼다.

또 의사진행 미숙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가 부결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만장일치 추대=한편 중앙종회는 만장일치로 보성 스님을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으로 추대했다.

무진장(직할교구)·혜정(직할교구)·정관(범어사)·종하(관음사), 도원(동화사), 녹원(직지사), 현성(직할교구)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천했으며, 정념 스님(양양 낙산사 주지)을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선출했다.

초심호계위원으로 재원·경성·종열·정만·현각·선법 스님을, 재심호계위원으로 성우·성타·성덕·혜담·진구 스님을 선출했다. 혜자·법해·여연·돈무·청우 스님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뽑혔다.

법계위원회 위원으로 혜정·보성·고산·인환·월주·종진·설정·지성·무관 스님을, 기본선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찬·인각·현묵·영진·신룡·영일·법장·현종 스님을 위촉하는데 동의했다.

장적 스님을 위원장으로 총무분과에 일문·진화·선문 스님, 교육분과에 성직·돈관·장적 스님, 포교분과에 주경·종성·보인 스님, 사회분과에 학담·영담·태연 스님, 재정분과에 보원·법광·재현 스님, 호법분과에 무자·종호·정광 스님, 법제분과에 광조·장명·성효 스님, 의장단에 혜오·선광·성묵 스님으로 불기 2551년도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진각종 총금강회 연합 산행대회

진각종 총금강회(회장 원당)가 창종 60주년을 맞아 10월 27일 충남 공주 계룡산에서 총금강회 연합 산행대회를 개최한다.

총금강회는 9월 1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진각종 통리원 대회의실에서 지부장 회의를 갖고 하반기 행사로 △10월 13일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27일 제1회 연합 산행대회 개최 등을 확정했다.

이밖에 논산훈련소 수계법회와 연계해 11월 16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족과 이웃제도' 확대 실시 등을 하반기 중점 행사로 선정했다.

김주일 기자

금상산 신계사 남북공동 낙성식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낙성식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신계사 일대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12일 오후 4시 30분 신계사 부처님 봉안 및 점안식을 시작으로, 13일 오전 9시 신계사 복원 남북공동 낙성식, 13일 오후 1시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등으로 진행된다.

남측 조계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은 신계사를 공동으로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대웅보전 외 11개 전각과 삼층석탑을 복원했다.

남동우 기자

불교발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총무원 기획실은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불교정책기획단(단장 기획실장 승원, 허경만 이사장)'을 구성해 환경생태, 불교콘텐츠, 불교미디어 등 9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중장기 정책과제를 9월말까지 정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도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조계종 홈페이지 배너(게시판)를 이용하면 된다. 기간은 9월말까지.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奉

道元堂雨華大宗師 열반 31주 기일(法脈 : 鏡虛-慧月-雲峰-雨華)

羅州 多寶寺 掛佛(寶物1343號) 展示水陸無遮平等大齋

行

수륙재란 무엇인가? 水陸緣起를 말하자면, 하루는 梁武帝가 法雲殿에 거처할 때 神僧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六道四生의 고통이 무량하거늘 어찌 水陸齋를 베풀어서 法界含靈을 廣齋하지 않는가 모든 功德中에 이것이 第一이니라."하니, 꿈을 깬 후 奇異하다고 생각한 양제가 다음날 승려들을 불러 모아 하문한 즉,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오직 誌公法師가 무제에게 말하기를 "佛經을 널리 열람하면 반드시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하여 大藏經을 법운전에 쌓아놓고 주야로 열람하여, 佛說救護燄口餓鬼陀羅尼經과 佛救面燃餓鬼神呪經을 발견하였으니, 무제가 이 경을 의지하여 3년에 걸쳐서 水陸儀文을 自撰完成하고 夜時를 택하여 佛前에 고하여 말하기를 "이 儀文의 理趣가 聖凡에 합당하면 절을 올리는 동안에 燈燭이 스스로 켜지고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대로 어둡게 해 주십시요" 하며 한번 절을 하니, 등촉이 모두 켜지고 두 번 절하니 宮殿이 진동하고 세 번 절하니 天上에서 四花가 눈처럼 내렸다. 이에 무제가 감격하여 金山寺에서 齋를 設하고 僧佑律師에게 그 文義를 宣讀케 하여 고통받고 있는 六道四生의 衆生을 제도하였던 것이 그 유래이다.

각 각의 사찰에서 매년 칠월 백중을 맞이하여 조상천도의식을 행하나, 자신이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살생한 중생, 고의로 살생한 중생, 不知間에 살생한 중생과 有主無主孤魂衆生을 천도할 기회를 좀처럼 가지기 어렵다. 그리고 근래 海上이나 江邊에서 放生하는 것을 水陸으로 代用하고 있으니 심히 한탄 할 일이다.

그러면 水陸이란 무엇인가 "대개 諸仙은 流水에서 取食하고 鬼神은 淨地에서 就食한다."라고 하였으니 청정한 伽藍이나 高峰頂上에서 그 의식을 행하면 수륙재인 것이다. 금번 다보사에서는 우화큰스님 열반 31주기일을 맞이하여, 처음 괘불 부처님이 출현하시니, 그 높이가 12m요 폭이 9m(문화재 보물1343호)인 부처님으로, 약 270년전 의겸스님께서 깨달음의 세계를 회화로써 부처님을 탄생시키니, 그 장엄함과 영험함이 가히 無上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불교의식의 거장인 묵담큰스님으로부터 정통으로 전수공부한 수진스님을 병법으로 모시고 法답게 수륙재를 봉행 할 예정이다. 慈悲心을 발하여 수희동참하시여 무량공덕을 쌓아 부처님의 세계에 함께 합시다.

◆수륙재일 : 2007년 10월 1일(양력) 우화큰스님 열반기재일
◆장소·일정 : 다보사 대웅전 앞, 7일간 지장기도 회향당일 수륙재의식 오전10시~오후5시
◆증명법사 : 지종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의식집전 : 수진스님 (용화사 주지)외 6인
◆총 도 감 : 지검스님(다보사 주지)

◆동참방법 : 설판재자(생축·망축포함) 50만원, 일반 : 생축 1인당 1만원, 망축 1위당 1만원
◆입금방법 : 농협 637013-51-055923 다보사, 우체국 500298-01-005544 다보사
◆문 의 : ☎ 061)334-4201 / 팩스 : 061)334-4202
주소 : 전남 나주시 경현동 629번지

나주 금성산 다보사 주지 지검 심적 드림

거장의 예술 魂 느낀다

故 윤이상 탄생 90주년 기념 페스티벌 개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고(故) 윤이상 선생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윤이상 페스티벌이 9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과 부산, 일산 등 국내를 비롯해 평양과 베를린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윤 선생이 동백림 사건으로 투옥됐을 당시 유럽에서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프란시스 트라비스(前 스위스 라디오 필 지휘자)를 비롯해 독일의 현대음악 거장인 니콜라우스 후버(前 독일 에센음대 교수), 베를린 음대에서 윤 선생에게 작곡을 배웠던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음악가 이사오 마츠시다(동경예술대 교수)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국제 윤이상 음악상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가한다.

페스티벌은 윤 선생의 출생일인 9월 16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프란시스 트라비스와 정치용이 지휘하는 윤 선생의 대표작 '훼로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등으로 막을 연다.

이어 18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는 윤이상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할 서울 윤이상 앙상블의 창단 연주회가 열리고, 19일 통영국제음악제 앙상블 연주회(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20일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초연(부산문화회관), 다음 달 9일 국악과 윤이상의 만남(국립국악원 예악당), 사토키 아오야마 지휘의 서울시 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회(세종체임버홀)가 이어지고, 11월 2일 윤이상 선생의 서거일에는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폐막 공연이 개최된다. 특히 한국에서 초연되는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는 87년 평양에서 초연된 적이 있으나, 당시엔 윤 선생의 의도보다 규모를 축소해 연주했다. 이번 한국 초연은 합창단, 관현악단을 포함해 24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다.



한국, 평양, 베를린서 공연
세계적 음악가들 방한 예정
11월 3일 봉은사서 추모제

이 곡은 군사정권하에 투옥돼 옥고를 치른 시인들의 시집 48권을 구해서 읽은 후, 시를 뽑아내어 그 시에 곡을 붙여 독창과 합창이 함께 들어가는 칸타타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번 초연에는 이 곡의 원천인 됐던 재야 시인인 고은, 백기완씨 등도 초청된다.

이외에도 11월 3일 삼성동 봉은사에서는 윤이상 서거 12주기 추도법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한 북한과 독일에서도 페스티벌을 이어받아 10월 20~22일 평양 윤이상음악당에서 제26차 윤이상 음악회가 개최되고, 베를린에서는 11월 8~10일 베를린국립음대 콘서트홀에서 베를린 윤이상 앙상블의 밤과 심포지엄 등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행사에서 눈여겨 볼 점은 올해부터 재능있는 젊은 음악인의 지원을 통해 윤이상의 음악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제1회 국제 윤이상 음악상' 콩쿠르도 진행된다는 것이다.

격년으로 개최될 국제 윤이상 음악상콩쿠르는 올해 90여명의 젊은 작곡가가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최종 결선에 5명이 올라 페스티벌 기간 중 결선 심사 및 시상식을 연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의미로 대두될 것은 윤이상 선생의 부인 이수자(80) 여사가 9월 10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40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다는 것이다. (02)723-0634

김주일 기자

삼룡사 우승컵 안고 '화이팅'

제34회 상월조사배 배구대회 1만여 명 참석

천태종이 개최한 제34회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에서 서울 삼룡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9월 2일 충북 단양공설운동장에서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34회 상월원각대조사기 중앙청년회 배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종단 사찰의 입장식, 교무부장 유정 스님의 개회선언, 오순학 중앙청년회장의 대회사,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법어, 김동성 단양군수와 신장용 한국중·고등학교 배구연맹 회장의 축사가 이어진 뒤 배구(9인조 A, B), 족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장애물릴레이 등으로 진행됐다.

배구 A리그에서는 서울 삼룡사가 창원 원흥사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B리그에서는 영춘지회가 동해 만리사를 제치고 우승했다. 3위는 서울 관문사와 부산 삼광사가 차지했다.

또 족구는 밀양 삼양사가 줄다리기는 춘천 삼운사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단양= 김주일 기자



"불교대 교수 장학금 유용"

동국대 한진수 부총장 기자회견서 밝혀

"진상조사 결과 불교대 조용길 교수가 불교장학회 장학금을 유용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동국대 한진수 부총장(진상조사위원장)은 9월 4일 부총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불거진 (재)동국대 불교학생회 장학금 유용 문제에 대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부총장은 "이 문제는 지난 8월 17일 동국대 불교대 학생회 회장 혜공 스님이 오영교 총장에게 불교장학회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며 "총장 지시로 8월 20일 진상조사 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3년 간 750여만원의 장학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부총장은 "불교장학회에는 이사 4명과 감사 2명이 있는데 이 중 일부 이사와 감사는 자신이 직책을 맡고 있는 지 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이사회조차 열리지 않았으며 단 한 차례의 감사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재)동국대학교 불교장학회는 1958년 9월 17일 백성욱 당시 동국대학교 총장이 서울 중부교육청에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장학재단이다.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회는 이와 관련, 9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용길 교수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주일 기자



9월 3일 열린 전법회관 기공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맨 오른쪽) 등이 시삽을 하고 있다.

조계종 전법회관 기공…2008년 6월 완공

조계종 중앙신도회관인 전법회관의 기공식이 9월 3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회관 부지에서 개최됐다. 전법회관은 대지 560㎡(약 169평)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8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는 조계종 신도단체들과 사회복지재단 등이 입주하게 된다. 시공은 성일건설주식회사가 맡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앞으로 신도단체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신행과 포교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며 "공사가 안전하게 완공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부대중의 정성과 기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할 전법회관이 지어지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신도회 역할에 충실하고 불자회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전법회관 건립추진위원장 현문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교육원장 청화 스님 등 종단 임원 스님들과 윤원호·신명의원,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 명예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외압 없었다"

장윤 스님 대변인 발표문 배포
9월 6일 이사 사퇴서 제출

"청와대 불자회 변양균 정책실장을 만나 조계종 중앙종회 법제분과 위원장 자격으로 각 사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압은 없었다."

신정아 학력위조를 처음으로 제기한 장윤 스님이 최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의 외압 의혹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또한 장윤 스님은 동국대 이사로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9월 6일자로 동국대에 이사 사퇴서를 제출했다.

장윤 스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선 이중훈 변호사는 9월 6일 서울 마포경찰서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를 골자로 한 장윤 스님의 발표문을 배포했다.

이 발표문에서 장윤 스님은 "가짜 학력 의혹 은폐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국대 재단이사들이나 학교관계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 스님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일상적인 이야기 수준이었다"면서 "과테말라에 있었던 변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은 없다"고 변 실장 외압설을 부인했다.

김주일 기자

I Love Buddha / 건강하세요

용정운(www.zentoon.com)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3-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Intelligent Home Robotics K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仁谷堂 法長大宗師 涅槃 2週忌 追慕 茶禮

인곡당 법장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추모다례를 봉행하옵니다.
일 시 : 2007년 9월18일(음력 8월 8일) 화요일 10:00
장 소 : 덕숭총림 수덕사

2005년 법장스님 영결식 당시 하늘에 나타난 해무리.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주지 옹 산
인곡당 법장 대종사 문도 일동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 041)337-6565 www.sudeoksa.com

"경내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웬말"

거제 금강사 '수행도량 존폐 위협' 반발…노선 변경 촉구

거제도 금강사(주지 성원)에 경내를 가로지르는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하촌 지역인 수월리와 양정리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강사 주지 성원 스님은 "경내지를 가로지는 고속도로 공사계획은 자연 파괴, 소음공해, 대기오염, 식수 단절 등 수행도량의 존폐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일"이라며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성명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며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는 금강사 산신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고속도로 건설로 수행환경을 침해받고 있는 거제 금강사.

고속도로는 통영군 용남면 장문리에서 연초 송정까지 총 30.36km로 확장 연결되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957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공사다.

문제의 이 도로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수익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지난 4월에 열린 1차 공청회와 4개월 뒤 개최된 2차 공청회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금강사와 고속도로 공사 대책위(위원장 김명호)는 "청와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및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9월 6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금강사 위쪽 산 속 보이지 않는 위치에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도로의 지형적 위치를 고려해 최대한 금강사에서 떨어지도록 계획했다"며 "도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종교적 활동에 방해 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다"고 밝혀 철회의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거제=하성미 기자

조계종 포교사들 '8재계수계 실천 대법회' 참여

"계율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를 외치며 전국에서 모인 조계종 포교사들은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제5차 8재계수계법회'에 참여했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이 주관한 이번 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증명으로 전계대화상 포교원장 혜총 스님, 갈마아사리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교수아사리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이 맡아 수계식을 진행했다.

8재계를 굳게 지킬 것을 발원한 포교사들은 팔에 연비를 받으며 장궤합장을 한 채 참회진언을 합송하고 계를 청정히 지킬 것을 재차 다짐했다.

8재계수계대법회 입재식에서 혜총 스님은 "이번 법회는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확인하고 포교사로서 단 하루라도 8가지 계를 철저히 지켜 스스로 행하며 신행과 타행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다"며 "불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전달'하는 포교사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고 개인 신행에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성홍 단장은 "8재계수계 실천 대법회는 우리에게 훌륭한 선지식이 되어 주며 또한 지계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바뀌고 사회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보살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일 동안 포교사들은 오후 불식과 철야정진 및 참회기도에 동참하고 정우 스님과 초청강사의 특강도 들었다.

이번 수계식에는 10월 7일 품수식을 갖는 예비포교사 400여명과 900여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했고 포교활동 공로를 인정받은 모범 포교사 11명은 총재상 및 단장상을 수상했다.

하성미 기자

"자전거 타고 에너지 절약을"

옥천 종교계 캠페인 개최

옥천 종교계가 에너지 절약과 종교화합을 위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개최한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와 옥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하석), 옥천 천주교성당(주임신부 곽동철) 등 종교계와 옥천군, 옥천문화원은 9월 16일 오전 7시 자전거를 타고 옥천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옥천 시내를 돌며 자전거 타기와 차 없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스님과 목사, 신부 등 성직자들도 직접 자전거를 타며 종교 화합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군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10주년 맞은 약사보리회 · 교사불자聯

9월·11월 기념 법회 개최

약사여래의 손길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류창수)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신연섭)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불자약사보리회는 9월,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오는 11월 각각 창립 10주년 행사를 개최하고 초발심을 다지는 한편 불법 홍포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998년 창립한 불자약사보리회는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매주 무료 투약봉사를 펼치고 있다. 그간 조계종사회복지대상(2002)과 조계종 공로패(2003)를 수상하는 등 봉사활동을 인정받았고, 올해는 한국NGO학회 최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불자약사보리회는 9월 9일 창립 10주년 및 무료투약 100만명을 기념하는 법회를 개최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류창수 회장은 "중생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하겠다"며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불자약사보리회의 활동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오는 11월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법회 및 수련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 8월 대흥사서 열린 여름수련회에서 신 회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청소년 불자 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와 더불어 그간의 활동 내용과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념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한민족평화포럼은 8월 24일 네팔국립 카트만두대학에서 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네팔 문화교류 청신호

갸넨드라 국왕 지원 의사 표명

네팔 국왕이 한국과의 문화교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갸넨드라 네팔 국왕은 8월 24일 한국의 한민족평화포럼(상임의장 법혜) 회원 34명의 예방을 받고 "불교를 포함한 양국의 문화교류에 국가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족평화포럼은 "이번 교류학대를 위한 방문은 성공적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네팔 정부와 불교문화 교류, 인적 교류, 물적 지원 등의 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민족평화포럼은 네팔국립 카투만두대학에서 문화교류 협정을 맺고 문화기금과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갸넨드라 국왕은 한민족평화포럼 상임의장 법혜 스님과 공동의장 이영숙(부산 코모도 관광호텔 대표)씨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임연태 기자

조선왕실의궤 반환 조정 연기

환수위 "일본 국회에 청원"

조선왕실의궤 반환 조정이 일본측의 불참으로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9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조선왕실의궤 반환 조정에 일본 왕실과 정부가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조정 일정이 12월 14일로 연기됐다. 반환 신청을 제기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공동의장 봉선사 주지 철안 · 월정사 주지 정념 · 김원웅 의원, 이하 환수위)는 일본 국회에 반환 관련 청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라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환수위 간사 혜문 스님은 "8월 24일 열린 1차 조정에 일본이 불참함에 따라 조정 일자가 9월 7일로 연기됐으나, 일본 정부가 끝내 응하지 않았다"며 "만일 최후까지 일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법원에 강제조정명령을 신청한 후 일본 법원에 강제조정의 효력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수위측은 유홍준 문화재청장에게 궁내청을 방문해 조선왕실의궤를 직접 살펴볼 것을 요청하는 등 환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혜문 스님은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일본 국회에 청원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법주사서 사진 촬영대회 개최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에서 9월 2일 '제7회 속리산 법주사 전국 사진촬영대회'가 열렸다.

보은군과 보은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청주지부(지부장 김성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김종호 이사장과 류경선 부이사장, 충북예총 장남수회장 등 전국의 사진동호인 600여 명이 참석했다. 촬영 작품은 9월 20일까지 접수 마감하며 심사를 거쳐 24일 결과가 발표된다. 시상식은 10월 6일 세광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복식사학자, 불교 복장직물 등 기증

1000여 점 국립중앙박물관에

원로 복식사학자 김영숙(81) 교수(前 숙명여대 의류학과 교수)가 평생을 걸쳐 모은 전통복식 10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중에는 복장주머니(사진) 등 불교 복장직물 자료 150여 점도 포함되어 있어 불교 복식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증된 복식 자료는 우리나라 전통 복식 500여점과 중국 소수민족인 묘족(苗族) 복식 및 장신구 200점 등이다.

특히 천연 염색의 여성 저고리와 지역 특색이 두드러지는 여성 속바지, 개성 지역의 아동용 돌복, 궁중에서 사용된 대삼작노리개 등 계층과 지역을 망라하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복식사 흐름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김 교수의 기증품은 지방 박물관 특성화 계획에 따라 9월 말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중앙박물관 오영찬 학예사는 "전통복식 재현을 위한 연구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크다"며 "섬유도시라는 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국립대구박물관에 섬유직물 상설 전시관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생을 복식사 연구에 매진한 김영숙 교수는 현재 동양복식연구원장과 아시아민족조형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선전기 불복장직물의 이해> <고려의 불복장과 염직> 등의 저서를 펴냈다.



여수령 기자

제32회 중봉충렬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제 및 문화공연
임진왜란때 1300여 의·승병과 함께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옥쇄하신 중봉 조헌 선생과 의승장 영규대사의 살신호국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충과 의를 선양하여 나라 사랑의 참뜻을 되새기며 기허당 영규대사의 추모제와 문화공연을 개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9월 16일 오후 5시 • 장소 : 관성회관
식전행사) 영산대제
1부) 추모식
2부) 문화공연
- 나유타 "최봉종"
- 비보이 팀 Universal B-boy krw
- 풍물굿패 "살판"
나유타 [최봉종]

비보이 팀 Universal B-boy krw

풍물굿패 [살판]

옥천불교사암연합회
에너지 절약과 종교화합을 위한
군민 자전거타기 캠페인

2007년 9월16일 오전 7시
옥천공설운동장 집결
경품 : 자전거 60대, 축구공, 농구공
참가자 전원 간식 제공
주최: 옥천불교사암연합회, 옥천천주교성당, 옥천기독교연합회, 옥천군, 옥천문화원

절·마을 맑은 소리만 가득하길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27 희양산 봉암사


마애보살좌상.


정진 대사 원오탑.


봉암사 전경.

봉암사로 오르는 숲길은 호젓하고 고요하여 자연도 수행하고 있는 듯하다. 수행사찰이라 산문을 열지 않고 오는 사람도 말리는 것이 절집의 인연법이라 하니 야속하다 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어쩌면 한평생 적막과 싸워야만 하는 절집의 숙명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세월의 덧없음 속에 쌓인 절집의 적막은 스님들 독경소리가 깨우지만, 내 안에 쌓인 적막은 무엇으로 깨운단 말인가. 끝내 깨우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적막 속으로 돌아가는 것 아닐는지.

봉암사는 신라 헌강왕 5년 지증 대사가 창건했는데, 보물 제171호인 정진 대사 원오탑, 보물 제137호인 지증 대사 적조탑, 보물 제169인 봉암사 삼층석탑 등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절집이다. 희양산 자락을 지증 대사가 보고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으니 마치 봉황의 날개가 구름을 치며 올라가는 듯하고, 계곡물은 백 겹의 띠 같으니 용의 허리가 돌에 엎드려 있는 듯하다. 스님의 거처가 되지 않으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단다. 햇살이 하얀 바위벽에 부서져 벼랑 아래 법당으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이 지혜가 없는 내가 봐도 명당인 듯하다. 봉암사도 다른 절집과 마찬가지로 중창과 소실을 반복했는데, 사세가 융성했을 때는 3000여 명의 스님들이 머물러 정진하였다고 한다. 스님들이 선방에 들고 난 후 적막이 너무 무거웠던지 극락전 추녀 끝에 걸린 풍경이 소리를 여의고 있다. 수행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도를 닦으라는 경책인 듯도 하다.

조계종 특별선원으로 참선과 정진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봉암사는 성철 스님을 비롯한 선승들의 요람이었고 한국 불교의 중흥을 모색한 근거지이기도 했다. 지금도 때가 되면 선방은 스님들 정진의 언덕이 된다. 일주문부터 절 너머의 사찰림까지 주지스님의 허락 없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이나 칠월칠석날은 중생들을 위해 산문을 열어두기도 한다. 절을 돌아보는 동안 납옷을 입은 스님들을 만났는데 모두 고개를 숙인 굳은 표정들이다. 수행을 하는데 속가의 사람들 방문이 달갑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희양산의 솟은 바위의 모습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인수봉이나 설악산국립공원의 울산바위에 견줄 만하다. 거대한 바위 봉우리 아래에 골짜기 마다 띄엄띄엄 마을이 있는데 원북리에는 현재 31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마을 버스정류장 앞에서 김학복 반장님을 만났다.

"우리 마을에는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들이 삽니다. 옛날에는 90호에 200명 이상 사는 큰 마을이었지요. 산골짜기에 화전민이 50호 정도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모두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사람들은 약 2만6400평방미터 정도의 절집 농사를 지어주며 먹고 살았어요.

"우리 마을은 농로를 포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을앞 다리도 놓을 수가 없지요. 허가가 나지 않아요. 봉암사가 선수행 사찰이라 마을이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마을사람들이 마음 놓고 건너다닐 수 있는 다리는 놓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리가 너무 낮아서 비가 웬만큼 와도 산 밑 마을은 갇혀버린다고 했다. 냇가가 20미터 정도의 넓이라 다리를 놓아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단다. 마을 사람들은 원북리 주민으로서 봉암사가 도로와 다리를 놓는 것에 앞장 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80년도 마을이 큰 수해를 입고 인명피해가 있었던 터라 다리 놓기가 주민들의 첫 번째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봉암사와 사하촌에는 서로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고 살았던 때도 있었다며 꼬깃꼬깃 넣어 두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원북리 전경.

"옛날에 김만성 주지스님이 계셨어요. 한국전쟁 때

큰 절과 이웃, 든든한 후원자
"입석버스 보내달라" 함께 민원
다리 건설 등 절 나서면 '큰 힘'

희양산에 빨치산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요. 봉암사를 지키기 위해 마을사람들은 하룻밤에 두 번 씩 올라가서 관찰하고 군에다 보고를 했지요. 그렇게 생명을 무릅쓰고 지켰는데 봉암사가 빚으로 개인에게 넘어갔어요. 무슨 일인지 김외덕 형사가 봉암사 주지가 되었지요. 문경시민들은 봉암사를 찾아서 조계종에 넘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군에 진정을 넣었어요. 그 때 이병하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데 절집을 도로 찾아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되었지요. 이병하씨가 15일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봉암사를 찾아 주고 장관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때 개인에게 넘어가는 절집을 찾기 위해 행정서를 꾸미고 공약을 얻어내 봉암사를 찾아준 것이 마을사람들이었어요. 절집에서 그런 마을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원북리 사람들은 봉암사와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종단이 위기에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봉암사의 힘을 믿고 싶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문제는 마을사람들에게도 있다고 했다. 마음을 한데모아 타협해야 하는데 적은 인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잘 안 된단다. 몇 년 전 절집 땅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절집에서 100만원을 희사 하면서 절집 목수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방을 한 칸 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서먹서먹하게 되었다고 했단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이 손을 내밀면 언제나 절집은 가까이 있다.

"점촌발 가은행 버스가 마을에 들어오는데 버스비가 2800원 하는 차만 하루 21대가 들어옵니다. 1800원씩 하는 입석버스가 우리 마을에는 한 대도 배차가 되지 않아요. 아프면 병원비보다 차비가 비싸서 못 나갑니다. 다른 지역은 많이 다니는데 한 대도 안 보내주어 버스비가 부담이 되지요. 하루에 입석 10대만 보내달라고 진정서를 꾸며 봉암사 주지스님께 협조를 요청을 했지요. 스님이 승낙하여 봉암사 주지스님과 노인회장님 이름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아마도 봉암사가 앞장서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큰 절과 이웃하고 있어서 원북리 사람들은 적막한 삶도 두렵지 않은 것 아닐까. 수평을 완벽하게 유지해야 맑은 풍경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절집과 사하촌이 수평을 유지하며 내는 맑은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문경=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모집

조기유학생모집
초 · 중 · 고1,2학년(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 학교)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10매 · 입학신청서 1통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내신 80점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및유학생전용기숙사,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삼화불교대학 교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9월 28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일 주 문



승가원 캐릭터 이름 당선작 발표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은 9월 4일 승가원 캐릭터 이름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당선작은 엄경희씨가 응모한 '연꽃돌이'로 선정됐다.



'전통 禪사상' 미국 순회 강연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은 9월 14일 오후 6시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16일 오후 3시 로스앤젤레스 윌셔 호텔에서 '전통 선(禪)사상'을 주제로 강연한다.



'헌혈·장기기증 운동' 행사 개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9월 12일 안성 감로당에서 '제2차 사랑나눔 헌혈 · 장기기증 운동'을 개최한다.(031)898-1486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연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9월 19~20일 아산 한국증권연수원에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연수를 실시한다.



東大 경주캠퍼스 정기법회 참석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9월 1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법당에서 열리는 정기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



'바닷가 불광사 작은 음악회' 개최
제주 불광사 주지 지범 스님은 9월 3일 경내에서 거제도불교연합합창단과 테너 정성진 교수 등을 초청해 '바닷가 불광사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찰음식연구원 상량식 봉행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선재 스님은 9월 1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서 연구원 상량식을 봉행했다. 연구원은 오는 10월 말 준공된다. (031)243-2286



대불련 총동문대회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전보삼 회장은 9월 8~9일 부산 범어사 보제루에서 제5회 대불련 총동문대회를 개최하고 수계식과 전진대회를 봉행했다.

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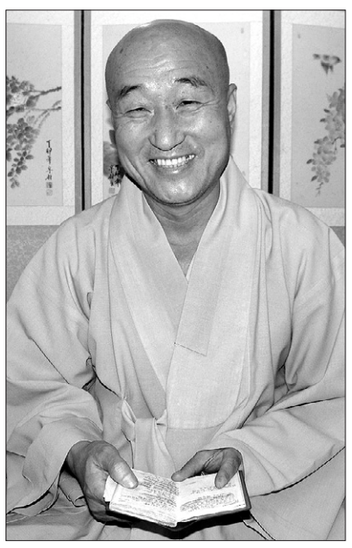
불교방송 ▲팀장급 이상 전보 ▲편성제작국 국장직무대리 황용관(前 편성제작국 교양제작팀장) ▲보도국 해설위원 선상신(前 보도국장 겸 경영기획실장) ▲편성제작국 제작위원 김상준(前 편성제작국장 직무대리) ▲편성제작국 교양제작팀장 한지윤(前 편성제작국 교양제작팀원) ▲기술영상국 뉴미디어팀장 신창현(前 전략사업추진본부 사업팀원) ▲부서 이동 ▲총무국 광고팀 박상필(前 전략사업추진본부 사업팀장) ▲전략사업추진본부 사업팀 김형만(前 기술영상국 뉴미디어팀장) ▲보도국 사회문화팀 김봉래(전 보도국 정치외교팀) ▲보도국 정치외교팀 김태현(前 보도국 사회문화팀)

"포교활동의 보람과 감동 담았어요"

군·복지·청소년 포교 체험담 엮은 '행복한 빈손' 출간한 일면 스님

"뇌세포 속에 넣어둔 인연들은 껍질을 벗겨내고, 가슴속에 넣어둔 인연들은 포장을 풀어 글로 써 봤습니다. 이번 책은 그동안 군종교구 회보나 여러 매체에 기고한 내용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전부 모아보니 400페이지 분량이 넘더군요. 그래서 취재원들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드러내기 곤란한 부분은 추렸습니다."

군종특별교구장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는 일면 스님(사진)이 그동안 군포교와 복지포교, 또 청소년포교에 몸담으면서 느낀 단상과 체험을 엮은 <행복한 빈손> (아름다운 인연 펴냄)을 출간했다.



책은 크게 '나눔마당' '군불교 도량' '맑고 향기로운 세상' '미래의 희망, 청소년' '마음자리에 내리는 꽃비' '행복한 동행' 등 총 6장으로 돼 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마음자리를 주로 강조했다고 한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성나게 한다고 일일이 다 그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아마 성냄과 짜증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짜증과 성냄을 참아, 오히려 상대방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풀어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포교도 이런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일면 스님은 미처 이번 책에서 담지 못한 가슴 뭉클한 사연도 몇 개 소개했다.

"한 번은 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진 부모에게 장기기증을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증을 하면 적어도 8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설득을 했지요. 부모들은 아들을 두 번 죽일 수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그 부모들은 장기 기증을 했고 이후 불자로 개종해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설명은 이어졌다.

"전방 부대의 특전사령관 한 분이 어느날 찾아와 부인이 죽었다며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에요. 당연히 불자라는 생각으로 종교를 물었더니 뜻밖에도 육사생도시절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죄스러워 개종을 못하고 있지만 불교가 너무 좋아 다음 세상에서는 불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령관 부인의 49재를 법당에서 지내줬더니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책 안에도 이렇게 포교 현장에서 느꼈던 보람과 소회, 감동을 적은 60여편의 글들이 가득하다.

스님은 앞으로 군종교구에 산적한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우선 10월 15일까지 수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해 타종단 군법사 파송문제에 대한 종단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논산훈련소 법당 증축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10년이 되면 전국의 사단급 훈련소가 논산훈련소로 흡수 통합됩니다. 그러면 논산훈련소는 대표적인 군포교의 황금어장으로 떠오르게 되지요. 이에 개신교는 논산훈련소에 대규모 교회를 건립한 상태고, 천주교도 평화방송을 통해 성당 증축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법당은 2000여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며 그마저도 겨울에는 추워서 법회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불자들도 이런 심각성을 감안해 하루 빨리 불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당 신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군포교의 성공여부는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에 달려 있다는 일면 스님은 최전방 오지부대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군 장병이 수계를 받는다면 계속 찾아가 독려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불교정책기획단 발전기금 전달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사진)은 9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불교정책기획단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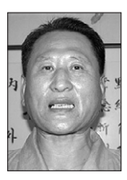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조계종 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인 총무원 기획실장 승원 스님과 사서실장 심경 스님, 구자선 중앙신도회 고문, 손안식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정책기획단이 올바른 불교정책을 생산해 제안함으로써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봉사와 회향의 삶 살고 싶어"

'백팔회' 홍민근 회장



"불교대학에서 공부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9월 2일 성남시 성남동 선관무에서 前 법상종 총무원장 우담 스님, 동국대 신성현 교수, 한유진 이봄결혼정보 회장 등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팔회 창립 기념법회를 개최한 홍민근(前 강원랜드 경영관리 지배인 · 사진) 회장.

홍 회장은 "동산불교대, 능인선원불교대, 한국법사대에서 공부한 도반들과 함께 봉사하며 사회에 회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회원은 소수정예로108명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백팔회는 거리에서 목탁을 치며 불교를 알리는 방법도 모색할 정도로 적극적인 포교방법도 모색 중"이라며 "이를 위해 매월 1회 스님과 불교대학 교수의 법문 및 강연, 선무도, 명상, 요가, 다도, 민요, 예불, 독경, 염불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또 "매월 1회 자원봉사활동, 불자 시달림 봉사, 소년소녀가장 돕기 자선공연, 성지순례 등의 행사를 열 계획"이라며 "백팔회에 관심 있는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031)757-3121

김원우 기자

원융종 '국민통일염원 수륙 대법회'



(사)대한불교 원융종(총무원장 성관)은 9월 3일 충주시 중앙탑공원에서 종정 일공 스님을 비롯 종단 임원진 및 종도 8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국민통일염원 수륙 대법회'를 봉행했다. 종사 이운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수륙천도 의식은 물론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최고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낭독되었다. 종정 일공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진정한 방생은 모든 생명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곧 부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02)853-0531

영등포 보현의집 법당 개소식



서울시립노숙인복지시설인 영등포 보현의집(원장 지거)이 8월 30일 법당 개소식을 봉행했다. 30일 열린 개소식에는 이문태 보현의집 운영위원장과 탤런트 사미자씨, 이명박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호국충용사, 장병 수계식 봉행



음성 호국충용사는 9월 2일 불자 훈련장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관음종 총무원 부원장 법명 스님과 옥천사암연합회장 혜철 스님, 지허 스님을 삼증사로 수계식을 봉행했다.

생명나눔,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9월 6일 오전 11시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등록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했다. 원범 스님은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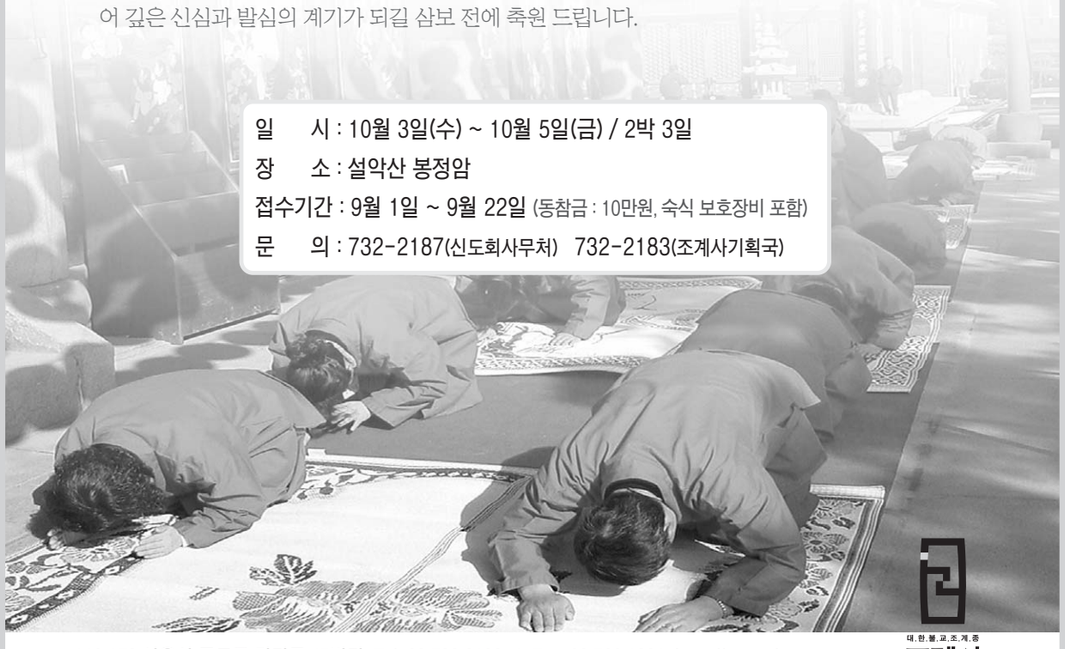
봉 행

조계사 창건 97주년 맞이

봉정암 십보일배 고행정진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는 창건 97주년을 맞아 '봉정암 십보일배 고행정진'을 봉행합니다. 설악산 영시암에서 적멸보궁이 모셔져 있는 봉정암까지 '십보일배 고행정진'에 동참하시어 깊은 신심과 발심의 계기가 되길 삼보 전에 축원 드립니다.

일 시 : 10월 3일(수) ~ 10월 5일(금) / 2박 3일
장 소 : 설악산 봉정암
접수기간 : 9월 1일 ~ 9월 22일 (동참금 : 10만원, 숙식 보호장비 포함)
문 의 : 732-2187(신도회사무처) 732-2183(조계사기획국)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범어사 승가대학

편입(복학)생 모집공고

편입(복학)생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치문(33기 사미수계자 가능) · 사집 · 사교 ○○명
모집기간 (양) 9월 21일(금) ~ 10월 5일(금)
면접일시 10월 7일 오전 9시
제출서류
1) 입방지원서 및 서약서(강원 소정양식) · · · · · · · · · · · · · · · · 각 2부
2) 은사스님 추천서 · 2부
3) 건강진단서 · 2부
4) 승려증(행자교육필증, 수계증명서) · · · · · · · · · · · · · · · · 사본 2부
5) 사진(오조가사나 만의복장, 2×3 규격) · · · · · · · · · · · · · · · · 4장
준 비 물 대가사(비구), 만의(사미), 장삼, 발우
전 형 서류심사, 면접
문 의 처 강 원 051)508-3127 종무소 051)508-3122~5

禪刹大本山 梵魚寺 僧伽大學
學長 定慧 至晤 · 運營委員長 西林 大成

BBS 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따질 수 없는 경지”

유홍준 문화재청장, 봉은사서 ‘판전’ 특강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9월 6일 서울 봉은사에서 ‘추사, 그리고 판전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강의 후 유 청장은 판전으로 자리를 옮겨 추사의 글씨 ‘판전’의 아름다움을 설명했다.

“판전(板殿)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추사의 말년 명품 글씨들을 잉태시킨 탯자리 봉은사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서 <완당평전>에서 ‘세상에는 추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고 했던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9월 6일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에서 ‘추사, 그리고 판전 이야기’를 주제로 공개 특강을 열었다.

봉은사 경판전의 ‘판전’ 편액은 추사 김정희(1786~1856)의 마지막 글씨로, 추사는 이 글씨를 쓰고 3일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봉은사 김정희서 판전 현판’은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돼 있다.

최근 출간된 한승원의 소설 <추사>에서도 그려져 있듯, 말년의 추사는 봉은사에 기거하며 명작들을 잉태해냈다. ‘판전’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6일 봉은사 보우당에는 오전 8시라는 이른 시각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불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또한 이날 오전 7시 모임을 가진 봉은사 공식자문기구 ‘봉은사와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산사나무 아래서’ 회원들과 주지 명진 스님도 자리를 함께 해 강의를 경청했다.<박스기사 참조>

유 청장은 “단군 이래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가를 꼽으라면 추사의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추사의 일생에 있어 봉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추사의 작품 세계에서 ‘판전’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야말로 확고부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봉은사와 판전 그리고 추사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넓지 않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 짙게 묻어났다. 유 청장은 추사와 봉은사의 인연을 얘기하기에 앞서 우선 추사의 생애를 살폈다.

추사는 당대의 명문 세도가 경주 김씨 월성위(영조의 사위)의 증손으로 태어났다. 약관 24세에 동지부사로 떠나는 아버지 김노경의 자제군관(子弟軍官) 자격으로 연경(오늘날 북경)에 가서 당시 청나라 학예계의 석학이었던 완원(阮元), 옹방강(翁方綱)과 학연을 맺으며 이후 금석학과 경학 그리고 시문과 서예에서 그 명성을 국제적으로 드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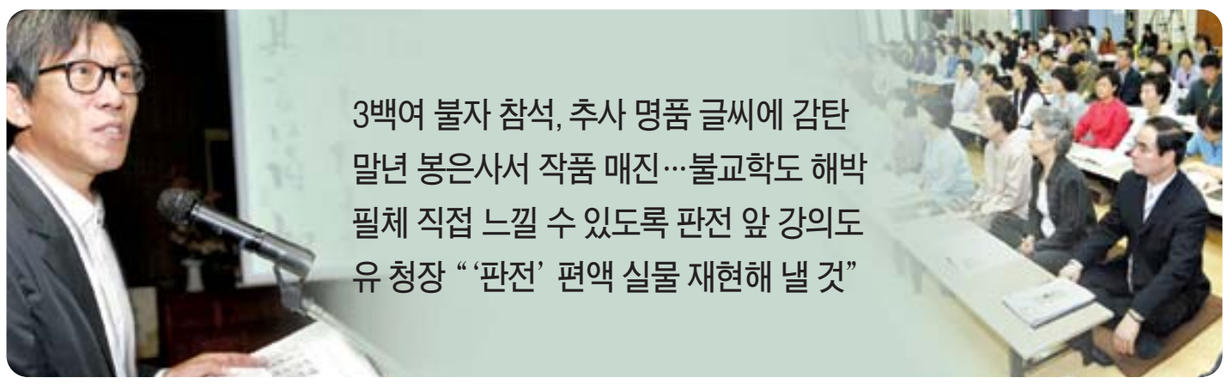
하지만 정쟁으로 인해 제주도에서 9년간의 귀양살이를 해야 했다. 유배지에서 비참한 노년을 보내야 했던 추사는 그 아픔의 세월을 오히려 자신의 학문과 예술을 무르익는 계기로 삼아 ‘추사체는 제주도 귀양살이 이후에 완성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63세 되던 해 겨울에 마침내 귀양살이를 청산했으나 다시 정쟁이 일어나 함경도 북청에 유배되어 1년간 귀양살이를 하게 된다. 유배에서 풀려난 늙고, 병든 추사는 67세부터 과천의 과지초당에 머물며 여생을 마무리했다.

“추사 예술의 최고봉은 그의 생애 마지막 4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시기를 <완당평전>에서 ‘과지초당과 봉은사를 오가며’라는 부제로 서술했습니다. 당시 추사는 봉은사에 별실을 마련해 머물며 옛날 못지않은 열정으로 학문과 예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유장하게 펼쳐갑니다.”

유 청장은 “생의 마지막 4년간 추사의 예술은 더욱 높은 경지에 올라, 굳이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명작을 낳는다는 입신(入神)의 경지, 잘 썼는지 못 썼는지조차 따질 수 없는 불계공졸(不計工拙)의 경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추사는 벗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장시간 쓴 병풍 글씨와 대련 작품이 쌓인 것을 보니 크고 작은 것이 수백 폭이었고, 또 편액(扁額)이 그만큼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봉은사에서 작품 활동에 매진했음을 알 수 있다.



3백여 불자 참석, 추사 명품 글씨에 감탄
말년 봉은사서 작품 매진…불교학도 해박
필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판전 앞 강의도
유 청장 “‘판전’ 편액 실물 재현해 낼 것”

“뭇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어 지금도 상찬해 마지않는 추사의 과천시절 작품들이란 실상 봉은사에서 쓴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추사는 봉은사에 별실을 마련하고 상주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말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추사가 작품만을 위해 봉은사에 온 것은 아니라고 유 청장은 강조했다.

“‘해동의 유마거사’라는 평을 받고 있는 추사는 학(學)으로서의 불교학, 선학의 대가였을 뿐 아니라 진정한 재가불자였습니다. 추사는 영기스님이 편찬한 <화엄경 수소 연의본> 경판을 보관할 현판 글씨를 직접 썼습니다. 더욱이 각별한 애정이 있었는지 다른 현판 글씨 두 배는 되는 대자(大字)로 글자 하나 크기가 어린애 몸통만 했습니다. 현판 이름은 평범한 경판전이 아니라 ‘판전’이라고 줄여 그 의미의 함축성을 응집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은사의 유명한 ‘판전’입니다.”

추사는 현판 왼쪽에 낙관하기를 ‘칠십일과 병중작(七十一果 病中作)’이라고 해서 ‘71세 된 과천 사람이 병중에 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판전’은 우리나라의 서성(書聖) 추사 김정희의 절필(絶筆)이자, 수많은 추사의 작품 중 추사체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다.

“판전의 글씨를 보면 마치 어린애 글씨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본래 어린애의 글씨는 아무 꾸밈없는 그저 천진한 것인데, 추사가 추구한 이 천진무구함이란 ‘단련된 천진성’이라는데 중요한 미덕이 있습니다. 추사는 ‘나는 70평생 벼루 10개를 밑창 냈고 붓 일천 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천연스럽게 나온 것이 추사체의 내공이고 ‘판전’ 글씨의 미학인 것입니다.”

1시간 30여 분 동안 강의를 진행한 유 청장은 이번엔 참석자들과 함께 봉은사 판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진자료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추사의 필체를 직접 감상하기 위해서다.

가을비가 흩날리는 가운데 판전 앞에 선 유 청장은 “유최진은 <초산잡저>에서 ‘글씨의 묘(妙)를 참으로 깨달은 서예가란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법’이라고 했고, 청나라 서예이론가 양헌은 <평서결>에서 ‘진정한 입고출신(入古出新)의 개성적인 글씨,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서예가는 오직 완당 김정희 뿐이다’라고 했는데 ‘판전’ 글씨를 보면 이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청장은 “문화재청장으로서 ‘판전’ 편액을 실물과 똑같이 재현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의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추사의 글씨는 가을비 속에서도 여전히 그 ‘당당한 천진성’을 간직한 채 판전을 지키고 있었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강의 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오른쪽)과 판전으로 이동하고 있는 유홍준 청장.



9월 6일 열린 산사모임 회의 모습.

봉은사 공식자문기구 ‘산사나무 아래서’는

봉은사의 공식자문기구인 봉은사와 세상을 생각하는 모임 ‘산사나무 아래서’는 지난 5월 결성됐다.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인 손석춘(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 원장) 이화영(자비신행회 상임이사)씨를 비롯해 정치, 언론,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인사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산사모임은 매월 한 차례 봉은사에서 회의를 열고 봉은사의 역할과 발전방향, 불교의 사회적 역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산사모임 회원들은 다음 달 초 문경 봉암사에서 산사체험을 할 예정이며, 사찰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 법회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 법문!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선가귀감 서울 법회 장소가
10월 7일 일요일 법회부터 사당에서 도봉으로 바뀝니다.
지하철 도봉산역 하차 – 도봉산 등산로 입구쪽 출구
대로 건너편 부흥교회 첨탑이 있는 건물 2층

2007년 10월 7일(일) : 서울 도봉 선원 선가귀감 법회
2007년 10월 21일(일) : 광주 선원 선문염송 법회
2007년 10월 28일(일) : 부산 선원 반야심경 법회

☎ 02-3494-0122 / 3494-2460 www.zenparadise.com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②
(修習止觀坐禪法要)

序說 2

중생의 심성은 본래 그 자체가 청정하고 스스로가 지혜광명이다. 〈능엄경〉에서는 이를 두고 "중생의 근본마음 자리는 상주불변한 진실한 마음이고, 본성이 청정한 지혜광명 그 자체이다 (상주진심 성정명체 常住眞心 性淨明體)"라고 말하고 있다.

중생의 마음을 두고 이미 진실한 마음이라고 했다면 그 마음의 자성은 청정하고 그 자성은 지혜광명일 뿐이므로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청정한 법계이며 커다란 광명을 간직한 상태이다.

이처럼 중생의 근본마음은 본래 청정한 천진불인데 무엇 때문에 인위적인 지관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止 수행처가 바로 觀 수행처

즉지즉관의 오묘한 법

대체로 모든 중생들은 무시이래로 최초일념이 무명불각(無明不覺)으로 일어나 그 무명번뇌가 다시 청정한 마음을 가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초 일념무명이 중생들을 끝없는 생사의 세계로 유전시키는 원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의 본래 밝았던 마음이 번뇌의 어두움으로 전환되고, 본래 고요했던 심성이 시끄러운 생사요동으로 뒤바뀌었다. 중생의 자체 마음은 근원적으로 영명하고 그 지혜는 법계의 이치를 철저하게 관조했건만, 무명망상 때문에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어둠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본래 불생불멸했던 마음이 끝없이 생멸을 반복하는 망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생들은 본래 청정했던 마음을 등진 채 매일같이 오욕육진의 대상세계를 추구하면서 시끄럽게 요동하는 망상을 본래 마음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마치 도적을 자기 자식으로 착각하는 경우와 같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명번뇌로 껌껌할 때가 바로 그 근본은 원래 지혜광명이며, 생멸로 시끄럽게 요동할 때가 본래적으로 적정한 이치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근본마음자리는 본래 망상으로 요동하는 모습이 아니며, 지혜광명과 번뇌의 어두움이 상대적인 따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파도와 물이 그 자체의 모습에선 따로의 차별상이 아닌 것과도 같다.

가령 중생이 지관법문을 실천하고 수행한다면 어두운 모습으로 생멸 요동하는 마음을 전환하여 지혜광명으로 본래 고요한 불생불멸의 마음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다. 즉 '지' 수행을 통해서 생사를 정지하여 열반을 이룰 수 있고 '관' 수행을 의지해서 생사의 모습인 번뇌를 타파하여 무상정등각을 성취할 수 있다.

'지관'은 약과 같고 갖가지 탐진치 등의 번뇌와 끝없이 유전하는 생사는 모두가 병이다. 그렇다면 '지'라는 약으로 생사의 병을 치료하고 '관'이라는 약으로 번뇌의 병을 다스려야만 한다. 따라서 '지관'이라는 약은 복용할 수록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그러므로 지관수행을 부지런히 행하면 생사번뇌의 모든 병을 거뜬히 치료할 수 있다.

우리의 자성엔 번뇌가 본래 없고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가 없음으로 역시 생사고의 결과도 없다. 그 자리는 미혹과 깨달음이라는 차별상이 본래 공적하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점차의 모양도 허깨비처럼 실재하질 않는다. 마치 마니보배에 모든 색깔이 비추기는 하나 그 자체엔 그들 색깔 모두가 본래 없는 것과도 같다. 단지 중생들은 광겁이래로 진흙탕 속에 오염되고 육진경계에 집착하여 본래 있던 청정한 광명이 실제론 가리움 없이 가리움이 있게 되었다.

삼종차별을 이야기했지만 중도지관일 뿐 좌선법요통해 삼종지관으로 방편 삼아야

그러므로 지금 마니보배의 광명을 환하게 드러나게 하려면 문지르고 세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진흙 속에 가려진 마니광명의 본래 모습이 스스로 나타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기는 하나 마니의 청정한 광명은 본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세탁을 통해서 없던 것을 새삼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위적인 세척을 의지해서 제 모습이 드러날 뿐이다. 이것이 지관수행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 반드시 알아야할 것은 본성과 수행의 상호관계인데, 수행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본성을 떠난 따로의 수행이 아니고 전체의 본성에서 일으키는 수행이며, 본성이라고 하나 그 본성은 수행을 떠난 따로의 본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수행을 의지해서 본래 있던 성품이 드러나므로 전체의 성품에서 수행을 일으키는 전성기수(全性起修), 전체의 수행에서 본성이 나타나는 전수현성(全修顯性)이어서 본성과 수행이 둘이 아닌 성수불이(性修不二)를 두고 지관을 치우침 없이 원만하게 수행하는 원수지관(圓修止觀)이라고 한다.

'지관'의 이치는 범부와 성인 모두에게 하나로 통하고 그 의미는 대소승을 함께 아우른다. 가령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라(諸惡莫作)' 하는 것은 '지'수행에 해당하고 '뭇 선업을 적극 실천하라(衆善奉行)' 함은 바로 '관'수행에 포섭된다. 또 십악업(十惡業)을 행하지 않는 것은 '지'며, 동시에 십선업(十善業)을 일으키는 것은 '관'이다. 이처럼 '지관'은 인천지관(人天止觀)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승지관(小乘止觀)도 있지만 지관의 이치를 원만하게 밝힌다면 대승 삼지삼관(三止三觀)을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진여를 체득하여 망상을 쉬는 체진지공관(體眞止空觀)인데 이는 일체법은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아 그 실체가 없다고 관찰하는 것으로, 이는 소극적으로 세간을 벗어나는 수행법이다. 〈금강경〉에서 말한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과 〈반야심경〉에 나오는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이 그 예이다.

두 번째는 방편수연지가관(方便隨緣止假觀)인데 이는 방편이 그 자체 모습이고 방편으로 인연을 따르는 것이 그 작용이다. 공관(空觀)을 통해서 비록 일체법이 그 자체는 공이라고 관찰하나 그 공에 따로 머물지 않고 다시 인연을 따라 집착 없는 마음으로 세간을 구제하면서 세간으로 회귀하는 적극적인 수행방법이다. 이는 〈반야심경〉에서 말한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이 그 예이다.

세 번째는 중도지관(中道止觀)을 설명한다면 공(空)과 가(假) 이 둘을 분별하는 마음을 쉬는 식이변분별지(息二邊分別止)와 공과 가가 원만한 중도라고 관찰하는 중도제일의제관(中道第一義諦觀)이다. 이 지관이 지관수행에서 그 극치를 이룬다.

중도지관은 진속이제가 하나의 이치로 융통하고 주관 객관이 두 모습이 아니다. 집착 없는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고 공과 유가 둘이 아니며, 고요와 관조가 하나의 자체이고 세간과 출세간이 일심의 이치일 뿐이다.

비록 종일 중생을 제도한다 해도 제도할 만한 실제 중생이 없고 종일 설법한다 해도 끝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으며, '지' 수행처가 바로 '관' 수행처여서 지에 상즉한 관이고 관에 상즉한 즉지즉관(卽止卽觀)의 오묘한 지관이다.

그런데도 삼종지관을 이처럼 차례로 말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려함 때문이지 실제로 일즉삼(一卽三), 삼즉일(三卽一)이어서 비일비삼(非一非三)이며 삼이일(三而一)인 원융한 중도지관일 뿐이므로 실제론 삼종차별이 없게 된다.

그러나 지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초보지관이므로 반드시 좌선법요(坐禪法要)의 차례를 삼종지관의 방편으로 밝혀야만 한다.

따라서 본서는 열 종류의 의미로써 지관수행의 점차를 밝히고 있다.

제1 구연(具緣)에서는 지관수행을 하려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고,

제2 가욕(呵欲)에서는 오욕(五欲)에 대한 집착을 꾸짖었고, 제3 기개(棄蓋)에선 오개(五蓋) 번뇌를 물리치라 하였으며, 제4 조화(調和)에선 몸과 마음을 조화하라 하였고, 제5 방편(方便)에선 방편보조수행을 닦으라 했고, 제6 정수지관(正修止觀)에선 지관을 올바르게 수행하라 하였는데 이처럼 방편과 근본수행이 완성되면 삼지삼관을 원융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지관법문은 최초 발심한 자가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법문이다. 때문에 제목을 '修習止觀坐禪法要'라고 하였다.

■중앙승가대 교수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업론(業論)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업(業)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보(業報), 자업자득(自業自得), 인과응보(因果應報) 또는 전생과 관련지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업 사상은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단어이며 우리의 의식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업이라고 할까요.

업이란 한마디로 하는 일, 행위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작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모든 행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몸과 말과 뜻의 세 가지로 활동을 하는데 이 행위를 신구의 삼업(身口意 三業)이라고 합니다. 첫째 육체로 짓는 행위(身業), 둘째 언어로 짓는 행위(口業), 셋째 마음으로 조작하는 행위(意業)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서로가 따로의 개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다시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상호 동시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에서 의지적인 사려가 발동하면 그 뒤

육체·언어·마음으로 짓는 三業은 따로의 개체아닌 상호 동시적 관계

에 그 사려에 걸 맞는 언어와 행동이 일어나 그 의지적인 사려를 현실로 실현함으로써 이 세 가지 행위가 공동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사업을 성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업을 일으키는 본체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지적인 행위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법을 수반하게 됩니다.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세 가지 행위는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순간순간 창조해 나가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지배하기도 합니다.

모든 세간의 괴로움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이 같은 세 가지 행위를 그 유형 성질에 따라서 상호관계성과 그 성질과 인과성과 시간성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표 참조)

업의 분류

(1) 상호관계성으로서의 업
불공업(不共業)/공업(共業)
(2) 성질적인 업
선성업(善性業)/악성업(惡性業)/무기업(無記業)
(3) 인과관계로서의 업
복업(福業)/비복업(非福業)/부동업(不動業)
(4)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업
현수업(現受業)/생수업(生受業)/후수업(後受業)

■정리=張如舟



주말마다 가까이서
부처님 만나는 기쁨!

현직 불교대학 교수들이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현대불교의 세계적 흐름까지 불교 전체에 대한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수행자 스님들의 수행법과 살아있는 생활법문이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향기롭게 합니다.

정각원 토요법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9월 15일부터)
■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대상 : 일반인 및 동국가족

※ 개원법회 : 2007. 9.15(토) 09:30 ~
초빙법사 – 월운 큰스님(동국대 역경원장)

■ 법회 및 강연 일정

월	일	주 제	강·법사	비 고
9	15(토)	개원법회	월운 큰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22(토)	부처님의 이해 I – 불교와 인도	법산 스님	불교대학원 원장
	29(토)	부처님의 이해 II – 탄생과 의미	정병조	문과대학 교수
10	6(토)	기도·생활법회	혜거 스님	금강선원장
	13(토)	부처님의 이해 III – 출가와 수행	해주 스님	불교대학 교수
	20(토)	부처님의 이해 IV – 깨달음과 내용	정승석	불교대학 부학장
	27(토)	부처님의 이해 V – 교화와 열반	계환 스님	불교대학 교수
11	3(토)	성지 순례 – 불교 문화유적 답사	김창균	예술대학 교수
	10(토)	불교의 수행 I – 간경과 독송	김호성	불교대학 교수
	17(토)	불교의 수행 II – 불교와 수행	성본 스님	불교문화대학 교수
	24(토)	불교의 수행 III – 수행의 구조	혜원 스님	불교대학 교수
12	1(토)	기도·생활법회	진옥 스님	석천사 주지
	8(토)	불교의 수행 IV – 염불수행	보광 스님	불교대학 교수
	15(토)	불교의 수행 V – 선 수행	법산 스님	불교대학원 원장
	22(토)	불교문화 – 불교와 한국 전통문화	김상현	문과대학 교수
	29(토)	세계 속의 불교 – 현대 세계불교	김용표	불교대학 교수
2008. 1	5(토)	기도·생활법회	정락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12(토)	초기불교의 이해 I – 초기불교와 교단	안양규	불교문화대학 교수
	19(토)	초기불교의 이해 II – 경전 성립과 계율	신성현	불교대학 교수
	26(토)	초기불교의 이해 III – 주요 교설 1	김종욱	불교대학 교수
2	2(토)	초기불교의 이해 IV – 주요 교설 2	황순일	불교대학 교수
	16(토)	부파불교의 이해 I – 부파불교 교단	고영섭	불교대학 교수
	23(토)	부파불교의 이해 II – 부파불교 특징	우제선	불교대학 교수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T.02)2260-3016,3017 F.02)2260-3744 홈페이지 http://jeonggak.dongguk.edu 동국대학교 정각원

공 고

재단법인 한국불교 총화종 유지재단 법인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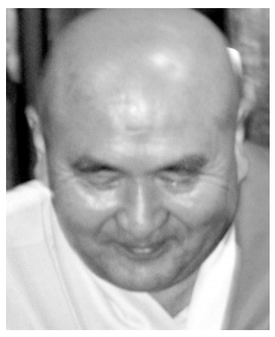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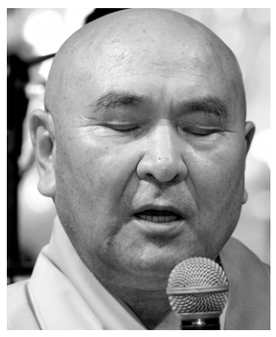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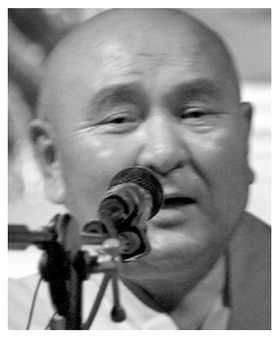
한국불교 총화종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종지종풍을 함양하여 불교 중흥과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로 부터 2007년 8월 27일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 목적사업 -

◎불교문화 홍포, 포교 교육사업
◎종단재산 보호관리 및 종보 출판물 간행사업
◎강원설립 및 교육(승가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연구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재)한국불교총화종유지재단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 031-592-8891

선지식을 찾아서

근일 스님 (부석사 조실)

자기만 깨친 것 소용없어 온 우주 내 몸으로 느껴야

서녘 하늘은 가을 단풍처럼 붉게 타오른다. 산과 산들이 어깨동무하고 금방이라도 안양루를 향해 달려올 것만 같다. 이런 풍광 속으로 어둠이 스며든다. 법고 소리는 애잔함을 남기면서 허공 속으로 사라진다. 완전한 어둠이 무량수전을 감싸고돈다. 이백 명이 넘는 대중들은 정렬하고서 근일 스님의 법문을 기다린다. 한달에 한 번 열리는 귀한 참선법회인만큼 멀리서 온 선객들이 많다.

근일 스님이 법상에 오르고 죽비소리와 함께 잠시 참선에 들었다. 온 우주가 선에 잠긴 듯 하다. 참선에 든 근일 스님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나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다. 여기에서는 일체의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셔터는 1초보다도 짧은 125분의 1초에 끊어졌지만 그 시간은 억겁의 시간만큼이나 길게 느껴진다. 근일 스님은 주장자를 들어 보이면서 할을 한다. 청천벽력 같이 내리치는 할에 다겁생래의 업이 녹아내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깜짝 놀랄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보배를 소중히 여기나/아 찰나적이로다/나는 잠깐만이라도 고요함을 귀하게 여기도다/많은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만/고요함은 진여의 성품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근일 스님은 방거사의 게송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법문을 열었다.

"방거사는 과거시험 보러 가다가 행각승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과거시험을 포기하고는 그 길로 석두 선사 회상에서 공부했어요. 방거사는 본래 부호인데 깨닫고 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를 서강에 갖다 버렸어요. 이것을 본 뱃사공이 '아까운 재물을 왜 버립니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니, 방거사는 '탐하지 않는 것이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수승하다' 고 대꾸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지 않는 것이 좌선보다 수승한 것이요, 성내지 않는 것이 계율보다 수승한 것이요, 생각 없는 것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보다 수승하다' 는 방거사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방거사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버리고서 평생을 무일푼으로 살았으며, 죽을 때도 생사를 초탈하여 여여한 모습을 보였기에 만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잘 자고 잘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까 하는 사람들, 그저 밥자루 똥자루나 키우면서 세상 보내는 것이지. 내가 병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소인배들은 반발하더구만. 병은 본디 없는데 사람들이 병을 만드는 것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면 벌써 염라대왕이 지금 부르는 소식이야. 60년도 잠깐인데 얼마나 남았다고 허송세월 합니까? 이 공부는 1주일만 해도 염라대왕이 함부로 못 잡아 갑니다."

근일 스님은 몇 년 전 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스님은 평소 화두를 깨치면 생사를 여읜다고 법문을 했는데 내가 병원신세를 진다면 대중을 속이는 일이라 생각하고 수술을 거부했다. 스님은 평소보다 더욱 정진에 매진했으며 오로지 뜸으로 자가치료를 했다. 무서우리 만큼 치열한 수행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스스로 치유해 버린 근일 스님으로 인해 대중들은 수행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나는 인생을 9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이 9단계를 알고 보면 묘용인데 모르면 불행이고 윤회를 면치 못합니다. 사람들은 성선설 성악설로 나누는데 깊이 들어가면 선악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것은 악이요, 이타적인 것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생사가 둘이 아니듯 선악도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선악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9등 인생이라. 우리는 모두 이렇게 9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마보이처럼 커서도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부모가 죽으면 사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령 구걸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8등 인생이라. 사업한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7등이라고 봅니다. 돈이 없으면 은행에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7등이라 생각합니다. 재물도 자기 능력껏 지녀야 탈이 없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받거나, 또 십일조를 받는 목사나 신부를 비롯하여 보시를 받는 스님들은 6등 인생입니다. 6등으로 떨어지면 불행합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밥 먹지 않는다는 백장 선사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나는 5등으로 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도 5등이라 하니 반발할 사람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시주하는 사람들은 4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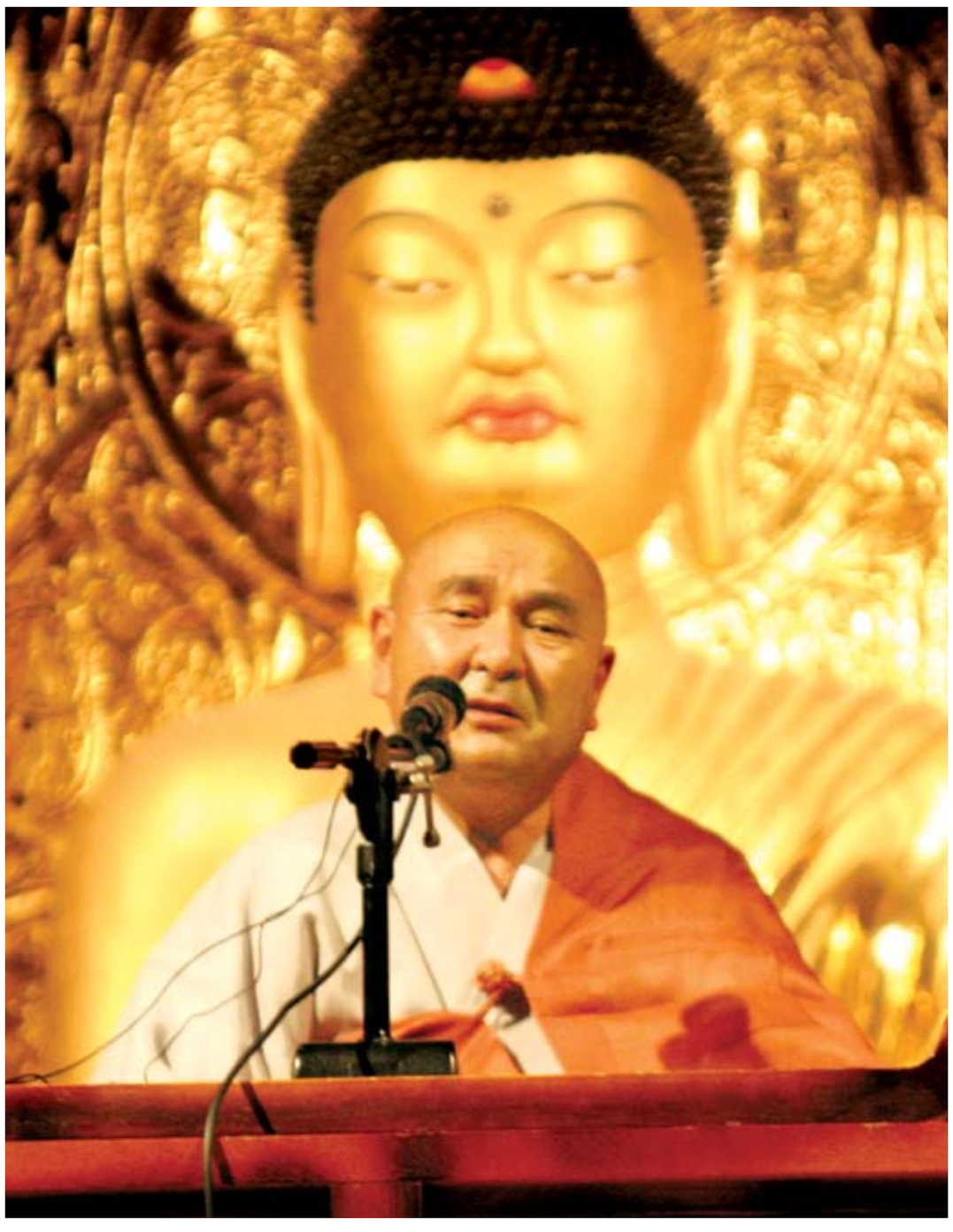
근일 스님은 절에 보시하는 사람들은 다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자기도 가난하면서 과일이나 곡식을 거두면 먼저 부처님 앞에 올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님이 묘각사에서 살 때 어떤 신도가 30리 길을 걸어오는데 무거운 쌀자루를 한 번도 땅에 놓지 않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때부터 시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았다. 결코 공짜가 아님을 깨달았기에 그때부터 법문이라도 해서 세상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어머니 마음이 3등이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그것에 대해 어떤 상도 내지 않고 어떤 것을 바라지도 않고 하듯이 무주상보시를 하는 것이 3등이여. 2등은 수행자인데 보살행을 닦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깨치고자 하면 좋아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악이며 살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도 나쁜 줄 몰라요. 무엇을 좋아하면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탐심이 생기고 탐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좋아하면 음행이요, 욕심내면 도적입니다. 1등은 깨친 사람을 말합니다. 도 닦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깨친 것은 소용없어요. 깨쳐 가지고 온 우주를 내 몸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보이는 것은 모두 나의 모습이요, 들리는 것은 다 내 목소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으로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비심입니다. 동체대비심으로 끌어안을 때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참회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재물도 자기 능력껏 지녀야 탈 없어
탐심 채워지지 않으면 화만 나게 돼
너 · 나 구분없는 동체대비심으로
끌어 안을 때 진정한 평화 이뤄져

자신이 몇 등 인생을 살고 있는지 헤아려보는 것조차 겁이 난다. 근일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그제야 풀벌레소리가 들린다. 무량수전의 대중들만 법문을 듣고 환희심에 젖은 것이 아니라 풀벌레들 또한 오랫동안의 숙업을 벗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무량수전 앞마당에 내려앉은 달빛은 교교하고, 대중들은 또 다시 참선에 들었다. 저 달빛과 함께 온 밤을 정진으로 보내려는 그들을 뒤로하고 안양루 계단을 내려왔다.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방을 물도 녹이기 힘든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지" 라는 스님의 말씀이 자꾸 뒤돌아보게 만든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서 밝고 훤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수월 스님(3)

수월, 저것이 무엇인가?

청담, 돌멩이입니다

수월, (괭이로 돌멩이를 홱 쳐낸다)

1년 동안 만주 왕청의 토굴에서 수월(水月, 1855~1928) 스님을 모시고 정진하던 청담(靑潭, 1902~1911) 스님이 주먹밥과 짚신을 받아들고 수월 스님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다.

그러자 수월 스님은 갑자기 청담에게 곳간에 가서 괭이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괭이를 가져오자 수월 스님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마당에 박혀 있는 돌멩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었다.

"저게 무엇인가?"

"돌멩이입니다."

청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월 스님은 괭이를 빼앗아 들더니 돌멩이를 홱 쳐내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들판으로 나갔다.

청담 스님은 수월 스님에게서 받은 이 공안을 일생 동안 화두로 삼아 공부했다고 한다. 이 공안은 수월 스님이 청담에게 준 가르침이기에 앞서, 당신이 세상에 내어 보인 마지막 법문이었다. 그로부터 한 해가 못 되어 수월 스님은 열반에 들었던 것이다.

젊은 시절, 청담 스님은 수월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만주 땅으로 구도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당시 수월 스님은 보림공부의 일환으로 짚신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보살행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신발이 떨어지면 수월 스님을 찾아가 짚신을 얻곤 했다. 스님은 농부나 독립군은 물론, 도둑이나 산적 등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짚신을 나눠준 까닭이다.

당시, 만주의 마을에서 기르던 '만주개'는 몹시 사나웠다.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서면 떼로 달려들어 물어 죽일 정도였다. 그래서 밤길을 다니는 것은 금기였다. 하지만 수월 스님은 예외였다. 그가 나타나면 개 수십 마리가 무릎을 꿇고 반겼다. 까치, 꿩, 노루, 토끼 같은 산짐승, 날짐승도 모여들어 스님에게 응석을 부리는 듯 했다.

하루는 이런 광경을 본 청담 스님이 짐승들이 자기를 보고 도망가는 이유를 묻자, 수월 스님이 말했다.

"자네에게 아직 살생심이 남아 있어 그러는 것일세."

"스님, 어찌하면 살생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자비심을 기르게나."

"어찌 하면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까?"

"자네와 (짐승이)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이후 청담 스님은 누가 욕을 해도 미소를 짓는 자비 · 인욕(忍辱)공부를 하여 '인욕보살'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정을 역임하면서도 늘 하심할 수 있었던 것은 수월 스님의 감화 때문이었으리라.

청담은 돌멩이를 대상으로만 판단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

위의 공안에서 수월 스님은 청담에게 "돌멩이를 돌멩이라 부르지 말고 일러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청담은 그 질문이 공안인 줄 모르고 무심코 돌멩이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수월 스님은 돌멩이를 캐내어 던져버린다.

청담은 돌멩이를 마음으로 볼 줄 모르고 대상으로만 본 탓에 돌멩이란 말과 개념에 갇혀버린 셈이다.

수월 스님은 언어와 생각의 틀을 송두리 때 뽑아 던져버리는 대기대용(大機大用)으로써, 먼 길 떠나는 젊음 수좌를 위해 마지막 공부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노스님의 간절한 가르침 덕분에 청담은 도(道)와 덕(德)을 갖춘 당대의 고승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김성우 객원기자

몸과 마음을 낮춰 성불의 길로…

3년간 삼천배정진 이어온 익산 사자암 신도들

9월 2일 새벽, 장마 비를 뚫고 달려간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 우뚝 선 미륵산(430.2m)은 미륵사지를 품은 익산의 진산(鎭山)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포장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간이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우고, 가파른 돌길 오르막을 20여 분 굽이굽이 돌아 오르니 사자암이 나타난다.



3년간의 삼천배정진을 회향하며 도법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삼천배정진회원들.

사자암은 백제 무왕(재위 600~641년)의 불심이 서린 유서 깊은 절. <삼국유사>에는 "백제 무왕과 선화 왕비가 사자사로 행차하던 중 용화산 아래 연못에서 미륵삼존불이 출현하여 그 인연으로 미륵사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불자들의 신심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은 3년 동안 매월 초파일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해 온 삼천배 정진법회의 회향날. 3000배를 밥 먹듯이 해온 신도들에게 변덕스런 날씨는 오히려 법회를 반기는 감로수처럼 느껴질 만도 했다.

삼귀의, 보현행원가 및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된 기념법회는 '삼천배정진회' 회원 50명을 이끌어 온 대원경 회장에 대한 기념패 수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의식 사자암 신도회장은 "삼천배정진회는 기독교세가 유난히 센 익산에서 용멩정진으로 불심의 불꽃을 지폈다"며 "기도비 전액으로 결식아동 5명의 중식을 제공하고 백혈병에 걸린 학생을 돕는 등 보살행의 귀감까지 보였다"고 찬탄했다.

이어 삼천배정진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은 "삼천배정진을 3년간이나 이어 온 것은 탑을 세우고 절을 짓는 불사나 물질적 보시 보다 훨씬 수승한 공덕을 지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바르고 당당하게 생활 속의 수행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를 축하하기 위해 하루 전, 강원도 영동에서 탁발순례 중에 급히 참석한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은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인연 공덕을 찬탄하며 이렇게 법문했다.

"2004년부터 탁발순례를 시작해 얻어먹고 자면서 2만5000여 리를 걷다 보니 중생살이가 전도몽상(顚到夢想)의 삶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인생살이가 별게 아님을 알고부터 경전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도몽상을 깨달아 구경열반으로 가는 길에 연기법의 이치와 중도의 실천이 절실했습니다. 진리와 자기를 섬으로 삼아 정진하다 보면 세상에 법(法)아닌 게 없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와 너, 나와 자연, 나와 사회가 함께 잘 사는 동체대비의 깨달음으로 수행과 삶이 일치된 구도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평생 한 번 할까 말까한 삼천배를 매달, 그것도 3년간이나 이어 온 것은 보통 발심으론 어려운 수행이다. 대원경 보살을 따라 절하다가 어느새 절수행의 달인이 된 회원들은 저마다 가정의 화목과 행복, 그리고 건강을 보너스로 얻었으니, 절수행의 공덕과 가피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사자암이 익산불교의 중심이 된 것도 삼천배 정진이 큰 힘이 되었다.

삼천배 정진을 뒷받침하고, 올해 3월부터 토요시민선방을 개원하는 등 수행을 권장한 주지스님이 그동안 중단되었던 익산지역 봉축행사를 부활시키는 등 지역불교 활성화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또한 익산불교신도연합회와 전북포교사단 능인회, 마한거사림회 등 신행단체를 후원한 것도 큰 힘이 되었다.

이번 법회가 익산을 넘어 전북불교 중흥의 서막이 되리란 기대감을 안고 미륵산을 내려왔다. (063)836-8574

익산=김성우 객원기자

인·터·뷰

삼천배정진회 대원경 회장

10년간 절삼매에 흠뻑 분노·원망 절로 사라져…

"절할 때는 무아지경에서 절만 했어요. 절수행으로 미움, 원망,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져 날마다 행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삼천배정진회 대원경 심명숙(50 · 사진) 회장은 절수행의 숨은 고수다. 10년 전, 수행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던 중, 100만배 정진을 하던 임실 상해암의 동효 스님이 매일 500배를 해보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입문 동기다. 힘들게 10만배를 회향하니, 이번에는 실상사 화엄학림의 일초 스님이 "<화엄경> 공부와 100만배 중에서 선택하라"고 해서 100만배에 도전했다. 드디어 하루 5000배씩 1년만에 100만배를 회향했고, 그 뒤에는 하루 1만배를 할 정도로 달인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남편(덕산 황금용)과 함께 예불, 참선, 108배를 같이 해요. 남편과는 맞절로 삼배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절에 자주 가는 것을 싫어하던 남편이 몽중가피를 경험한 후 불교 공부에 흠뻑 빠졌고, 주말에는 부부가 불교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몸과 마음이 편해지니 얼굴이 환해지고, 늘 좋은 일만 생겨서 웃음이 그칠 날이 없다.

처음 절수행을 할 때는 육신이 고달펐지만, 한 고비 넘기니 환희심이 나고 병이 낫는 등 무수한 불 · 보살의 가피를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바깥출입도 끊어졌다. 그야말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절삼매에 빠져 산 세월이었다.

절수행을 통해 득력(得力)한 대원경 보살이 사자암에서 3000배를 하자 화엄행, 대덕화 보살 등 도반들이 같이 정진하자고 요청하면서 삼천배정진회가 결성됐다.

대원행 보살이 <108 대참회문>에 따라 정성껏 '지심귀명례'를 불러주기에 보현행(70) 보살과 같은 어르신들도 거뜬히 삼천배를 마칠 수 있었다. 여기에 주지스님이 보시금을 후원하는 등 적극 지원해 결식아동 후원, 천마부대 · 하사관학교 대중공양 등 보살행도 병행했다.

대원행 보살은 "이제는 '절하는 놈은 누구인가?' 하고 참구하면서 수행한다"면서, 업장이 두터운 불자들은 절수행을 통해 참회와 인욕, 하심공부를 해볼 것을 권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고우 스님 특별초청법회=**서울 공생선원은 9월 16일(일) 오전 10시30분 개원 5주년 기념,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금봉암 조실) 특별초청법회를 연다. (02)900-2448

●**'선문염송' 등 강의=**부산 무심선원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8시30분 〈선문염송〉, 매주 토 오후 2시반~5시 〈원오심요〉와 〈서장〉을 강의한다. 매달 1 · 3 주 일 오후 1시~5시에는 수원 경기불교문화원에서 〈원오심요〉와 〈서장〉을 강의한다. (051)515-7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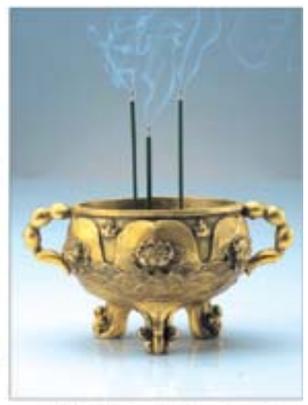
●**아나빠나삿띠 집중수행=**김열권 법사는 9월 13일(목) 오후 5시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4박5일간 남양주시 봉인사에서 부처님 호흡법인 아나빠나삿띠 중심의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연다. (031)528-5585

●**3박4일 참선정진=**해인사 백련암은 9월 27~30일(매월 넷째 주 목~일) 3박4일 참선정진을 실시한다. 또 매월 음력 1일(9월 11일) 오전 10시30분 참선법회와 셋째 주 토 3천배 철야정진법회를 연다. (055)932-7300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집안에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공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진붕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염을 모아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선물로 일반인께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제사용 백연화 강신향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추석 명절 제사부터 사용하시면 품격!
제사를 지내는 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께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어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祭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음 제주는 무릎을 꿇어 향로에 분향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천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동물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란 뜻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불심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천년이 지나도 변색 변질 되지 않게 베르린 왁시까지 처리 하였다. 자자손손 가정의 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봉우리의 백연화가 향로에 피어있고 후손의 가정가정마다 만사형통과 건강장수하게 육자대명왕진언을 넣어 가정의 천년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백배로 받아 제사때 품위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98,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名品향로

• 규격:높이14cm, 폭18cm, 무게1kg

신통종자지갑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불경에 입각해 부와 명예를 얻게 제작된 영험의 지갑!!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염이 일어나 참 품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각종비방의 법구와 진언이 많이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는 신묘(神妙)법구에는 "보병"과 "반장"이 있고 진언으로는 "육자대명왕진언"이 있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닫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悲神力)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역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마음’의 중심부터 올바로 세워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㉛ 대학생들이 말하는 ‘인생’

찬 바람이 불며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가을이 오고 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학생들의 답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인생은 비포장도로

“험난한 인생 여정 잘 극복해야”

인생은 험난하다. 결코 쉽지 않으며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험난한 시간도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해야 한다.

힘들다고 포기해 버리면 시간만 길어질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비포장도로라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서 끝내 포장도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S군)

인생은 용기

“용기는 삶의 시련을 이겨내는 힘”

사람은 살아가면서 순탄한 삶만을 살 수는 없다. 나 자신도 살아 온 시간을 돌아보니 지치고 견디기 힘든 시기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나를 잡아 준 것은 ‘시련을 이겨 낼 수 있다’라는 용기가 아니었나 싶다.

용기야말로 살아가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용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인생은 용기이다. (K양)

인생은 자기하기 나름

“내 인생은 스스로 꾸려나가야”

20대 중반에 불과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의 말만 듣고 쉽게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겁 먹는 것은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었다.

현재 4학년이다 보니 가장 주된 관심사는 취업이다. 예전에는 “특정 기업은 일류대학 아니면 원서도 못 쓴다”는 말을 들었을 때 괜히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어졌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근거없는 소문들에 매여서 불안해하고 있는 시간이 아깝다.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나에게도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내가 꾸려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 있다. 내가 하기 나름인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게 된 후로 이전보다 마음이 편해지게 되었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 (P군)

인생은 자기를 알아가는 여행

“충분한 자아성찰 과정 필요”

행복하게 사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삶의 계획도 세울 수 있다.

자기가 진정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모르고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장의 무게가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인생은 ‘자신을 알아가는 여행’이다. (K군)

급변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의 중심을 올바로 가지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인생에서 넘어야할 크고 작은 산들과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는 결정적이다.

“막히게 하는 것도 뚫리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다”라는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생명에너지로 피어나기를 희망해 본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 앵 게 시 판

●**대흥사 새벽숲길 템플스테이=**해남 대흥사가 금 · 토 · 일 3일간 새벽숲길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첫째 셋째주는 새벽숲길, 놀토가 있는 둘째주는 남도문화체험 새벽숲길, 넷째주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 새벽숲길이 불자들을 기다린다. 9월 14~16일은 새벽숲길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2박3일 코스와 1박2일 코스가 선택가능하다. (061)535-5775

●**불광사 바라밀 문화기행=**서울 불광사가 9월 13일 강릉으로 바라밀 문화기행을 떠난다. 대관령박물관, 허난설헌 생가, 굴산사지, 신복사지, 강릉객사문이 9월 기행의 주인공들.
지안 거사의 안내로 강릉 일대에 서려있는 불교의 향기를 찾아 떠나보자. 큰 길 따라 듬성듬성 보는 기행이 아니라 오솔길 따라 아기자기하게 보는 재미가 뛰어난 기행이다. 10월 18일, 11월 16일 등에도 바라밀 문화기행이 마련된다. (02)419-3344

●**흥국사 인도 · 네팔 불교 8대 성지 순례=**고양 흥국사가 11월 27일~12월 5일 8박 9일 일정으로 인도와 네팔을 경유한 불교 8대 성지순례를 떠난다. 불교 8대 성지는 제1성지 룸비니, 제2성지 보드가야, 제3성지 사르나트, 제4성지 쿠시나가르, 제5성지 스라바스티, 제6성지 바이샬리, 제7성지 라지기르, 제8성지 나란다이다. 8대 성지와 더불어 아그라, 델리 등을 돌아볼 계획. 모집인원은 선착순 20명이며 9월 2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동참금은 198만원. (02)381-7970

●**상원사 산사음악회=**양평 상원사가 9월 13일 오후 7시 ‘상원사 맑은 물소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상원사와 양평사암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덕림 스님, 심진 스님을 비롯해 장사익, 한영애, 이종만,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트, 아프리카 무용단 아닌카 등이 신나는 무대를 꾸민다. 이에 앞서 오후 3시에는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031)773-4634

●**화계사 알뜰바자회=**서울 화계사가 9월 11~13일 화계사 경내에서 알뜰바자회를 개최한다. 기증품은 의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비롯해 판매가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연다.
주지스님의 별미 비빔국수도 알뜰 바자회와 함께 마련되는 먹거리 장터에서 만날 수 있다.
알뜰바자회의 수익금은 난치병 어린이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될 계획이다. (02)902-2663

●**용주사 경기불교대학 개강=**화성 용주사가 운영하는 2007학년도 하반기 경기불교대학이 9월 12일 개강한다. 4개월 과정의 초심자반은 수요일 오전 10~12시 효행교육관에서 강의가 시작된다. 불자예절과 상식, 부처님 생애, 기초교리 등을 배울 수 있다. 정규반은 수요일 오후 2~4시 강의가 진행된다. 〈천수경〉 〈금강경〉 등 경전의 세계를 접할 수 있다. (031)234-0040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8〉

정신분석과 불교-8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이트의 말을 빌리면 본능(id)이 있는 곳에 자아(ego)가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깊은 동기와 소망에 부딪혀 낯설고 두려운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고 정리하면서 새로운 통합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잊어버린 어릴 적 경험을 기억해 내는 것이다. 이 경험 속에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친 갈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환자로 하여금 과거 경험을 기억해 내게 한 기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최면 요법이다. 이 방법은 환자가 겪은 사건은 기억에서 잊혀졌으나, 그 사건으로 인한 영향은 증상이라는 위장된 형태로 살아 있을 경우에 행한다. 즉 최면의 힘을 빌려 과거의 외상적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과거에 육체적 또는 성적인 외상이 있을 때는 유효하나, 그럴만한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환자가 의식적인 통제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지므로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신경증 등에는 별 효과가 없어 프로이트도 일찍이 이 방법을 포기했다.

정신분석은 기억 되살리기 위해 현재에 ‘초점’
불교는 궁극의 지혜 얻기 위해 마음챙김 수행

두 번째 기법은 자유연상이다. 자유연상에서는 각각의 증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것처럼 환자가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 심중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비록 엉뚱하거나 수치스럽거나 기괴하거나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말로 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얽히고설킨 수많은 삶의 과정과 기억의 파편이 제각기 짝을 찾고 이해되며, 지금-여기의 삶에 수용되고 정리되게 된다.

세 번째는 잊혀진 과거를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즉각적인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환자의 마음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든 연구하는 것”이 기억을 해내는데 유용함을 알아차리고, 치료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에만 집중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이해를 방해한 저항을 환기시켜 환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마크 엡스타인은 프로이트가 활용한 세 가지 기억하기 기법 가운데 세 번째인 ‘현재에 초점 맞추기’와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법이 똑같다고 했다. 차이점이 있다면, 프로이트는 이러한 방식의 기억하기는 정신분석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불교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놓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점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프로이트는 환자의 개인사를 이해하기 위해 환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으로서 현재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불교에서는 과거의 기억 되살리기나 개인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궁극적 지혜를 얻기 위해 마음 챙김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다.

엡스타인은 실제로 마음챙김 수행을 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마음챙김이 세 번째의 기억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말한 세 가지 유형의 기억을 모두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신체균정이란?
신체불균형 예방과 균정술(均整術)을 통해 자세와 골반을 바르게 교정하여 잘못되었던 모든 기능들을 현저하게 회복 시키면서 운동능력을 향상 시킨다.
현대인의 병명이 없는 병, 무기력, 만성피로, 두통, 생리불순, 요통, 성기능강화, 학업능력 향상, 집중력 강화에 최고의 수기요법이다.

대한신체균정
중풍.만성피로.혈액순환.비만.오십견
디스크.골반.짝다리.척추.자세균정 등

놀라운 히말라야 석청(꿀)

히말라야 석청은 지역, 환경, 높이, 계절 등에 따라 A급,B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최고급의 A급 석청은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해발 3,500~4,000m 사이 험지의 계곡, 절벽틈사이에 있으며 이곳에서 채취하는 석청은 최고급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석청은 보통 같은 장소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채취가 가능하므로 그만큼 귀한상품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석청은 한번에 많이 복용한다고 빨리 약효를 보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간혹 많이 아픈분들이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 많은 양을 복용하시다 하루종일 고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석청을 복용하는 네팔의 왕족이나 티벳의 고승들도 하루에 10mm 정도를 2~3번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효과
히말라야 석청은 다양한 질병과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몸의 독소를 내보내 체질을 개선시키는가 하면 피를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의 면역력을 높여 만성질병을 치료하는데 으뜸입니다.
또한 간혹 석청을 적량 이상 드셨을때 ‘명현현상’이 일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던 석청이 몸속의 독소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자연적으로 몸의 아픈곳을 공략하여 치료를 해주는데 이 과정이 차츰 몸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청은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고혈압, 야맹증, 아토피,관절염, 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고질병, 혈액순환장애 등에 효과를 나타낸다.

신체 균정 氣 순환 운동요법 | 네팔 약재 무역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과
교도소 수행자 기금으로 쓰여짐을 알려드립니다.

구매문의 : 011-9750-8434
국민:650701-01-176636(예금주 : 원용대)

상기 상품(신발, 석청)구입시 대한신체균정 협회에서 무료 교정 및 시술해 드립니다.



마사이족처럼 걸어라!

한국원천기술로 국내특허를 획득하고 부산최고 생산공장에서 완성도 높게 제작된 마사이워킹슈즈 거품을 뺀 합리적인가격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바르게 걷는 방법
01 RYN을 신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다.
02 가만히 서서 뒤에서 앞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발목을 돌리기며 발목과 무릎근육등 긴장을 풀어준다.
03 발뒤꿈치 바깥쪽부터 닫는다.
04 발중앙에 무게중심을 옮긴다.

“발과 가장 닮은 신발,
구름위를 걷는듯한 편안함,
건강해 집니다.
그리고 행복해 집니다.”

전국 130여개 대리점에서
절찬 판매중 입니다.



가격:198,000원
SIZE / 225 - 250
•재질 : 가죽

캐쥬얼 그레이 민트 Masaian Casual Series
캐쥬얼 블랙 Masaian Casual Series



가격:198,000원
SIZE / 225 - 285
•재질 : 가죽



가격:198,000원
SIZE / 225 - 250
•재질 : 가죽

캐쥬얼 레드 Masaian Casual Series
캐쥬얼 드림 Masaian Casual Series



가격:198,000원
SIZE / 225 - 285
•재질 : 가죽





RYN Awards | 마사이 워킹슈즐린 수상내역
헤럴드경제 베스트상품선정 | 주간여성 히트상품대상 | 헤럴드경제 베스트상품선정 | 주간여성 히트상품대상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AA 을 기세요


아이수준에 딱맞는 책을 고르는 일이 아이를 책과 친하게 만드는 기초이다.

주현(13)·주영(9)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 김영란(서울 계동·43)씨는 오늘도 아이들의 독서습관 때문에 고민한다.

"어렸을 때부터 동화전집을 사주고 책을 읽혔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책 읽는 것을 싫어해요. 이젠 독서교육도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나 싶어요."

책을 안 읽는 자녀와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려는 엄마 사이에는 늘 이렇게 알력이 생기기 마련이다.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책 읽어라"는 지겹도록 듣는 말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책'은 늘 가까이 있다. 따지고 보면 교과서도 책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책'은 지긋지긋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독서의 장점으로 주로 꼽히는 것은 사고력 향상이다. 즉, 여러 간접 경험을 쌓음으로써 인생을 준비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CEO(최고경영자)들도 <삼국지> <논어> 등의 고전을 읽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이유는 그 속에서 인간관계 및 경영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읽는 책이라고 해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 읽는다면 도움이 될까? 답은 단호하게 '아니다'. 오히려 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단계별로 알맞은 책을 골라주고, 제대로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아이와 책을 진정으로 친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책 읽는 노하우 이렇게

□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세요!

아이들에게 맞는 책을 고르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의 연령과 평소 독서 습관, 책에 대한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아이들의 도서를 골라 줄 수 있는 잣대가 연령대다. 대개 초등학생들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책을 골라주는 것이 관건이다. 지나치게 어려운 책은 아이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책에 막연한 반감을 갖게 만든다.

추천 도서로는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의 경우 권정생의 <훨훨 간다>를, 중학년(3, 4학년)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내 이름은 삐삐롱스타킹>을 권한다. <훨훨 간다>는 우리말 운율을 잘 살린 문체와 정겨운 그림 등으로 아이들을 친근하게 독서의 세계로 안내하는 책이다. 또 <내 이름은 삐삐롱스타킹>은 이미 어른들에게도 유명한 외화 '말괄량이 삐삐'의 원작으로, 아이들에게 신나는 간접경험과 함께 교훈을 전해줄 것이다. 초등 고학년(5, 6학년)의 경우는 살짝 수준을 높여 생 택쥐페리의 <어린왕자>를 추천한다. 사실 <어린왕자>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쉽지는 않지만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중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책 읽는 데 할애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깊이 있는 지식을 쌓는 것이 좋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역사, 과학 교육서 등이 이 시기에 필요하다.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책들을 읽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추천도서로는 자신의 꿈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갈매기의 의지를 담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자연과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주디스 콜, 허버트 콜의 <떡갈나무 바라보기>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현재를 만화로 즐길 수 있는 이원복의 <먼 나라 이웃 나라> 등이 있다.

고등학생들은 인문학적 소양을 폭 넓게 갖춰 대학 교육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입시에 지쳐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쉬운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고등학생들과 인문학자 혹은 문인들이 대등하게 토론을 벌인 내용을 담은 인디고 서원이 엮은 <주제와 변주>는 고등학생들의 인문학적 지식에 놀라는 계기가 될 책이다. 고전 중에서는 한 인간의 이성 회복 과정을 그리며 인간의 따뜻한 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찰스 디킨즈의 <위대한 유산>을 꼽는다. 이밖에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의 여행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구드룬 파우제방의 <그냥 떠나는 거야>도 고등학생들에게 추천할만한 책이다.

□ 조급함을 버리세요!

독서는 전적으로 즐겨야 한다. 고통스러운 책읽기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억압이다. 또 아이들은 자신의 실력에 맞춰 책을 읽어야 한다.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은 아이들을 위축시킬 뿐이다.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성급함을 버려야 함은 물론이다. 입시만을 위한 '논술' 위주의 책읽기는 책을 도구화 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커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다.

어른의 성급함 때문에 아이가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잃게 되는 것은 비극이다. 진정 아이가 책을 읽게 만들고 싶다면 어른들이 조급함부터 버려야 한다.

글=김강진 객원기자
사진제공=한우리독서문화운동

한우리도서선정연구팀장 최영주 선생님이 추천하는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

- 꽃들에게 희망을 / 시공주니어 펴냄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바다출판사 펴냄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이성과힘 펴냄
- 디지로그 / 생각의 나무 펴냄
-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 민음사 펴냄
-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 서해문집 펴냄
- 쉽게 읽는 백범일지 / 돌베개 펴냄
- 아름다운 우리 수필 / 문예출판사 펴냄
- 역사법정 / 포럼 펴냄
- 인간 간디 / 꿈꾸는돌 펴냄
- 우리 곁에서 만나는 동서양 신화 / 사계절 펴냄
-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 푸른숲 펴냄
- 천하의 중심을 꿈꾼 나라 중국 / 아이세움 펴냄
- 청소년을 위한 서양 음악사 / 두리미디어 펴냄
- 청소년을 위한 월든 / 돋을새김 펴냄
- 틴틴경제 / 랜덤하우스중앙 펴냄
- 하리하라의 과학블로그 / 살림 펴냄
- 한나 아렌트가 들려주는 전체주의 이야기 / 자음과모음 펴냄
- 한 뙈기의 땅 / 밝은세상 펴냄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는
9월 12~1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를 개최한다. 주제는 '온 누리에 작은 도서관'이며 전국 16개 시·도 공공·작은 도서관, 정부기관 자료실 및 외국대사관·문화원 등이 참여한다.

서울 삼성어린이박물관에서는
9월부터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아름다운 지구촌-세계 인형전2'를 개최한다. 이 전시에서는 지역과 민족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전통 의상을 입은 민속 인형 8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인형을 통해 각국의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비치된 세계지도에서 각 인형의 나라가 어딘지 확인해 보며 지리 감각도 키울 수 있다. (02)2143-3600

부천 활박물관에서는
매주 상설 프로그램으로 '대나무 활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궁전수자 김윤경 선생에게 직접 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직접 활을 쏘아볼 수 있다. 방문 및 사전 접수 필수. 자세한 일정 및 시간 홈페이지(www.bomuseum.or.kr) 참고. (032)614-2678

서울 백범기념관에서는
방문 가족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9월 8일부터 매주말 마다 '주말전시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용은 전시 관람과 활동지 작성, 백범 선생과 기념 촬영 등이며 사전 예약을 하면 더욱 편리하다.(02)799-3433

대구 수성아트홀에서는
수성구정신보건센터 개소 7주년을 맞아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에서 주최한 정신건강 연극인 '하얀 자화상'을 초청 공연한다. 공연일시는 9월 21일. (053)756-5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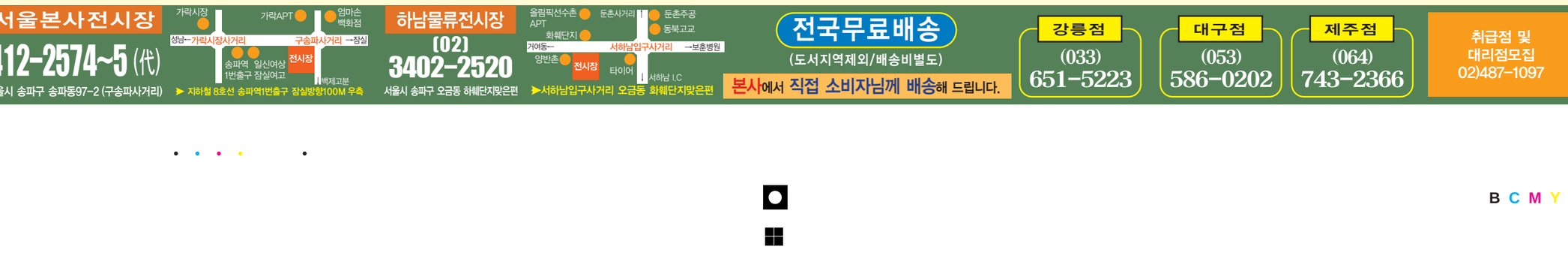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 침 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거북이표 흙침대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 (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가락시장 가락APT 엄마손 백화점 성남 가락시장사거리 구송파사거리 잠실 송파역 일신여상 1번출구 잠실여고 전시장 백제고분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올림픽선수촌 APT 둔촌사거리 둔촌주공 화훼단지 동북고교 거여동 서하남입구사거리 보훈병원 양반촌 전시장 타이어 서하남 I.C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어머니는 갈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홍두깨를 사러 장에 나가곤 했지요. 이것저것 골라도 마뜩하지 않아서 홍두깨를 고르지 못할 때 어성꾼이 나서서 홍두깨를 사기도 하였답니다. 홍두깨로 다듬이질 하는 소리 듣고 있으면 밤이 깊어가는 것이었지요. 갈매 한복 고운 어머니께서 지금은 팔순이 다 되었습니다.

갈매 : 짙은 초록색이란 뜻으로 갈매색.(잇다홍 무명 적삼에 갈매 무명 치마를 입었는데 매무새까지도 얌전하다.)(홍명희<임꺽정>) 또, 짙은 초록빛을 뜻할 때는 갈맷빛이라 하지요.

홍두깨 : 다듬잇감을 감아서 다듬이질할 때에 쓰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굵고 둥근 몽둥이. 다른 뜻으로는 소의 볼기살을 일컫기도 하는데 흔히 '홍두깨살'이라 해요. 또 쟁기질이 서툴러 갈리지 않고 중간에 남은 고랑사이의 생땅을 홍두깨라 하기도 합니다.(휙, 소리가 나며 매찬 홍두깨가 발바닥으로 사정없이 떨어지려는 찰나…)(최명희<혼불>)

어성꾼 : 하는 일 없이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즉 거간꾼이란 의미도 있어요.

마뜩하다 : 주로 '~않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제법 마음에 들 만하다는 의미를 갖지요. (이성신 교장은 김형수의 전학 서류를 갖춰 결재를 맡으러 들어가자 몹시 마뜩지 않은 인상으로 트집을 잡았다.)(전상국<음지의 눈>)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시대의 아픔 딛고 일어서는 예술가의 삶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박완서 作 '나목'

1970년도 <여성동아>의 장편 공모에 당선된 '나목'은 박완서의 데뷔작이면서 대표적인 장편소설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장소설, 세태소설, 전후소설이지요. 1951~1952년에 걸치는 겨울을 시간적 배경으로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소설이지요. 고백적, 회상적, 체험적, 시대 증언적, 사실적 문체가 특징이죠. 당돌하면서도 섬세한 감성을 소유한 주인공 이경은 두 오빠를 실수로 죽게 했다는 죄책감과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요. 옥희도는 가난한 화가지만 진실을 꿰뚫어 보는 예술가적 안목을 지녔지요. 미군 애인의 초상화를 그려서 먹고 살지만 진정한 화가가 되려는 과묵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지요.

한국전쟁 와중에 폭격으로 두 오빠를 잃은 이경은 서울의 고가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다. 오빠들이 죽은 후 그녀의 어머니는 삶의 활기를 완전히 잃고 산다. 그녀는 이런 어머니와 암울한 집안 분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이경은 서울 명동의 미8군 PX의 초상화부에서 미군들로부터 초상화 청탁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옥희도라는 화가가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옥희도는 '환쟁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식구가 불었다는 압박감이 이경을 전에 없이 활기차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옥희도는 다른 '환쟁이'들과는 달랐으면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경은 황량한 풍경이 담긴 눈을 가진 옥희도에게 마음이 끌린다. 어느 날 이경은 옥희도에게 다이아나 김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소개해준 일로 그가 상심하는 모습에서 당혹해한다. 옥희도의 제의로 저녁 식사를 한 그들은 명동거리를 거닐며 서로의 고독을 느낀다.

한편, 황태수는 이경의 사랑을 얻고자 하지만 그

체험 바탕으로 한 성장소설 '부우연' …황량한 심성 표현

녀는 오로지 옥희도에게만 사랑을 느낀다. 이경은 옥희도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만, 옥희도는 어울리는 사이가 아니라 한다. 사랑하는 사이보다는 어울리는 사이가 더 축복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황태수와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말한다. 옥희도는 진짜 화가가 되고 싶다고, 미치도록 그리고 싶다고 말하고는 며칠 동안 나가지 못함을 이경에게 말한다. PX에 나오지 않는 옥희도를 찾아간 그녀는 옥희도의 집,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고목을 본다.

결국, 옥희도와 이경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경은 황태수와 결혼한다. 세월이 흘러 이경과 태수는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간다. 어느 날 신문에서 옥희도 유작전의 기사를 읽고 태수와 함께 그곳에 간다. 거기서 이경은 지난날 옥희도의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이 지금의 자신에게 나목이었음을 알게 된다. 전쟁 당시의 자신의 삶과 옥희도에 대한 회상에 잠긴다.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헐벗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과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전쟁은 삶의 시련을 주고 있으며, 그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근본적인 층위에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존재하지요. 또한 '나'와 옥희도는 전쟁 상황 속에서 상처를 안은 채 생활해 나가나 예술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유의식을 보이죠.

옥희도의 그림은 한발에 고사한 고목으로 인식되나 세월에 흘러 가정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전쟁의 상처가 후퇴하고 일상적인 상식이 자리하면서 추운 겨울을 참고 이겨내는 나목으로 보고 있지요. 이 작품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시각적 심상, '부우연' 휘장, '부우연' 캔버스와 같은 '부우옇다'는 심상이 황량함 아닐까요?

옥희도는 꽃과 무성한 잎을 다시는 피우지 못하는 고목이 아니라 잠시 성장을 멈추고 어려운 한 시기를 극복하는 나목을 그림으로써 진정한 예술가가 된 것이지요. 시대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의 삶과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을 깨닫게 하고 있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좋은 경전 문구 소개해 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싶은데 그냥 짧게 명언처럼 제 책상에 붙여 놓을 문구들 좀 소개해 주세요. (ID:성실양~)

힘들 때일수록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요.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몇 가지만 뽑아 올립니다. 화이팅!

■ 넓은 들판에 호수가 있어 그 물이 맑고 깨끗해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말라 없어진다. 이처럼 아무리 귀한 재물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 베풀지도 못하면서 모으고 지키느라 걱정만 하다가 임종과 함께 잃어버리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위해 쓸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 쓸 줄도 알아 그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잡아함경〉

■ 덧없는 생각들을 끊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넉넉하고 안락하리라. 무엇이 덧없는 생각인가? 육신에 매달리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좋고 나쁜 느낌에 매달리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보고 느낀 생각들이 덧없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잡아함경〉

■ 우리들을 생존에 얽어매는 것은 집착이다.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그 집착을 모두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 초월해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숫타니파타〉

■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그 자신을 끌어내듯. 〈법구경〉

■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 있는 사람이다. 〈법구경〉

(보리사 다음카페)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실에서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진산!!

특허권소유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면역학연구실
미 국 특허획득 (제 6555527호)
한 국 특허획득 (제 144130호)
한 국 특허획득 (제 0361187호)

특 허 증
특 허 제 0361187호
출원번호 제 2000-0049173
출 원 일 2000년 08월 24일
등 록 일 2002년 11월 04일
발명의 명칭 조절 촉진작용, 골수 방어작용, 암세포 살해 면역세포 생성작용 및 항바이런 인간적혈구 우수한 진삼 다당체
특허권자 한국원자력연구소(160122-0000307) 대전 유성구 덕진동 150번지
발 명 자 등록 사항란에 기재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02년 11월 04일
특 허 청 청장

※본 제품은 식품위생법상 효능 효과 및 발명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진산"이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산은 인삼에서 추출한 소량의 특허성분으로서 적은 생산량과 고가의 가격으로 그동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으나 금번 고농축의 진산겔이 출시됨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진산을 구입할 수 없었던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적인 연구개발로 국내외 특허가 증명해주는 '진산'

인삼속 진주 '진산'이란?
• 인삼 1톤에서 30kg 정도의 극히 적은양 만이 추출되는 인삼 다당체로서 국내 유일의 특허 물질(특허 144130호, 0361187호)
• 과학기술부 지원으로 한국 원자력병원에서 13년 이상의 연구 끝에 개발하여 특허소유
• 진산을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주)코인텍에서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제품으로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식품위생법상 효능 효과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가족! 건강! 생명! 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 제품구성: 진산겔 1박스(20g×60포)

500박스 한정판매
온가족의 건강 '진산'으로 지키십시오!
• 특별공급가격
~~605,000~~원… 198,000원

원자력 병원이 개발한 세계적인 특허로 만든 진산 膏(고)


• 진산고 특별보급 10셋트



제조원 (주)코인텍 발명처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팀 구입문의 080-035-0303

이웃과 더불어 '불자로 살아가기'



길 위의 삶, 길 위의 화두
김광하 지음
운주사 펴냄 | 9500원

노숙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작은손길'. 그 작은손길의 큰손은 김광하 대표다.

사업과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이웃을 돌보는데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는 김씨는 자신의 이야기 보다 부처님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실천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그가 최근 펴낸 <길 위의 삶, 길 위의 화두>는 그런 이야기들이 빼곡하다. 첫 장 '부처님을 찾아서'에서는 부처님은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스승이자 현대의 삶에 고스란히 스며든 가장 큰스승임을 강조한다. 이는 김씨의 삶이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임을 감안하면 지당한 얘기다.

다음으로 펼쳐지는 '불교 에세이' 역시 살아 있는 부처님의 살아 있는 가르침을 살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느낀 단상들로 채워져 있다. 이어 지는 '경전을 읽으며' '수행한담' '불자로서 살아가기' 등도 김씨의 실천적 삶을 지탱해 주는 가치들, 불교의 오롯한 가르침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희망의 기록들이다.

임연태 기자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자타카의 노래
김장열 지음
솔바람 펴냄 | 1만원

한 생에서는 왕으로, 또 다른 생에서는 신하로, 그 다음 생에서는 비둘기로, 다양한 500여 생을 살았던 부처님의 전생담을 만화로 만나보자. 도서출판 솔바람이 부처님의 전생담 547편 가운데 20편을 골라 만화 <자타카의 노래>를 출간했다.

글과 그림을 담당한 저자 김장열씨가 내용과 의미가 분명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널리 알려진 이야기, 재밋거리를 더해 주는 이야기 20편을 골라 만화로 그려냈다.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는 2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부처님의 전생담 이야기만 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타카의 노래>에서는 한 편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우파니샤드> <조주어록> <금강경> <숫타니파타> <중아함경> 등 경전과, 김춘수 류시화 등 유명작가의 작품 한 구절을 배치했다. 보다 다양하게 이해를 돕고자한 저자의 배려다.

강지연 기자





'신필' 뒤에 가려진 인간 김정희를 만나다



한승원 선생님께,

장흥 율산마을 해산 토굴에서 무심(无心)이라는 글자를 써 넣은 부채로 한 여름을 나신다던 선생님께서 <추사>라는 '대붕의 알'을 중생계에 선물하시니 '무(无)'의 뜻이 새롭습니다. "无(무)자는 하늘 천(天)자를 닮은 글자로 하늘의 텅 비어 있음과 같은 '없음'과 우주의 시원을 뜻하는 것이다"(본지 639호 1면, '명사의 여름나기')라던 선생님의 글이 장편소설 <추사>에서도 절실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여천무극(與天無極)'의 삶이란 스스로 하늘에 가까워짐으로써만 열어갈 수 있음을 행간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7월 21일), 추사 가문의 원찰이었던 충남 예산 화엄사 뒤 바위벽에 새겨진 '시경(詩境)'이란 두 글자 앞에서 망막이 흐려짐을 느꼈었습니다. 뇌리 속에 '시의 경지, 시의 경지'를 거듭 되이며 추사의 경지는 어떨까 자못 궁금했었습니다. <추사>에는 추사가 '시경'이란 뜻을 중국의 연경에서 얻어 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추사>를 읽는 동안, 추사의 경지는 '무(无)'에 있지 않는가, 어쩌면 추사의 경지는 '경계 없음' 마저도 벗어난 곳에 있어서 알려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경'이 새겨진 바위 옆에는 추사의 친필로 '천축고선생댁(天竺古先生宅)'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경'은 추사의 글씨가 아니었지만 '천축고선생댁'은 추사의 친필이었습니다. 유학자인 추사가 불가의 부처님을 천축국의 옛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그렇게 당당하게 바위에 새겼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하게 했습니다.

추사 고택 뒤뜰의 모과가 푸른 몸집을 부풀리던 그날, 작은 암자 청화재에서 혜민 스님이 추사의 글씨를 잔뜩 보여주었습니다. 혜민 스님은 추사의 글씨를 있는 대로 모아 날날을 따로 떼어 크기를 맞추어 복사해 놓고 있었습니다. 추사의 비석을 세우고자 하는 원력으로 820여 자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일부러 '나 아(我)'자를 몇 가지 보여주었는데 같은 글자, 같은 획, 같은 따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로 일치되지 않음이 추사체의 힘임을 그날 처음 느끼고 '불일치로써 천하를 일치시키려 했던 예술혼' 앞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나는 추사 김정희의 신필(神筆) 뒤에 가려져 있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김정희의 얼굴, 잘못 흘러가고 있는 역사를 제대로 흘러가게 하려다가 다친 과정과 유배지에서 아파하면서도 치열하게 분투하는 그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 주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다"고 밝히십니다. 그 동기는 분명, 오늘의 독자들에게 "오탁악세의 수렁에서 띠어난 해탈과 자유의 꽃"(김윤 소설가)인 추사의 예술혼을 '고졸하고 기굴하고 관광한' 선생님의 문자향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추사>는 업경대(業鏡臺)인 것 같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있다는 거울, 살아생전의 모든 일들이 따노라마로 펼쳐진다는 업경대말입니다. <추사>의 소설적 구성이 업경대에 펼쳐지는 추사의 일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추사의 업경대를 훔쳐보면서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모든 업, 개인의 업과 공공의 업을 두루 살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추사>는 추사의 삶이 신산(辛酸)함으로써 완성되었고 신필로 칭송되는 예술도 고단한 세따를 이김으로써 우뚝해졌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혼돈의 시대에 쓸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마를 서늘하게 해 줍니다.

"한번 권력을 움켜쥔 자들이 자기 때거리의 권력과 이권을 위하여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외면해버리는 일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작가의 말'이 아니더라도 해동의 소동파, 동방의 유마거사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추사의 한 생애는 바야흐로 '대선정국'을 향해 침잠돼 가는 2007년의 대한민국에 '기굴하고 관광한' 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사>의 마지막 장면 '불가사의 해탈'에서 그 울림은 이렇게 언어 아닌 언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도 아니고 글씨도 아닌 이 동그라미 안의 세상은, 내가 평생 가고자 소원했던 시공이다. 말이기도 하고 말 아니기도 한 이 동그라미의 뜻을 나는 지금 칭병을 한 채 문병객들을 불러들여 설법한 유마힐 거사의 말없는 말법으로써 불가사의 해탈의 법을 말하고 있는데 내 뜻을 아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하하하."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추사 1,2
한승원 지음
열림원 펴냄 | 각권 9500원



'성지순례와 관광 모두 즐겨라~!'

한눈에 보는 미얀마 여행



ENJOY 미얀마
류영수 지음
넥서스북스 펴냄 | 1만2000원

불교국가인 미얀마는 그동안 주로 성지순례객들의 순례의 땅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미얀마를 안내해주는 자세한 가이드북은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미얀마는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등 5개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67만 1000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 전체면적의 약 3배에 이르는 크기다. 수도는 양곤이며, 북부에 있는 제2의 도시 만달레이와 더불어 미얀마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미얀마의 지리, 역사, 관광지, 멋진 풍경 등이 자세히 소개된 가이드북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가슴속 부처를 모시며 위빠사나 명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챙기는 미얀마 사람들의 흔적과 그들의 삶도 곳곳에 들어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사진작가인 저자의 다양하고 오랜 경험을 곳곳에 팁(Tip)으로 녹여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성지순례 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특히 4박5일, 7일, 20일 등 시간별로 관광과 순례를 알차게 할 수 있는 계획도 짜놓아 단기나 중기적으로 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류영수씨는 "가난하지만 결코 그 가난만큼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미얀마 사람들을 보며 행복과 불행이 모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미얀마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속에 모시고 있는 부처는 바로 행복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 브뤼넬	솔바람
4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화, 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툽텐 초드론	미디어 윌
8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9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10	절수행입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사계절 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특 · 무명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진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 · 무명

풍산동 99%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무명

미끄럼 방지 (논스립 우레탄)

발볼조절가능

건강슬리퍼

바이오실리콘

초극세사 (방수원단)

풍산동 99%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진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을 검색하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스님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 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문의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웰빙가구의 대명사 - 다심

마지막 남은 소나무(육송) 茶心마루 공장직판

도매가세일 한정판매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茶 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구분	크 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육송좌탁	1200×600×300 (小)	300,000	160,000
	1300×770×300 (中)	400,000	200,000
	1500×770×300 (大)	500,000	260,000
	1800×770×300 (특大)	600,000	300,000
침대	2100×1700×320	2,000,000	1,4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 곡선침대



• 직선좌탁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육송좌탁은 완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작업으로 제작.
▶소재 :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육송(춘향목) 사용
▶사용 : 차탁, 거실의 좌탁, 소파대용 의자,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제사상 등
▶사용법 :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칠(들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반질해져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짐.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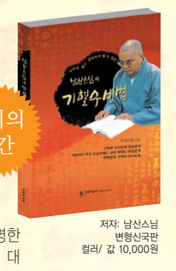
괄사 · 발란스 테이핑



물소뿔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뿔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긁어주면 된다.
또한 긁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발란스 테이핑
5cmX10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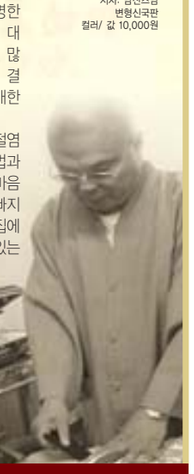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국부카르마 문의: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

현대불교신문 새로운 감각달력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NEW CALE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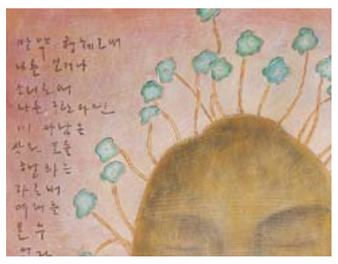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독자적으로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 제작한 달력으로 한층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희상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하나로 돌아가기

작품 : 희상 스님_ 크기 : 30.5 × 30.5

절의 미학

사진 : 박재완 기자_ 크기 : 26.5 × 26.5




불국정토 남산

사진 : 고영배 기자_ 크기 : 26.5 × 26.5




현대불교신문 주문전화 : 02-2004-8233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6.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네(2)

정범조는 <소요당집> 서문에서도 '대사의 시는 맑고 훤하고 담박하여 마치 허공을 지나는 구름 같고 달이 냇물에 비친 것 같았고, 적절한 언어와 절묘한 비유가 빛이나 모양의 저쪽을 뛰어넘고 있다'고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선사의 시문을 유심히 볼 것 같으면 모든 게송이 그저 시인의 절묘한 시구나 기발한 발상을 언어로 나타낸 시가적(詩家的) 입장이 아니라, 앞 모두에 서산 대사가 준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다'와 같이 이미 선가에서 전래된 시를 편안하게 그냥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선사들의 꾸밈없는 마음 자체에서 찾을 수 있고, 오직 후학들을 위한 간절노파심절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함은 선시의 한 특징이니 여시한 평평범범, 이것이 선장들의 솜씨라 할 것이다.

소요당 태능은 서산 대사의 전법제자이며 오늘날까지 그 문손이 전해 내려오는 휴정의 4대 문파 중 하나다. 사명당 유정은 서산으로부터 경을 잇고 소요당과 편양당 언기는 선을 이었다. 그리고 정관당 일선이 각각 한 파를 이루고 있다.

학인 깨우칠 의도로 옛 게송 그대로 사용하기도
진실로 별난 것 없는 '別無奇特'…선가의 가풍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
一株無影木
불 속에 옮겨다 심으니
移就火中栽
새봄의 비를 가져 오지 않아도
不假三春雨
흐드러지게 핀 저 붉은 꽃
紅花爛漫開
–소요 태능

위의 게송은 제자 霽月 守一(제월 수일)에게 준 5수 가운데 하나이다. 진리를 전하는 염송적 전법게이다. 선가의 선시는 시구가 독창적일 수도 있으나, 진리 자체에 계합될 때, 예부터 전해 오는 선게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시를 짓는데 근본이 있기보다, 학인을 깨우치게 하는데 목적이 있게 때문이다. 저 뻥 뚫린 선장의 지극한 간절심 때문일 것이다. 일체가 그대로 실상이요 그것이 그대로 진여 화엄법계이기 때문이다. 앞의 서산대사가 소요에게 준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구나(騎牛更覓牛)" 역시 예부터 내려오는 게송을 그대로 주고 있다.

1행의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 역시 선시의 반상합도의 수사법이다. 무한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A는 A가 아니므로 A이다'가 되는 A=?의 표현이다. 즉 '나무'(A)가 '나무 아닐'(?) 때 그림자가 없고, 2행과 같이 '불 속에 옮겨다 심을 수'있다는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럴 때 미당의 시 <내가/돌이 되면//돌은/연꽃이 되고//연꽃은/호수가 되고//내가/호수가 되면//호수는//연꽃이 되면/연꽃은//돌이 되고 (–연꽃이 되면, 전문)>의 시세계와 포개어 지며, 무한하고 아득한 저 속의 세계 소식이 3행과 4행에서와 같이 "새봄의 비를 가져 오지 않아도(不假三春雨)/흐드러지게 핀 저 붉은 꽃(紅花爛漫開)"으로 천만번 되 피고 되살아나고 다시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고 차조동시(遮照同時)의 소식으로 오게 된다. 이것들 흔히 문자의 표상 밖이라 하지만, 선장들은 이것 역시 문장 밖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선가에서는 별무기특(別無奇特)이란 말이 있다. 진실로 별난 것이 없음이 선가의 가풍이다. 선시의 맛을 표집하면 단순(單純), 명징(明澄), 청량(淸凉), 표일(飄逸), 검박(儉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 역시 소요의 시에서 주된 풍광을 보여준다.

인조 27년(1649)에 입적을 하며 다음과 같은 열반송을 남기니 세수 88세, 선납 73년이다.

해탈이 해탈아니니
解脫非解脫
열반 어이 고향이리오
涅槃豈故鄕
취모건 서슬 푸르른데
吹毛光燦燦
입으로 칼날을 부딪임이여!
口舌犯鋒芒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⑯

다보탑을 줍다
유안진| 창비, 2004| 6천원





언어도단의 불교적인 아름다움 찬미

유안진은 1941년 안동에서 태어나 1965년 <현대문학>에 시가 추천되어 시를 쓰기 시작했다.

시집 <다보탑을 줍다>는 그의 12번째 시집이다. 시집을 읽어가다 보면 간혹 보이는 기독교의 어휘를 통해 그가 '섬겨온 종교'가 가톨릭임을 눈치 챌 수 있다. 그럼에도 그의 시들 가운데 몇 편은 불교적 제재의 차용이나 상상력의 시에서 발견된다.

그가 섬기는 신앙과 달리 불교적 세계관이 그의 몸에 생래적으로 체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국보 제78호
삼국시대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한 장 사진만으로도
새 정토이다
언어도단의 아름다운 극치
극치의 신비 신비로운 절대

이 미소 이상은 모두가 계거품질이고
이 미소 이하는 모두가 딸꾹질이다
안면근육경련이다.
– '미소론' 전문

시인은 국보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사진을 보고 창작동기를 얻고 있다. 반가사유상은 석가가 출가하기 전에 태자로 있었을 때 진리와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륵신앙에서는 석가가 돌아가신 후 56억 7000만년쯤 뒤에 천재지변과 도둑이 들끓는 말세가 오고, 그때 도솔천에 있던 미륵보살이 이 세상의 용화수 아래 내려와서 미륵불이 되어 석가가 못다 구제한 중생을 구제하여 이 세상을 다시 고통이 없는 안락한 이상국토로 정화한다는 믿음이다.

사유의 깊이가 보이고 밝고 순진무구한 미소와 함께 총명함이 깃들어 보이는 반가사유상의 미소에서 시인은 '새 정토'와 '언어도단의 아름다운 극치'를 보고, '극치의 신비 신비로운 절대'를 보고 있다.

그래서 반가사유상의 미소가 아닌 것은 계거품이고 딸꾹질이고 안면근육경련이라며 공격적인 어투로 반가사유상의 미소를 절대화 한다.

"바람이 현주소다/ 허공이 본적이다"('주소가 없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그의 시집에는 '나'에 대한 어휘가 두드러지게 많다. 그의 '나'는 시 속에서 "나는 늘 나 때문에 내가 가장 아프단다"('내가 가장 아프단다'.)라거나, "나는 본래 없었다"('나는 본래 없었다')는 등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확인하면서 아집으로 인한 고통과 아견을 벗어나 '무아'에 이르기도 한다.

또 '부석사는 건축되지 못했다'에서는 경북 영주에 있는 사찰인 부석사에서 제목을 빌려와 돌을 던지며 시위를 하는 '부석 행위'를 하였으나 결국 시위를 통해 '부석사'는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개심사 입구 세심동에
고개 떨구고 걷다가 다보탑을 주웠다
국보 20호를 줍는 횡재를 했다
석존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땅 속에서 솟아나 찬탄했다는 다보탑을

두 발 닿은 여기가 영취산 어디인가
어깨 치고 지나간 행인 중에 석존이 계셨는가
고개를 떨구면 세상은 아무데나 불국정토 되는가

정신 차려 다시 보면 빼알간 구리동전
꺾어진 목고개로 주저 앉고 싶은 때는
쓸모 있는 듯 별 쓸모없는 10원짜리
그렇게 살아왔다는가 그렇게 살아가라는가.
– '다보탑을 줍다' 전문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⑯호박 마 구이무침

어느 덧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호박요리를 자주 먹게 됩니다.

호박은 그 종류도 다양해서 어린 호박을 애호박, 늙은 호박을 청동호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박은 열매 뿐 아니라 잎과 순도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재료로 이용됩니다. 호박떡, 호박전, 호박찜 등 우리 식탁에 오르는 호박 요리도 다양합니다.

호박은 산후부종 · 당뇨 등의 약재로 사용
참마는 소화불량 · 만성장염 치료에 효과

호박에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비롯해 카로틴과 비타민 A, B, C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호박죽이나 호박국을 끓여 먹으면 불면증을 치료하고, 호박씨를 설탕에 절여 구충제로도 썼습니다. 특히 동지 때 수확한 호박은 산후부종, 당뇨병, 이뇨제 등의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호박꽃은 뱀에 물렸을 때 찧어 붙이거나 탕(湯)으로 만들어 씻으면 효과가 있고, 호박을 장복하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비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호박죽은 병후 회복에 좋고 호박탕은 산후병에 좋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차례에 걸쳐 호박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호박 마 구이무침입니다. 마는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영양이 높아 자양강장에 효과가 뛰어나고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당뇨병, 기침, 폐질환 등에 좋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강하여 원기가 쇠약한 사람이 오래 복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참마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 있어서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위가 약한 사람에게 좋고, 장내 세균활동을 왕성하게 하므로 만성장염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가래를 없애고 염증을 삭이고 머리를 맑게 하는 작용도 합니다. 참마를 꾸준히 복용하여 관절염이 나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체질이 심하게 냉한 사람과 알레르기성 체질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는 날로 먹거나 생즙을 내어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가루를 내어 먹기도 합니다. 호박 마 구이무침은 마 구이를 애호박과 함께 내는 가을철 영양 음식입니다.



호박 마 구이무침

재료 : 애호박, 마, 찹쌀가루, 홍고추, 잣, 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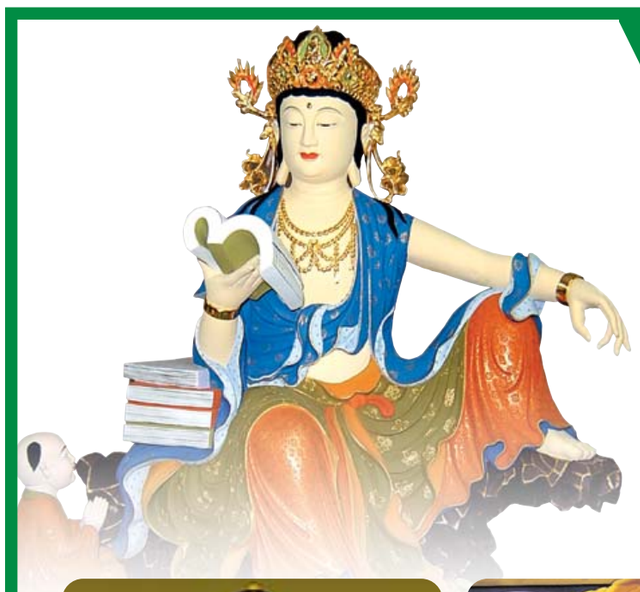
만드는 법

① 호박과 마는 얇고 둥글게 모양대로 썰어서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둔다.

② 찹쌀가루는 익반죽해서 애호박과 비슷한 둥근 모양으로 빚어서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홍고추는 채 썰어 두고 잣은 다져서 간장으로 묽게 버무린다.

③ 구운 애호박과 마, 찹쌀반죽, 홍고추 채 썬 것을 가지런하게 접시에 담고 그 위에 버무린 잣간장을 부어서 낸다.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7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허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516-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악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행사 문의 바랍니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서울 강동구
011-445-9549
기원 합장

친환경 한지 영가옷
순수 한지로 만들어서 그을음이나 냄새가 나지 않아 도심지 사찰에서 사용하기 좋으며 우리한지는 질겨 잘 찢어지지 않으며 환경과 공해를 생각하시는 스님께서 많이 사용하는 영가옷 입니다
※치수는 일반영가옷과 동일합니다
※주문즉시 택배로 발송합니다
054)972-9933
017-503-3503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메모하세요~)

물어보세요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기도 회향방법 지도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빙 의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픈 분
신병 · 무병 · 알콜중독 ·
우울증 · 컴퓨터오락중독
www.jijangsw.com
054)383-8553
(부처골 지장선원)

채식요리 식이요법 자연건강법 강의
3개월과정,주1회,월20만원
•대상 : 주부, 건강관리사, 요가지도사, 성인병환자
•강의 : '영혼의 음식' 저자 이도경 선생
019-527-3587
02)576-3589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다라,
승무작법
010-2570-3847

명리학, 육효, 수강생 모집
용 덕 사
(명리배우면서 절 살림 도우실 여자분 모집니다. 출/퇴근 가능)
051)506-4038

수(數)수리 수인작법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 (기본적)숫자를 통한 특유의 점술로그
◆숫자가 사람 또는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교재 : 수(數)수리 수인작법서 무료 증(시중에 절판된 책)
◆소량의 분량재고 선착순 판매
031)633-1517
010-9593-5537

불교관련도서 보시
불교관련 도서
보시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일산시 동구 정발산동 1219-1
관음사 불교 도서관
031)911-989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041)673-233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지역
053)313-590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10-4773-084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합니다
(65세 이상) ▷서울 정릉
02)917-3363

기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6251-2108

기도하면서 지내실
노부부 모십니다
기도하실스님,
스님하실 행자님,
처사님 모십니다
011-561-6644

부전스님모십니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숙식가능자)
▷부산지역
051)243-5524

조용한 산사에서
성실하고 신심있는
처사님을 모십니다
(1종 면허 소지자)
055)863-4143
011-392-6885

기도법사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조계종 사찰
055)261-7505

종무소 여직원
구합니다(30~40세)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42)272-122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011-9795-760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 산사
054)772-4133

부전(비구니)스님
모십니다
▷대전
011-591-8228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모십니다
(대둔산 비구니 도량)
011-435-2572

공양주 보살님
기도하실 스님(행자)
역학을 배우며
기도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010-3440-9682

경관이 좋은 산사에서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647-0018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경주지역
010-9408-7447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하여 스님이 될
행자(女)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199-7096

운영이 안되는
포교당이나
사찰 무보시로
도와드립니다
▷경남북 지역 원함
(50대 비구승)
010-5573-3632

사찰 행사 49재, 천도재, 불상점안, 산사음악회 (범음범패, 바라, 작법무, 화청, 전통무용)
영산회상 예술포교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일겸합장)
문의 051)557-1130/011-482-2091
홈페이지 : www.천도재.kr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스님들이나 법사들의 포교방편 최고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 기로써 퇴마를 치유한다
2. 즉석에서 우주와 결합시킨다
3. 손 끝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다
※ 세상에 이런 신통기공사는 한명 뿐
※ 사찰 입종 환영, 행자승 모집!!
▸웰빙 건강 최고의 건강 수련법◂
각종 질병이 수련시 치유되며 즉석에서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수기간 : 3개월 완성 •속성반 : 2개월 완성
•연락주시면 동영상 CD를 보내 드립니다.
•스님들 법사님들 우선순위 환영 하며
•타종교와 일반인도 환영 합니다.
대한선행불교조계종총무원
•법인 : 삼삼구 불기공 전국 총 연합 본부 (5호선 명일역 3번 출구 부근)
TEL 02)426-4774 / FAX 02)426-5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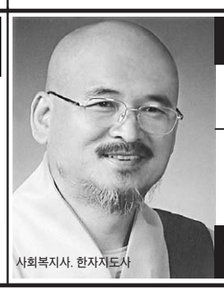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군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사암등록 및 행자모집
◆ 각 사암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 행자, 동자(예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한 청정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여 행자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시고져 하는 분은 이 곳 고원사에서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행자 및 동자 자격기준
◆나이 : 남자 55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
◆학력 : 고졸이상
◆나이 : 동자 5세이상 12세이하
◆6개월 교육후 수계(예비스님)
◆문의 : 총무실장 010-4802-5288
010-2039-528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참선기도 도량 고 원 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 054)383-5005, 054)382-3397
전통불교대학 삼 보 선 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

대중포교 친견고민 끝!
"효사육임복변집"
- 드디어 공부할 필요없이 쉽게 활용되도록 해 놨습니다 -
이 육임활용서는 효사 육임래정비법 의 최신 "완결판" 입니다. 60갑자를 매일별로 3장 6면에 편성, 독립제본(A4,A3용지크기 2종류)
하여 ①왜 왔는가? ②어떤 정황인간? ③형이상각법 (작사귀 병귀 침범여부 및 그명칭, 부정빌미침범여부 및 그 명칭, 산소탈 침범여부 및 그 망자육친, 산소탈 이유, 후손재해, 묘지경관, 묘지물형좌, 묘지속상태, 각각의 해소지침) ④당면운세 판단 ⑤띠별 나이별 길흉 ⑥묻는 목적사 23항목별 성부 ⑦1년 월별 신수 ⑧원전 육임직지요결 등등을 또박또박 기입해 놓아
■정확도 ■효과성 ■간편성을 담보시켰습니다.
표시된 방문시간과 표시된 해당국수만 주-욱 보고서 보듯 보아나가면 정곡을 찌르는 위력 이 있게 됩니다.
이외, 실생활에 적용되는 즉시적 능동적 육임활용간단비법들을 순서에 맞춰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 책 60갑자 60권, 동일한 각일치 3장 6면의 양식구성에만 무려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것은, 정확도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학습하지 않고도 만족스럽게 활용하여 효과가 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굳이 말씀 드립니다.
■주문 : 02)993-8680 (60갑자일 각 순 10권씩, 6순 60권 독립제본, 8월 20일부터 1-6차 발송함)
■입금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주)
농 협 170338-56-155880 김나형
■대금 : 250만원
육 임 나 라
www.taoetmple.net
효사육임강론 序六版과 기존 강론 · 강의록 교환접수합니다.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CD프로그램과 기존 Ⅰ·Ⅱ·Ⅲ 과 교환접수합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 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배탈. 설사를 막읍시다.
날씨가 더울수록 우리의 배는 더 차가워지며 배가 차면 질병의 원인이 되며 또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신 분은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북한 3대 명산품인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의 효능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닥터에서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명산품으로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육각거북건강매트, 오십견심폐조끼, 헬스방석, 요추.경추베개, 족온기, 팔찌.목걸이, 베개볼 등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하신 분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 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금강닥터(02)723-0099 농협170-12-056037 정애영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데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담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할땀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념학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동해
● 법당 : 82㎡(25)목조
● 요사 : 217㎡(66)목조
● 부지 : 891㎡(270)목조
● 가액 : 4억(급양도)

● 위치: 마산
● 법당 : 82㎡(25)
● 요사 : 132㎡(40)
● 부지 : 1,155㎡(350)
● 가액 : 7억3천

● 위치: 마산지역
● 법당 : 79㎡(24)목조
● 요사 : 36㎡(120)목조
● 명부전 : 660㎡(200)
● 부지 : 3,960㎡(1,200)
국 4950㎡(1500)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부산 영도 바닷가
● 부지 : 130평
(시유지30평 포함)
● 법당 목조 25평, 요사채2동
● 주변경관 바다전망 최고
● 120년 역사 전통 사찰
● 가액 : 3억 2천

● 위치 : 삼랑진역 10분 거리
● 총평수 :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 1,530평+밭550평+임야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12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가액 : 4억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산야초 까페(급)안내
(임대도 가능)

● 의정부 시청앞 건강약차전문점
고급풍 인테리어,
전망이 매우 좋음
밝고 깨끗합니다
● 35평
● 임대료 2천만원, 월70만원
010-2914-2082

포 교 당 안 내
(임대도 가능)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평수 : 30평(3층)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2)902-4070

멋진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고령
● 대지 2,000평, 대웅전 단청 40평, 요사채 큰방4개,
현대식주방2개, 목욕탕 실내화장실, 소형 연못
요사채 1층 원룸 15개, 2층 원룸 15개
다락큰방 2개, 현대식 신축, 2007년 5월 올 수리
● 16억 짜리 융자 2억 안고 4억에 급 매도
주인 직 011-869-8608, 011-872-7073

사찰 포교당 안내

● 울산 신축사찰
엘리베이터(유) 9억5천
● 해운대구 50년 전통사찰
320평 10억
● 수영구 30년전통사찰 100평 5억
● 해운대구 반송 포교당 40평
1억6천5백
※부산경남근교 2억~10억 사찰
긴급구함(신속처리 비밀보장)
부산경남 연산불사 010-2460-33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402평, 임야 30평
(실사용평수 약 600평)
● 대웅전 33평,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7층 석탑, 정남향,
● 산세수려, 진입로 포장
● 가액 : 7억5천만원
011-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 약 2000평, 법당2개,
방9개, 교육관(큰방1)
● 특징: 기도성취 대불
<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 12억
016-9757-5608
033)257-7124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법당 25평(단청),
요사채(2동) 30평, 20평
● 가액 : 3억3천만원
(가격절충가능)
(1억5천 융자가능)
● 즉시 법회가능, 마당 연못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583-20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포항시육거리
(구,시청앞)
● 건평 35평(2층)
● 법당 잘 꾸며져 있음
● 몸만들어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옆 건물은 다방(살림도 가능)
● 가액 : 시설비 1300만원
보증금 200만원, 월32만원
011-9798-846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기도 경계
(원 도봉산)
● 시위지 약 300평
● 임법당, 건평 45평, 별채 18평
● 경내에 칠층석탑,
관음석불 있음. 심야보일러
● 1호선 망월사 전철역에서
5분거리. 지하수 및 수도시설
● 공기청정, 조용하고 산세수려함
016-337-951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
● 대지 : 250평
● 대웅전 25평
● 요사채 : 20평
● 화장실 3칸외 시설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 꼭 하실분 전화요망
010-9333-8472

사찰(급)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자모사
● 평수 : 70평
(3층건물 중 3층)
● 전세 500만원, 월50만원
● 사정상 급 안내합니다
010-2707-677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 평수 : 57평,법당 20평
● 방4개, 공양간, 창고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6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특징 : 신흥 주거지역
대단위아파트인접
즉시법회가능
017-517-0097

사 찰 안 내

● 위치 : 단양
● 대지 : 270평
● 요사채 : 50평
● 법당 : 30평
● 가액 : 1억 6백만원
010-9959-1026

암 자 안 내

● 위치 : 마산
● 가액 : 4200만원
● 몸만오시면됨
010-9235-931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의정부 신곡2동
● 83평(12층 단독).
● 보증금 5000. 월 90만원
시설비 2천 5백
010-5698-8769

인천지역 포교원 안내

● 건물 37평(계단, 화장실,
주차공간 제한평수)
● 3층 신건물, 2층 전체사용
●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佛), 영가단
● 사무실, 접견실 겸 공양실,
주방, 에어컨 2대 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500만원
보증금포함 시설비
합 : 4500만원(절충가능)
010-6261-6117
진공스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율동
● 대지 : 120평
● 법당(삼존불 모셔져 있음)
● 시설 : 요사채(부엌, 방5)
● 특징 : 교통편리
● 가액 : 1억3천만원 또는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016-525-0324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055)674-5978
011-864-669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청담동
● 평수 : 60평
● 시설 완비
● 가액 : 1억원(시설비 포함)
010-3751-134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 평수 : 약50평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1-582-1865

사찰전세(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근처
● 면적 3,200평
● 건평 76평, 법당 35평
● 방 4개, 주차장 400평
● 7년 넘은 사찰을 예쁘게
사용하실 스님에게 전세금
약간 받고 양도합니다
● 전세금 3500만원
※스님 해외 관계로 급 양도하고자 함
010-3131-109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 건물 중 3층 전체 사용
● 평수 : 140평
● 법당 70평, 요사채30평
● 후원 10평, 휴식공간 3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전세만 가능)
시설비 : 상담 후 절충가능
011-3475-0047

명상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90평, 밭 590평
● 진입로 포장, 심야보일러
농어촌 전기, 조립주택 280평
미타삼존불탱화, 방4, 입식부엌
● 구획 외 지역으로 건축이
자유롭다
● 가액 1억 3천만원
017-407-0021

사찰 부지안내

● 위치 : 인근주거밀집 지역으로
포교원부지로도 적합
● 전, 임야, 대지 총 800여평(대지 40평)
● 위치 : 김해 한림면 소재지
● 가액 : 1억6천만원
053)651-0095
016-805-0095
054)683-518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송파구 마천동
(송파 신도시 지역)
● 평수 : 47평(4층건물 중 2층)
● 보증금 3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31)657-3288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암 자 안 내

● 위치: 경기 안성시 죽산면
● 대지 160평, 실사용평수 200평
● 1층 적조슬라브, 요사채 겸
살림집 30평
2층 조립식 법당 25평
삼존불 영가단 후불탱화 일절
● 가액:1억 5천 5백만원
(은행융자 2천 2백만원 포함)
● 비구니스님에게 적합
010-9484-7622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 550평, 공유지 500여평
● 법당 :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25평
● 요사 : 24평(2층), 부속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대구 30분 거리
● 특징 : 강변 고절터로 기도처 최고
포교와 노후생활에 최적지
● 가액 : 2억9천5백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4600-040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2층 45평
010-8622-128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산시
팔봉산 대원사
● 사찰을 무료로 드립니다
●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기도하기 좋은곳
011-9762-2286

촌집(토굴)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
● 대지 92평
● 건평 25평
● 가액 : 6천5백만원
(밭 14평 무상으로 드림)
011-884-776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법당 : (실평수) 65평(2층)
시설 특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8-632-20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대구, 마산, 창원 인접)
● 평수 : 1,350여평
법당, 용왕당(연못있음)
칠성각, 요사채,
총 100평정도
● 가액 : 3억 5천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2592-1523

부산 최고 요지 포교당

● 위치 : 부산 수영구 망리1동
(부산은행 망리점 뒤)
망리 전철역에서 500M거리
● 평수 : 40평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영가전
주지방, 상담실, 후원, 화장실
● 보증금 2천만원, 월2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1-437-6950

사 찰 중 계

● 위치 : 경기 동남부
● 부지 : 3500평
● 가액 : 7억
● 부지 : 1천평
● 가액 : 15억

● 위치 : 경기 남부
● 부지 : 42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63평
● 가액 : 9억(급안내)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지리산 사찰 양도

● 해발700미터 웅장한 일자혈에 계곡
● 소나무 기암의 임야15000평 대지1000여평
● 현대식요사채3동 통유리 벽난로 황토선방
무문관수행위한 4개독립선실 전기도로 완비
● 양도가는 방문후협상
연락처 010-4650-5730
(정진 중이니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 부동산 전문안내

● 대구 · 경북권 지역
석불 · 석등(석조각 불교제품)
● 제작, 공급합니다
011-822-8000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1.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 1만여평 부지,전각 10여동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7-373-5998
2. 위치 : 춘천시
● 대지 200여평, 조립식 임법당 30평 외
부속건물 10여평 ● 가액 : 1억5천만원
010-6739-6426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 현산면
● 대지 : 350평, 건평 31평, 임법당
● 가액 : 4천3백만원
011-631-2954

도심포교 사찰 안내

● 위치 : 청주시 주산인 우암산 중턱 ● 대지 : 53평
● 건평 : 대지전체 건물축조 (※2005년리모델링건축함)
①1층-전통흙벽돌 및 목조건축 53평
②2층-준 2층이며 목조 및 캐노피발코니건축 25평
● 양도가 : 2억 7천만원 ① 승계가능한 융자5천만원 포함
② 현사찰기능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모두 포함
● 사찰특징 : ① 쾌적한 환경 및 시내조망권최상
② 현재 포교활동 및 사찰 운영 재정상태 원활함
③ 도심포교와 연계하여 공동체 마을 운영중
④ "공동체마을"까지 인수하실 경우 "도심선방"으로도
연계 사용가능함
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소재"공동체마을 규모"
● 대지 : 200평 건물 : 법당45평,공양간45평
● 공동체 마을 인수금 : 1억원
016-401-6254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신



서산 부석사는 천수만을 찾아온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철새탐조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자연 맘껏 느끼고 사찰서 웰빙 체험

자연과 사찰이 있는 시골로 오세요

극성스럽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가을 기운이 물씬 묻어난다. 올 가을에는 아이들과 함께 사과나 알밤을 따보거나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등 시골 생활을 체험해보면 어떨까?

1박 2일의 짧은 시간에 농촌의 풍요로움도 만끽하고 자연체험도 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은 아파트 숲 사이에서 게임기와 컴퓨터에만 익숙한 아이들에게 색다른 체험이 될 것이다.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찰을 둘러볼 수 있는 곳도 많으므로 미리 정보를 살펴보면 길 떠나는 발걸음이 훨씬 가볍다.

농림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국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지정해 도시 관광객들에게 농촌의 풍요로움을 선사하고 있다. 유명관광지의 호텔이나 펜션의 편리함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엄마 아빠 어릴 적 생활도 느껴보고 자연과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최근 더욱 각광 받고 있다. 농어촌종합정보포털(www.greentour.or.kr)에서는 지역별 녹색농촌체험마을의 특징과 숙박시설, 체험프로그램, 준비물 등을 알아볼 수 있다.

가을을 맞아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경기도 **오감도토리마을**. 고려 때 다섯 명의 대감들이 살았다고 해서 오감도토리마을로 불리는 이곳에는 이름처럼 도토리나무가 야산에 많이 자라고 있다. 체험자들은 직접 도토리를 따고 도토리묵을 만들어보는 슬로푸드 농촌관광체험을 할 수 있다. 주위에 신륵사와 불교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는 목아박물관도 가까워 1박 2일 나들이 코스로 적합하다.(031)882-6049

경기도 슬로푸드마을로 선정된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는 사찰생활과 사찰음식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무쇠 솥에 밥을 짓고 누룽지를 만들어 먹는 것은 물론, 장작 패기와 숯불에 고구마 구워 먹기 등 전통 음식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찰음식을 만들어 봄으로써 진정한 '웰빙'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031)682-3169

영주 부석사 사과따기 체험도 해마다 인기를 더하고 있다. 가을이 무르익을수록 노랗게 물든 부석사 은행나무길과 빨간 사과가 파란 가을 하늘 아래서 장관을 연출한다. 부석사 아랫마을에 위치한 대부분의 농장에서 사과따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직접 딴 사과를 먹으며 은행나무길을 산책하는 것은 가을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다. 김천 직지사 템플스테이와 포도수확체험 일정을 묶은 여행프로그램도 가족들의 나들이 코스로 적합하다.(02)2279-5959

이 밖에 **경상북도**는 '2007 경북방문의해'를 맞아 운문사 탐방 및 천연염색 체험을 비롯한 15개 테마별 여행상품 'GO GO 경북 주말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방문의해 공식 홈페이지 '나드리(www.gbtour.net)'와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 투어서비스 홈페이지(www.ktx21.com)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가을이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알밤줍기 체험 행사 중에는 밤이 맛있기로 유명한 **공주군 정안면**이 손에 꼽힌다. 알밤줍기 체험과 갑사·마곡사 탐방을 연계한 여행상품이 운영되고 있다.(041)840-2818

농촌체험에서 벗어난 더 다양한 체험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서산 부석사**를 찾아보자. 부석사의 철새탐조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 철새들의 보고인 서산 천수만에서 각종 철새들을 망원경으로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사전에 철새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망원경 조작법, 주의사항 등을 배운 후 탐조에 임할 수 있다.(041)662-3824

해남 대흥사는 사찰 내에서만 진행되던 템플스테이에서 벗어나 고산 윤선도 유적지와 다산초당, 땅끝 전망대, 갯벌 생태체험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유적 코스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061)534-5502

부안 내소사의 트레킹 템플스테이는 인근 곰소염전과 생태공원과 연계한 코스로도 적합하다.(063)583-3035

춘천 부귀리마을은 소양호와 인접한 산촌마을로 다양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야생화 단지와 두릅농장, 토종동물농장 등에서 각종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고 계곡에서 자전거 하이킹도 해볼 수 있다. 여기에 소양호의 청평사 참배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알찬 가족나들이가 될 것이다.(033)244-0576.



고구마 캐기 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

농촌 체험하며 자연에 한걸음 더 가까이
슬로푸드마을 등 사찰 연계한 상품 인기
가족애 다지고 아이들엔 현장 교육 효과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2. 환절기 노인건강

40세부터 노화 개시기…신체·정신기능 저하
보약은 운동과 균형잡힌 식사 병행해야 효과

가을은 보약에 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계절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연세가 많은 부모님을 위해 보약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지곤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영향 외에도 가을에는 겨울철에 필요한 체내의 면역력과 체력을 미리 보충해둔다는 뜻에서 예로부터 보약을 많이 지어 먹곤 했다.

'보약(補藥)'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한의학에서는 허약해진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는 지금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약을 일컫는다. 또한 보약은 정신적·육체적 활동능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인삼·황기·오미자를 비롯한 약재들은 사고력과 기억력을 좋게 하며, 근육의 활동능력을 높여 기운을 나게 하거나 피로를 빨리 푸는 작용도 한다. 이런 보약은 크게 노인보약, 성인남녀보약, 산후보약, 수험생보약, 소아보약 등으로 나뉜다. 이번 칼럼에서는 환절기에 건강을 잃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한 보약에 대해 알아본다.

의학적으로는 약 40세부터를 노화 개시기(開始期)로 본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기혈(氣血)이 쇠약해지고, 양기(陽氣)와 진액(津液)이 부족하고, 신기(神氣)가 쇠하여 여러 좋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근력과 시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소화기능이 쇠약해질 뿐 아니라 배뇨·배변장애, 퇴행성관절염 등의 증상도 일어난다. 이처럼 노화 개시기에는 신체와 정신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린다.

노인질환은 노쇠해서 일어나는 증상이므로 거의가 재생 불가능한 만성화된 것이다.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이 점을 고려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인이 만일 감기에 걸렸을 경우에는 독한 약은 금하고 땀을 지나치게 내게 하거나 설사를 무리하게 하거나 하는 약은 써서는 안 되며, 약성이 부드럽고 순한 것으로 치료하거나 보양하는 약을 위주로 치료를 해야 한다.

한편 병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보약을 쓰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소화기능이 떨어질 때는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므로 되도록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이상적이다.

이처럼 보약이라는 것은 사람과 때와 장소를 가려서 먹어야 효력이 있다.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먹는다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약을 복용하는 것과 함께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보약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옥고'와 '공진단'이 있다. <동의보감>을 보면 경옥고(瓊玉膏)는 심장과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장수보약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진액을 만들어 주는 보음제로 뼈를 튼튼하게 해주어 노화를 방지하고, 성호르몬을 왕성하게 해줌으로써 성인들의 스태미나 감퇴를 예방 또는 증진시켜 준다. 그러나 평소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양을 줄여서 복용해야한다.

공진단(拱辰丹)은 중국 원나라 때 명의였던 위역림이 편찬한 의서(醫書)에 기재된 처방으로 특히 간기능 개선증상에 뛰어난 효력이 있다. 원래 처방의 구성이 훌륭해서 체력보강과 스트레스 해소, 정신력의 회복과 혈액 순환촉진 및 성호르몬의 보충과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노인보약은 인체의 정(精)을 보해주며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중풍을 예방하며, 머리를 맑게 하여 치매를 예방한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대한불교 조계종 만인회 약수사 만탑 불사 모연문

탑이란 누겁다생으로 갈고 닦아 이룬 소원성취의 결정체이며 옛부터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소원성취 만탑불사에 신남신녀 여러분의 수희동참을 앙망하옵니다.

일체중생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만탑불사는 역사이래 보기드문 대작 불사이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다라니 기도를 매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국내최초, 최다 만탑 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자손대대로 무량대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

◆동 참 금 : 1인 1탑 30만원(10회 분할가능)
◆구좌번호 : 농 협 525-01-176510 (예금주 : 약수사)
우체국 400051-01-007539 (예금주 : 조계종만인회)

◈ 만인회 회원도 모집합니다. (월회비 1만원)
◈ 회원 가입시 각종 혜택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시 만인회 책자 무료우송

◆동참문의 : 063)625-6831/010-9115-6831

약사여래기도도량
지리산 약수암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 183-2번지
※약수사 참배시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보은사 울산포교원 통명정사 교육원 개원안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지 160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더욱 키우고져 생활속에서 함께할 도심속에 포교원을 개원하여 중생의 복밭이 되며 생활속에 지친 불자들의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약속할 도량이기를 발원하옵고

평소에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신적은 없으셨습니까?
보은사 울산 포교원 통명정사로 오십시요!
쉽고,재미있게 자비로운 부처님곁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기초교리, 생활요가
개원일 2007년 8월 11일(토) 오전 10시

요일	강의내용	시 간	대 상	비 고	강 사
월	불교 기본 의식	오후 2시~5시	일반,스님	도량석,종성,예불, 불공3개월	석원범
화	기초예절,기초교리 및 사찰 건축물의 이해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혜명
수	"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혜명
목	생활요가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동산
금	생활요가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동산
토	불교제반의식	오후 2시~5시	일반,스님	재의식,임종염불, 방생,일반법회6개월	석원범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 2동 618-14 (울산대학교 정문 맞은편)
◆전 화 : 052)247-8883 / 052)238-8819 / 휴대폰 : 010-4554-1412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85) 오대산 상원사

극상림의 숲으로 생물 다양성 우수


동고비.


이깔나무.


동자꽃.


노루궁뎅이버섯. 사진=유채봉

상원사 가는 길은 월정사를 지나면서 비포장길로 바뀐다. 상원사 주차장에 이르면 계곡을 따라 북대로 가는 숲길이 나 있다. 이 길은 오대산을 관통해서 홍천으로 넘어가는 비포장 446호 지방도이다. 현재는 자동차 통행을 금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 길을 포장하여 개방하자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도로 자체를 아예 폐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월정사와 상원사 사중에서도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조와 문수동자 전설이 얽힌 관대걸이 옆에 잘 자란 잎갈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일반명사로서의 '잎갈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나무를 두루 일컫지만, 여기서는 백두산이나 개마고원 등 추운 북쪽지방에서 자라는 이깔나무(Larix gmelini var)를 가리킨다.

이깔나무는 흔히 낙엽송이라 불리는 일본잎갈나무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위도상 오대산 아래 지방에서는 자생하지 않는다. 이깔나무는 30m 이상 자라고, 가지는 수평이나 아래로 처져서 자란다. 귀한 나무인 만큼 상원사에서 나무 아래 안내판을 세우고 종자를 받아서 후계목을 키워내야 할 것이다.

상원사를 눈앞에 두고 오른쪽에 위치한 부도전 주변은 상원사에서 가장 양명해서 다양한 꽃들이 자생한다. 여름을 마감하는 동자꽃과 가을을 여는 흰진범을 비롯하여 우산처럼 생긴 여러 종류의 산형과 꽃들도 다투어 피어있다.

동자꽃은 문수동자 전설을 연상케 해주는 맑고 청초한 꽃이다. 주로 깊은 산 숲속 양지 바른 곳에 나는 여러해살이 풀꽃이다. 긴 털이 있는 줄기나 곁가지 끝에 주홍색 꽃이 핀다. 사찰 경내에 심어도 훌륭하다.

적멸보궁 텃밭에 꽃을 피운 당귀는 산형과 초본. 오랫동안 약초로 이용되어 왔는데, 오대산에서도 자생하고 있다.

한편 외래 귀화식물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 붉은토끼풀을 비롯하여 달맞이꽃, 돼지풀, 토끼풀, 미국가막사리, 지느러미엉겅퀴, 개망초, 망초, 뚱딴지, 서양민들레 등은 상원사 불사 과정에서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다.

상원사 역사에 걸 맞는 노거수 몇 그루쯤은 있어 주어야 하는데, 넓은 마당에 나무라고는 산돌배나무(P. ussuriensis) 한 그루 뿐이다. 산돌배나무와 돌배나무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어렵다. 돌배나무는 주로 중부 이남에, 산돌배나무는 중부 이북에 자란다. 가을에 돌배가 익을 때, 꽃받침이 남아있으면 산돌배이다.

산돌배나무가 지키고 선 마당에 서면 동대와 서대가 눈앞에 펼쳐진다. 특히 앞산 장령봉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전나무들이 곳곳에 우람하지만, 월정사처럼 떼를 지어 있지는 않다. 저들끼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점잖게 자리하고 있다.

오대산은 경사진 곳도 부드럽고 그윽한 느낌을 준다. 그것은 불같은 암봉이나 숨 가쁜 암벽들이 보이지 않는 육산이기 때문이다. 흙살이 도타운 만큼 식생이 다양하다. 식생이 다양하면 출현하는 곤충상도 다양하고 개체수도 많다.

여름 늦비가 온 뒤라 다양한 곤충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비와 잠자리는 여러 종류가 관찰되었다. 큰흰줄표범나비, 산제비나비, 긴꼬리제비나비, 조흰뱀눈나비, 대만흰나비, 물결나비, 뱀눈그늘나비, 애기세줄나비, 황오색나비, 은점표범나비, 작은멋쟁이나비, 큰노랑물결자나방, 팔랑나비류….

큰흰줄표범나비는 날개를 포함한 길이가 7센티를 넘는 큰 나비에 속한다. 담황색 날개에 표범 같은 얼룩무늬가 있다. 산지의 숲 가장자리, 길섶의 밝은 초지 등에 서식한다. 숲이 울창한 곳을 좋아한다.

법당 돌계단 위에 유리알락하늘소 한 마리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 늑살을 당했다. 개체수가 적어서 관찰이 쉽지 않아 귀한 유리알락하늘소는 딱지날개가 유리처럼 반들거린다고 그런 이름이 붙었다. 여름에 나타났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모습을 감춘다.


상원사 숲.

경내 역사에 걸 맞는 노거수 하나 없어 오대산 흙살 도타워 곤충상 개체수 많아 비로전 뒤 군락 형성한 달뿌리풀 '특이'

관대걸이에서 적멸보궁에 이르는 동안 전나무 소나무 잣나무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지만, 역시 세력은 다양한 활엽수들이 장악하고 있다.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참나무, 엄나무, 거제수나무 등. 몇 종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친절하게 나무이름표를 매달아놓았다.

엄나무는 '음나무'라고도 하는 키 큰 낙엽활엽수이다. 지름이 1m나 되는 것들도 있다. 잎이 단풍나무잎과 비슷하며 다섯 갈래로 갈라져 있다. 두릅나무와 구별하여 개두릅이라고 하며, 맛이 쌉쌀해서 산중에서 두릅보다 더 쳐준다. 올해 난 새 가지 끝에 황록색 꽃이 핀다.

거제수나무는 자작나무처럼 줄기껍질이 잘 벗겨진다고 해서 '물자작나무'라고도 한다. 줄기 색깔이 누렇다고 해서 한자로는 '황단목(黃檀木)'이라고도 한다. 1000m가 넘는 아고산지대에 사는 나무로, 잘 자라면 높이 30m에 지름이 1m에 이른다. 상원사에서 비로봉 구간 곳곳에서 만난다. 중대사자암은 작년에 계단식 5층 불사를 했는데, 형국에 비해 너무 웅장하여 위압감을 준다. 한암 선사가 지팡이로 짚고 다니다가 꽂아두었다는 단풍나무가 그 바람에 열반을 했다. 절에서 그 종자를 키우고 있다지만, 확인이 되질 않았다.

사자암 비로전 뒤에 달뿌리풀이 시퍼렇게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다. 대개 계곡 물가 가장자리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여기서는 산중 비탈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런 예는 여느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여름과 가을 사이, 날이 축축하여 산중 여기저기 이름 모를 버섯들이 많이 돋아나 있다. 지난 2005년도에는 오대산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고등균류(버섯류) 8종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노루궁뎅이버섯이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솜털방망이처럼 생긴 버섯이다. 가을에 주로 신갈나무 등 참나무와 활엽수 줄기에 붙어서 자란다. 처음에는 흰색에 가깝지만 나중에 노랗게 변한다.

적멸보궁은 중대사에서 다시 10여분 거리. 적멸보궁 가는 길은 불자들과 등산객들의 잦은 왕래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고 나무뿌리들이 드러난 곳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 구간에는 돌을 깔고 간벌목으로 가장자리에 테를 둘렀다. 부득이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적멸보궁은 해발 1200m, 오대산 주봉인 비로봉에서 달려 나온 용이 고개를 쳐든 곳에 신라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갖고 온 불사리를 모셨다. 전에 없던 매점과 잔디마당이 생겨서 좀 낯설다. 적멸보궁에서 비로봉(1563m)까지는 1시간 거리이지만, 숨이 가쁘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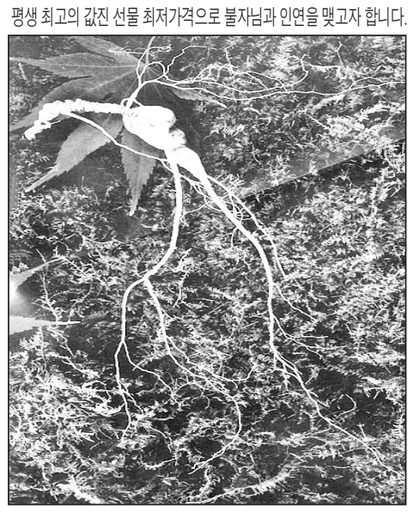
서대 염불암은 상원사에서 중대사자암 길로 조금 가다가 왼쪽으로 1시간 거리, 계곡을 건너 장령봉 중턱에 있다. 가는 길은 길섶의 웃자란 초목들이 길을 가려서 숲속에 감추어져 있다. 게다가 길은 한 사람만 지날 수 있을 만큼 비좁다. 그래서 이 길은 팽팽한 즐거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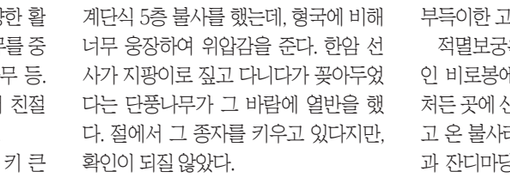
오대산은 사찰이나 암자 주변 말고는 거의가 녹지자연도 9등급에 해당한다. 9등급이라면 극상림에 해당하는 자연림으로, 남한에서 튼실하기로 손꼽을 정도이다. 극상림은 숲의 천이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숲으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다.

숲에 들어서자 몇 마리의 박새들이 날카로운 경계음을 내며 길을 비켜주고 있다. 텃새로는 불자들의 친근한 도반이 되어버린 적멸보궁의 동고비를 비롯해 박새, 곤줄박이, 어치, 멧비둘기, 큰부리까마귀 등이 관찰되었고, 여름철새로는 흰배지빠귀만 겨우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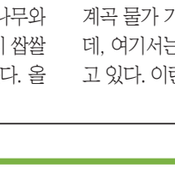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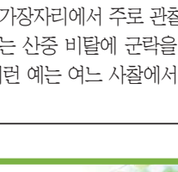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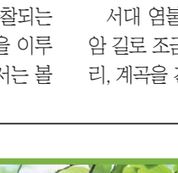
우통수는 보천과 효명 두 태자가 5만 진신에게 차를 올렸다던 바로 그 '동중수(洞中水)' 물이다. 옛 문헌에 우통수는 물이 무거워 차 달이는 데 첫손에 꼽혔다고 한다. 현재 한강의 발원지는 둘이다. 태백 검용소가 지리적 발원지라면, 이곳 우통수는 역사문화적 발원지이다. 우통수에는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元·氣·回·復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www.wonjulife.co.kr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자연의 건강한 맛에 빠져보세요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건강에 행복을 더한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의 영양 원주흑선식 2개월분 90,000원

천하의 명약으로 알려진 히말라야 석청 1kg 300,000원

맛과 영양에서 탁월한 원주장류
▸원주청국장환(1kg): 25,000원
▸원주청국장분말(1kg): 20,000원
▸원주된장(2kg): 20,000원
▸원주고추장(2kg): 25,000원
전국대리점 모 집 중
무상사
주문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산28-3번지
소비자상담실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영원한 보배는 바로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

이곳 제주도에 오늘 도착하고 보니까 비가 오더니 지금은 날이 이렇게 활짝 개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마음도 활짝 개인 한마음으로 한자리를 하고 앉았으니 너무나 기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의해 사람이 지옥고에 떨어지는가 하면 승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한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로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하나가 귀중하며 묘법이고 광대무변하다는 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바로 마음의 시자인 것입니다. 위로는 일체제불, 일체 조상을 자기 근본에 한마음으로 귀합을 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해서 섬기고, 아래로는 자기 몸뚱이를 돌보면서, 또 몸뚱이 속에 있는 수억 마리의 중생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바깥의 내 식구들을 돌보면서 내 모든 동포와 민족을 돌보니 이 한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것입니다.

내가 제주도에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병자들이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식모 노릇을 할 때는 식모가 되고 또 하인 노릇을 할 때는 하인이 되고, 의사 노릇 할 때는 의사가 되고 또 사장 노릇 할 때는 사장이 되고 하듯이 이 세상에는 고정관념도 없고, 보는 거 듣는 거 가고 오는 거 먹는 거 또는 마음먹는 거까지도 고정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의 수없이 바뀌는 마음에 의해서 행이 주어지니 얼마나 천차만별로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을 볼 때마다 바로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내가 괴로운 것처럼 내가 울부짖어집니다. 그런고로 여기 와서는 설법을 할 때도 여러분의 차원에 맞춰서 설법을 하게 되니까 이런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스님은 병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말이 나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 몸을 하나 잘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고 말씀을 드린 그 뜻을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두 가지 여건이 있는데 내부와 외부의 문제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하면, 나부터 알아서 나를 이끌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남을 이끌어 줄 수도 있고 일체제불과 같이 한자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부처님을 나와 더불어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 광대무변한 능력이 생김으로써 공덕법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알면 계율은 저절로 지켜지고 지혜도 늘어나고 물리도 터지는 거죠. 그럼 우리 스스로의 마음, 그 한자리에서 스스로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빛보다 더 빠르게 오고 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일체 만법을 이렇게 수레바퀴 굴리듯이 무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 가지의 꽃이 피고 만 가지 향내가 나고 만 가지 열매가 맺혀서 무르익어 만 가지 맛을 낼 수가 있는 신비하고도 도도한 이것이 바로 공덕법행입니다.

아까도 한 분 한 분 만났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배는 바로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름 해서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주인공' 하면 그 안에 일체 만법이 다 들어 있으니, 삼천대천세계의 우주의 섭류까지도 그 속에 다 들어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묘법입니까? 불가사의한 뜻이 거기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하고 부를 때에 말로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만 올리라는 게 아니라 '주인공! 당신은 수만 겁, 수억 겁을 거쳐 오면서 나를 형성시키고 모습을 바꿔 가면서 화해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장본인이자 나의 뿌리이다. 삼천대천세계가 공생(共生)으로서 공용(共用)으로서 공체(共體)로서 돌아가는 이치를 합해서 바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일컫는 것이다. 당신이 형성시켰으니까 안되는 것도 바로 당신이 할 수밖에는 없다.' 하고 뜻으로서 받아들일 때라야 그 진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일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일임시킬 수 있고요. 안되는 것은 '그렇게 안되는 것도 당신만이 되게 할 수 있어.' 하고 믿고 일임시킬 수 있는 것은 진정코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서도 '주인공! 나 좀 낫게 해 줘.' 이런다면 벌써 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가도 돌아서 가는 격이 되죠.

공을 쳤는데 바로 들어가서 저기 가서 탁 맞아야 그 공의 힘을 100% 쓸 수가 있는 거지, 공을 쳤는데 돌아서 저기 가서 맞는다면 공의 힘을 전부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둘로 보지 마시고 직속으로 '네가 형성시켰고 네가 수억겁을 끌고 다녔고 현재에도 끌고 다니니까 바로 네가 할 수밖엔 없지 않은가! 너밖에는 못한다.' 하고 믿고 맡기되 맡긴 후에는 거론하지 말라 이거예요. 방황하지 말고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것도 바로 네가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거지 몸뚱이가 너를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다. 마음이 몸뚱이를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 뿌리는 바로 에너지와 같고 심봉과 같고 축과 같아서, 비행기 프로펠러가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천지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라, 인간이 일체 만법을 이렇게 운영하고 행을 하는 것도 마음의 근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 이 오묘한 마음의 근본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부처님이나 큰스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마는 우리 같은 중생들이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뜻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과 더불어 똑같이, 이 형상도 부처님하고 다 똑같이 나게 했습니다. 마음 하나가 물리가 터지지 못하고 자기 낳기 이전을 자기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중생이라는 말을 듣게끔 돼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들도 바로 주인공에 그렇게 믿고 맡길 수만 있다면 나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밀고 나간다면 어떤 것이든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이거는…. 그건 장담합니다. 자기가 실험을 안 해 보고 자기가 체험을 안 해 보고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를, 공부랄 건 없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도리를 다 익히지 못해서 지금 병에 끄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도리를 알려고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만 기울어지지 말고 한 푼이든 두 푼이든 자기 형편대로 부처님 앞에 놓으면서 '일체제불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바로 내 마음이요, 당신의 형상적인 몸이 바로 내 몸이니 어찌 둘이겠습니까? 주인공! 당신 밖엔 해결 못하시오.' 하고 정성을 들이면, 여러분이 나으니 좋고 그 돈을 모아서 또 여러분의 여래의 집을 만든다면 그건 더욱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건 어떠한 개인의 집이 아닙니다. 여래의 집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집이자 여러분의 집이자 일체 만물만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묘한 마음의 도리를 잘 발견하고…. 본래 없는 것을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모르니까 발견하라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끌고 다니는 것도, 이런 게 있습니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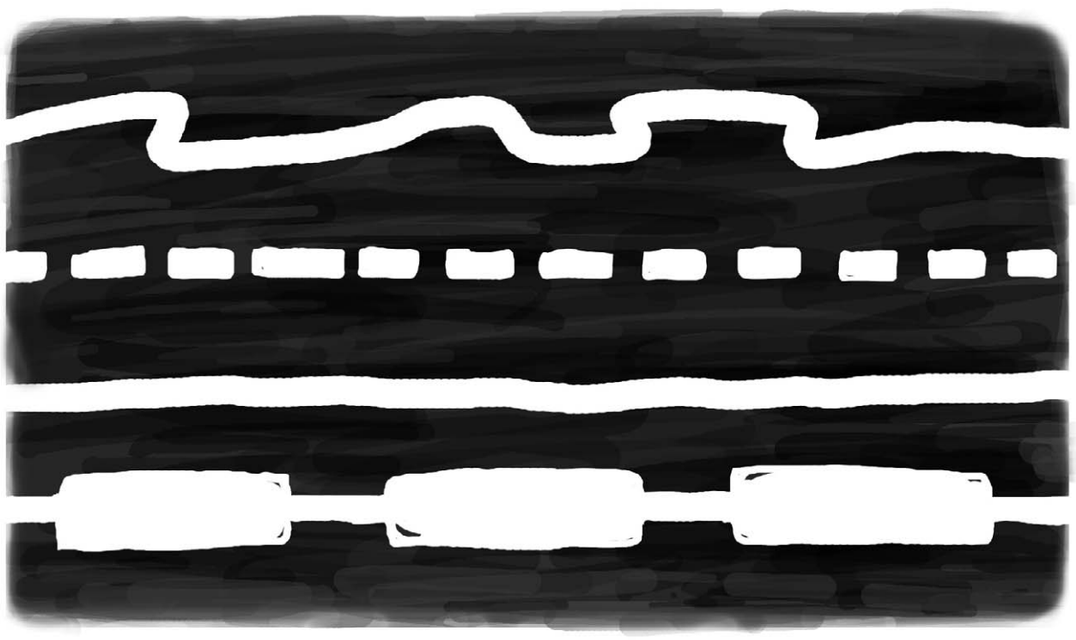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교의식(범음 · 범패) 단기 속성 수련생 모집
(제9기 교육)

본 교육원 에서는 실제로 상용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를 여법하게 집전 할 수 있도록 집중(단기속성 7일간) 교육을 받을 **제 9기 학인스님을 모집** 합니다
제방에서 수행과 기도 정진으로 교화와 포교에 전력을 하시는 스님들께옵서는 범 종단 차원으로 실시하는 이번 제 9차 범음 범패 의식 교육에 수희 동참 하시는 시절 인연을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 교 육 일 시 : **불기 2551년 10월 1일(음 8월 21일) 월요일 - 10월 7일(음 8월 27일) 일요일**
■ 교 육 장 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미륵골 무각사
■ 제 출 서 류 : 수강신청서(본 회에서 배부) / 주민등록 초본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동참비 : 일십만원(교육교재 지급/숙식 등 제반편의제공)
■ 접 수 기 간 : **불기 2551년 10월 1일 까지**(교육 입소 당일 접수가능)
■ 접 수 : 011-604-8902(회장), 011-613-6497(총무)
011-604-9584(교무), 010-3639-2946(재무)
■ 생활 습의는 대중 처소와 같이 합니다.**(가사, 장삼, 목탁, 필기도구 지참요망)**

■ 교육과목

안채비	(1) 의식편(상단, 중단, 하단 의식 불공 등) (2) 제의식편(시련, 대령, 관욕, 시식 등)
겉채비	(1) 사물다루는법 / (2) 민바라 / (3) 천수바라 / (4) 다게(나비춤)

※ 실제 법회에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 방법을 이론 / 실기 / 현장실습 교육 방법으로 초심자라도 집전을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수료증 수여 : 준회원 자격부여, 우수한 스님은 선별 심사후 정회원 입회자격 및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실습 기회 제공

사단법인 전통불교 영산회 대중스님 일동 합장

믿고 말기되 말긴 후에는 거론하지 말라!

☞21면에서 계속

다. 마음을 선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음 쓰는 대로 내 오장 육부의 세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거한 탓으로 '나는 죽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운행을 하면서 똑같이 '나도 죽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걸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게 또 있죠. "삼살방이 들어서 나는 그리로 이사를 못 가겠다."라고 한 사람은 못 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어기고 가기는 갔는데 거기에 걸려서 바로 곱사가 됐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삼살방이 어디에 있어? 사방이 터졌는데! 내 한마음이 일체제불의 마음이고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한마음인데 어찌 삼살방이 붙을 자리가 있겠는가!" 하고 그쪽으로 똑같이 갔는데 더 잘됐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질겁을 하고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할 게 뭐 있습니까? 한 번 죽기는 마찬가진데, 네?

>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도
> 바로 주인공에
> 진실하게 믿고 말길 수만 있다면
> 나을 수 있습니다
> 바로 자기가
> 믿고 나간다면
> 어떤 것이든
>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를 영원히 두겠습니까? 옷과 같은 겁니다. 옷이 헐었으면 벗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옷이 헐어서 벗어 버릴 거를 알면서도 그 옷이 벗어 버려질까 봐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선 그렇게 노예가 된다면 그건 바로 미신이요 귀신인 것입니다. 사람이 미신 노릇을 안 한다면 선신이고, 사람이 미신 노릇을 한다면 미신인 것입니다. 죽어서도 세세생생에 끊임없이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건 미신이요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언제 깨달아 일체제불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어서 위로는 섬기고 아래로는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귀중한 것을, 그렇게 보배인 것을 모르시고…. 여러분 가정에 질병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술을 먹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또 마음을 제각기 먹고 오해를 해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자식들하고도 화목하지 못하고 어른하고도 화목하지 못하고, 그래서야 그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 무슨 돈이 풍족하게 늘어 가겠습니까?

돈은 눈이 없고 생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생명이 있고 눈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쫓아가려고 애를 쓰면 달아나갑니다. 앉아서 쫓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일체 만법의 그 능력을 쓸 수 있어야 하죠. 수레바퀴 굴리듯이 내 마음을 굴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으셔서 앞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때에 절에서 기복을 쓴 것은 하도 스님네들을 탄압을 하고 붙들어다 볼기를 치고 그러니까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칠성각이니 독성각이니 신중단이니 모두 해 놓고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똑바로 아시고서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대두 한 말들이 불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불기가 넷, 다섯이 되니 한 몇 분만 정성을 들이고 가도 스님네들이 1년을 공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기복으로 해 놓은 것인데, 이 밝고 밝은 지금 세상에, 물질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시점에서 그런 것을 개선 못한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하며 앉아서 호국 불교를 논의하겠습니까? 지금은 앉아서 무역을 하고, 앉아서 저 소련이나 먼 나라의 소식을 듣고 있고, 앉아서 스위치만 누르면 미국으로도 그냥 소식을 주고받고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미거하게도 예전에 기복으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져서 자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한 습관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옛날이야기 좀 할까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부인을 넷을 얻었습니다. 이걸 비유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인제. 그래서 부인을 네 명을 얻었는데 자기가 죽게 됐습니다. 다 죽게 돼서 인제는 숨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둘째 부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여보 당신! 사계절을 통해서 당신을, 더우면 얇은 옷을 입히고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히고 맛있는 걸 먹이고, 모든 것을 당신이 해 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해 왔잖소? 그러니 내가 지금 죽어 가는데 당신은 안 따라가려오?" 하니까 "나는 못 따라가겠소." 하거든요. 셋째 부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몰라준단 말이오. 그러니 내가 죽어 가는데 당신은 갈 수 있겠소?" 하고 물으니 "나도 갈 수 없소."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넷째 부인을 불렀습니다. "당신을 내가 극진히 위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당신은 나를 쫓아가지 않으려오?" 하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 가시는 대로 묘지나 화장터밖에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말입니다. 첫째 부인을 마저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는 소리가 "당신을 내가 등한시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당신하고 평생토록 인연을 맺은 것만은 사실 아니냐? 그러니 내가 죽어 가는데 같이 갈 수 없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못났든 잘났든, 많이 살았든 적게 살았든, 수억겁을 거치든 단생이든 당신을 쫓아가지 않고 누구를 쫓아갑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 둘째 부인은 이 몸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더우면 더운 대로 지금도 부채질해 주고 계시죠? 얼마나 위합니까? 더우니까 부채질을 해 주고 얇은 옷을 입혀 주고, 땀이 나면 씻겨 주고 배가 고프면 먹여 주고, 입맛이 없으면 맛있는 거 먹여 주고 얼마나, 이 몸을 위해서 마음이 얼마나 했습니까?

보십시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이며 자동적입니다. 마음이 '내가 해 준다' 하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자동적이며 스스로입니다. 이게 바로 묘법입니다. 보십시오! 더우니까 말없이 자동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스스로 그냥그냥 이렇게 손이 놀려지죠? 부채가 뭐 '내가 부쳐 준다' 그러고 부치나요? 내가 '부채질 해야겠다' 그러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우니까 그대로 자동적으로 부채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 해도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햇빛을 가려 놓으니까 내가 못 비춰 주지, 똥구덩이든 어디든 막론하고 너희가 지붕만 없게 해 놓는다면, 벽만 없게 해 놓는다면 다 들어갈 테니까 너희 맘대로 해라." 그런 거거든요. 저 태양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양이 "내 햇빛을 너는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합디까? 그런데 그 태양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태양! 마음의 등불! 그 등불은 끊어짐이 없이 지금 켜져 있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지금 그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만날 이 몸뚱이를 가지고 내가 줬지, 내가 받았지, 내가 살지, 내가 아프지, 내가…, 만날 '나, 나, 나, 나' 하니까 이놈의 잠재의식 카세트에 그냥 얽히고설켜서 감겨 가지고 각본대로 나오죠! 영화배우들처럼 도깨비장난처럼 그냥 각본대로, 나오는 대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탄을 하기를 '아휴, 내 팔자야!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건만 어찌 팔자 운명이 이렇게 가혹한가.' 하고선 한탄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과거도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작년 콩씨를 올봄에 심었더니만 콩나무로 화하고 콩나무에서 콩이 열렸습니다. 그랬으니 그 작년 콩씨가 작년 콩씨대로 따로 있고 올 콩씨대로 따로 있고 올 콩나무가 따로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인생이 태어나면 그대로 화두요 내 몸 나온 것이 화두요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에요. 생활이 그냥 참선이니까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게 그대로 참선이요, 그대로 한 치도 일분일초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시공이 없는 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라고 한 그 뜻은 무엇이냐? 재물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참 극난히,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자기 병드는 줄 모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죽어 갈 때는 아예 한 푼도 개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돈더러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죽어 갈 때 자기 몸더러 말을 했고 자기 재물더러 말을 했더니, 재물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를 바로 죽을 때에서야 알았다 이 소립니다, 인제. 그걸 비유한 겁니다.

네 번째 부인이란 권속을 비유하는 겁니다. 부인이나 남편,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을 애지중지 그렇게 길렀건만, 맛있는 거는 먹이고 맛없는 거는 대신 먹어 가면서, 젖은 자리는 마른 자리로 갈아 주면서 길렀더니 죽어 갈 때에 "묘지밖에는 못 가고 화장터밖에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자기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란 얘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안 그런가? 화장터밖에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지만 내내 기껏해야 종노릇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햇빛을 준 거라고도 하겠지만 묵은 빚을 갚지 못했다면 햇빛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뜻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실로써 한생각을 했다면 자기가 먹는 밥 한 그릇을 가지고도 천도를 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서, 또 빚을 얻어서라도 천도를 시켜야만이 잘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조상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그렇게 돌아간 분들은 한이 되니까 자식 된 도리로 다소는 이렇게 차려 놓아야 되겠지만…. 보십시오. 아파도 조상의 탓, 잘못돼도 조상의 탓을 하고 야단입니다. 그래,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죽어서나 살아서나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 있을 때 부모가 지게꾼이었다면 돈을 못 버니까 자식을 공부 못 시켰지, 부모의 마음이 모자라서 못 시킨 게 아니거든요. 가난해서 못 시켰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허허허…, '출세하라. 회전의자에 앉으려면 출세하라.' 이랬죠? 그런 속담의 말이 있듯이 이 도리를 알면 내가 스스로 두루 원력이 있고 두루 자비가 생기고, 두루 아니 봐 주는 데가 없고 두루 물리가 터져서 일체 삼천대천세계 그 법계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가고 옴이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도리를 공부한다면 여러분한테도 그대로 에너지가 풍부하게, 서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만 가지의 꽃이 피고
> 만 가지 향내가 나고
> 만 가지 열매가 맺혀서
> 무르익어
> 만 가지 맛을 낼 수가 있는
> 신비하고도 도도한
> 이것이
> 바로 공덕법행입니다!

※위 법문은 1988년 8월 22일 제주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불교대학원 남 · 여 <승려 교육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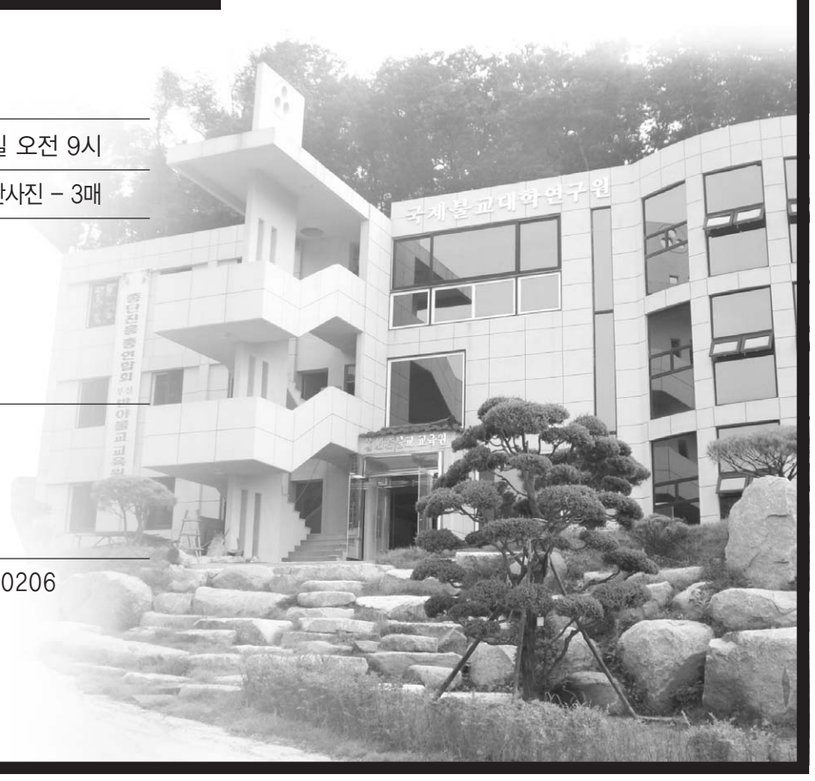
기 본 과 정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범음,범패,작법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불교학 개론	대승불교, 초기불교, 화엄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선사상, 밀교사상, 유식사상,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초발심자경문

※ 불교학을 알아야 법문(설법)을 잘한다. 교육하면서 지도자적 발성 지도함.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1-212404 (예금주 :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 모집인원 : 30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개강일시 : 2007년 9월 15일 오전 9시
◆ 제출서류 : • 입학원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 1통 • 반명함판사진 – 3매
◆ 중앙불교대학원 교수진
– 회암스님 · 前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지.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학 출신. 철학박사
– 마정스님 · 종단진흥회 부회장 겸 임제선학원 원장. 철학박사
– 혜성스님 · 바라범패 전수자. 구화종 총무원장
* 기타 필요강사 초빙 강의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전사항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단 숙식 거주자만 접수함(한달숙박비 50만원)(지도강의료는 무료임)

◆ 문 의 : 본대학 사무국 : 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5-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공)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부설 중 앙 불 교 대 학 원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교수

아프간 인질사태를 보는 국민의 눈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에 납치됐다 풀려난 한국인 인질 19명이 지난 9월 2일 입국했다. 분당 샘물교회 신자를 비롯한 23명이 봉사활동을 명분으로 출발했다가 2명이 현지에서 살해되는 아픔도 겪었다.

지난여름 무더웠던 날씨만큼이나 우리국민을 짜증나게 만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째, 기독교의 선교방식이 너무 공격적이다. 기독교 자체에서도 "물량적 교회 성장 정책은 해외선교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호기심과 탐험심이 강한 젊은 학도들을 자극시켜 봉사활동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선교를 강행한다(김형태 원로목사)"고 스스로 자책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의 참뜻을 나누고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섬기는 '미시오 델리(Missio Deli)'보다는 예수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미시오 크리스티(Missio Christi)'에 치중되어 있다. 이 전도 방법은 '예수의 지상명령'에 따라 대상을 가리지 않는 공격적, 배타적 복음전파를 벌인다. 남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선교활동은 '문화적 폭력'이다.

둘째는 국제적 감각이나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 기독교는 크게 루터파와 캘빈파가 있는데 루터파는 가톨릭교회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상주의를 토대로 공격적 방식으로 출발했고, 캘빈파는 하나님 앞에 원죄 의식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 들어 온 기독교는 루터파이고, 국내에서 쓰는 공격적 방식으로 해외 선교를 하다 보니 타 국가 문화와의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이번 인질사태에 대한 몸값을 지불했는가의 문제다. 외신은 2000만 달러(약 187억원), 2000만 유로(약 257억원)를 지불했다고 보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장관은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돈을 주었다면 그 돈은 정부의 돈이고,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이다. 국민의 돈을 제한국에 간 기독교 인질 구출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 돈은 당연히 샘물교회 또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 말하자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이라크에 납치되었다 풀려난 자국민 3명에게 항공료 2400만 원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넷째, 인질구출과정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적절치 못한 쇼맨십을 들 수 있다.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공개적인 기자회견,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코미디 같은 행동을 보여 주었다.

다섯째, 한국외교정책의 딜레마다. 불법감금을 자행한 테러단체와는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협상원칙인데 우리 정부는 이를 어겼다. 우리나라는 어쩌면 정당한 외교능력이나 국가의 존엄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불법감금 자국민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와 다른 차원의 모습니다.

여섯째, 탈레반에 의한 인질문제의 해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좌파세력, 시민단체들은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촛불시위를 시도했다. 이는 실체적인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미국에 가서 인질문제를 부탁하고 다녔다. 이러한 갈팡질팡 전략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해외 종교활동의 원칙을 수립하고 자국민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외교적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와 국가, 종교와 종교 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유가 보장되는 토대 위에서 해외종교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고 본다.

불자의 눈

조계종에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

조계종이 최근의 난맥상을 딛고 한국불교 장자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노천에서 비를 맞은 후에 우산을 준비하는 격이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비를 맞은 뒤에 땅이 더 굳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다.

9월 4일 개원해 5일 폐회한 조계종 제174차 임시중앙종회에는 세간의 이목이 쏠렸었다. 동국대 문제와 관음사 · 백담사 문제 등으로 종단의 균열상이 극심한 시점에 열린 종회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국대를 둘러싼 이사후보 추천과 현재 이사직과 중앙종회의원직을 겸임하고 있는 스님들의 행보에 대한 종단 안팎의 관심은 매우 컸다. 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들이 격돌하게 되면 자칫 과거의 종단사태가 또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앙종회는 격돌하지 않았고 오히려 승가의 '무소유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또 작금의 종단 현안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대승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기구도 구성했다. 이번 제174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의원스님들은 상정된 여러 안건들도 순리대로 토론하고 의결하는 등 화합정신이 살아 있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물론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총무부장 현문 스님의 자성어린 목소리도 교계에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다. 또 실천불교승가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의 자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도 종단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려는 사부대중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된 것이었다.

중앙종회가 승려법을 개정해 종단 소속 스님들이 환속 · 제적 · 사망할 경우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종단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 승가의 무소유 정신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있는 조치다. 그러나 이 법이 원만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승가의 노후복지 정책이 반듯해야 한다.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소유 정신만 강조한다는 것은 편법을 낳는 원인이 된다.

조계종 뿐 아니라 모든 종단에 소속된 스님은 해당 종단이 노후와 사후를 여법하게 책임져 주어야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복지와 인사의 공정성, 노후복지와 사후복지야말로 현대사회의 출세간에게 있어 기본권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조계종이 이번 임시중앙종회에서 종단 현안과 관련한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 역시 승가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읽힌다. 최근의 난맥상을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이번 대책기구를 구성시켰다. 대책기구의 출범은 상징이 아니다. 어떤 일보다 급박하고 절실한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락으로 빠져드는 종단을 건져 올리는 일,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종도와 국민들이 납득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반성과 재기의 틀짜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대책기구가 위기 모면용, 대외 홍보용으로 전락한다면 조계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중앙종회에서 대책기구를 결의하며 낸 결의문은 "참회를 통한 자정의지를 현실에 옮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어느 정도의 선을 의미하는지 불자들이 지켜볼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28. 국가의 선교지원 안 돼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국가사업 지원 자격에 '종교제한' 없애야

수년 전 외교통상부의 산하기관인 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해외봉사단 파견 지원사업에서 특정종교 성향의 비정부기구(NGO)들이 봉사단원 선발에 종교제한을 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 사건으로, 부분 시정이 되었다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슈로 남아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NGO들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해원협)를 결성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한 봉사단원들에게 국내 사전훈련과 현지훈련을 실시하는데, 봉사단원 선발과정에서 '해원협' 홈페이지에 '비전 있는 기독교인, 심신이 건강한 개신교 청장년 남녀' 등으로 자격조건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공고를 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종교차별'이라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항의에 KOICA의 관계자는 "특정종교 신자가 아닌 일반인은 NGO를 통하지 않고 직접 KOICA 봉사단원 모집에 참가하면 된다"면서 사안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선발과 파견 과정에서 종교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국가사업에 특정종교인에게 특별한 길을 열어줬다는 사실 자체가 위헌인지조차 모르는 공무원들의 무지가 놀랍기만 하다.

이를 계기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2006년 2월 7일 28개 중앙부처와 174개 산하 기관의 2005년도 입사지원서를 조사해 모두 16개 기관 응시원서에 종교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정자치부에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한 바 있는데, 26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시험시행기관별로 시행하는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힘으로써 오랜 관행 중의 하나였던 종교차별 사안 한 가지를 확실하게 시정해 놓기도 했다

그 후 다행히도 KOICA와 해원협 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특정종교 자격조건을 삭제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제구호단체들의 협의체인 해원협 홈페이지에서만 그런 자격조건이 삭제되었을 뿐, 실제 개별 단체들의 선발과정에서는 아직도 공공연하게 특정종교인들만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원협 소속 60여 개의 단체 중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국제기아대책기구, 한민족재단' 등 잘 알려진 단체들을 포함 90% 이상을 차지하는 개신교계 단체들이 대부분 자신의 종교인들만 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제협력단의 방글라데시 의료 봉사 모습.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한 해 수십 명이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각 봉사단원에게는 연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NGO 활동가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국가예산으로 특정종교인을 선발, 교육과 훈련을 거쳐 해외봉사의 경력을 쌓게 하는 특정종교 육성 편법이 정부의 묵인 아래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뽑힌 종교인들이 과연 봉사만 할까. 이번 아프간 단기선교 활동가들처럼 봉사를 가장한 선교활동도 함께 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KOICA는 개별단체들의 선발과정까지 문제삼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선발과정까지 국가사업의 성격에 맞게 적법한지 감독해야 할 책임이 예산배정을 하는 상위기관에 있음을 모른 척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밖에 할 수 없다. 교사 임금 전액을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사립중 · 고등학교 교사 채용에서 특정종교인에게만 자격을 주는 것도 명백한 종교차별이며 정교분리 위배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해외봉사단 선발도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

학교나 해외봉사단만의 문제일까. 국가의 재정 지원 아래 종교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특정종교 일색의 직원 채용과 운용 방식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문제다. 여기엔 불교계 시설도 예외가 아닐 듯싶다. 도대체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이 왜 국가사업에서 소외되어야 하며, 국가 재원이 왜 선교사업에 간접 지원되어야 한단 말인가. 정부가 시급히 답할 일이다.

겉으론 일반 국민에게 열려 있는 사회단체나 자선단체인 듯 보이지만 실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 지원 받아가며 훈련된 기독교 인재들이 사회에 나가 세력을 형성하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된 것 아니겠는가.

국가예산이란 불자들도 내는 세금이다. 그 세금으로 개신교 인재 키우고 선교하는 상황인데도, 불교계는 의식도 없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없다. 오히려 '그런 작은 일에 매달려 되겠는가, 시시비비를 떠나라'며 허풍마저 떨기도 한다. 사실 모든 사회문제가 원칙에 어긋난 그런 사소한 일로부터 점점 커지는 줄도 모르고. 양자강가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 하는 것이 몇 달 후 뉴욕에 태풍을 몰고 온다는, 소위 '나비효과''라는 것이 가장 불교적이라는 사실을 불교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심포교 성공신화

길 위의 초청 대법회



정우스님
통도사 주지
9월 12일(수) 오후 7시
나는 누구인가



정여스님
여여선원 선원장
10월 12일(금) 오후 7시
참다운 행복이란



지광스님
능인선원 선원장
10월 18일(목) 오후 7시
강남포교의 일번지
포교를 말하다



법륜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11월 5일(월) 오후 7시
정토행자의 발원과 실천



수불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11월 22일(목) 오후 7시
간화선 수행과 원력

주최 |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법보신문
주관 | 신도회관건립불사추진위원회
협찬 | BBS 부산불교방송 국제신문 불교TV
문의 | (051)853-2021 , 853-8539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영구위패


LED 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 사찰명 인쇄시 30일 전에 미리 전화신청 바랍니다.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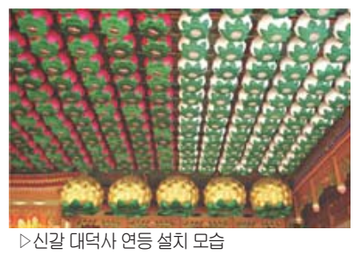


주름등(만월봉축등)

연등 작업 현장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